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2월 4일(음력1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459호

## 선원장들 서울로
# '법문 나들이'

### 첫 초청대법회 … 즉석 '묻고답하기' 도

### 15일부터 조계사서

"한국 선불교에서는 더 이상 인가해 줄 스승이 없다?"

지난 해 서암 청화 월하 서옹 덕암 스님 등 해방 이후 한국불교의 선풍을 드높인 1세대 선사들이 잇달아 원적에 들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선맥을 잇고 있는 차세대 선지식들이 꿋꿋이 산문을 지키고 있다"이다.

조계사(주지 지홍)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불교 전통 선(禪)을 말한다-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는 조계종의 공식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석(法席)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의 2세대를 대표하는 선사들이 1000여년 동안 면면히 흘러 온 법등(法燈)을 대내외에 드러낼 이번 대법회는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80분간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된다. 전국선원 수좌회 대표를 지낸 고우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이 입제법회를 열고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이 '돈오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회향법회를 맡는다. 무여(봉화 축서사 주지) 대원(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함주(법주사 총지선원장) 현산(화엄사 선등선원장)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영진(전 기초선원장) 혜국(남국선원장) 현웅(미 버클리 육조사 주지) 도현(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스님 등이 초청됐고,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경허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주제로 법문한다.

설법의 주제는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드는 법' '선과 깨달음'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일체유심조' '선 수행의 요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한국 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등 간화선의 핵심을 담고 있어, 한자리에서 선의 요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문 후 즉문즉답(卽問卽答)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갖는 이번 법회는 승속을 불문하고 선문답을 주고 받는 무차선(無遮禪) 법회의 성격도 갖는다.

서옹 스님과 진제 스님이 주최했던 무차선대회 정신을 계승한 이번 법회는 평소 대중법문을 자제해 온 선원장 스님들이 주도하는 법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면으로 계속

▮법회 안내(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일 정 | 초청 선원장 | 주 제 |
|---|---|---|
| 2월15일 | 고우(각화사 태백선원장) | 선의 본질과 의미 |
| 22일 | 무여(봉화 축서사 주지) | 화두 드는 법 |
| 29일 | 대원(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 선과 깨달음 |
| 3월 7일 | 함주(법주사 총지선원장) | 마음은 무엇인가 |
| 14일 | 현산(화엄사 선등선원장) |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 21일 |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
| 28일 | 영진(전 조계종 기초선원장) |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 4월 11일 |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 선 수행의 요체 |
| 18일 | 혜국(제주 남국선원장) |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 25일 | 현웅(美 육조사 주지) | 한국 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 5월 2일 | 도현(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 스스로 만드는 행복 |
| 9일 | 설정(수덕사 수좌) | 단박 깨침(돈오)이란 무엇인가 |

# 참선 배우고 싶다 65%, 수행한다 17%

### 배우고 싶어도 지도자 · 공간 부족

### 조계종 포교원 '신도 수행 실태…'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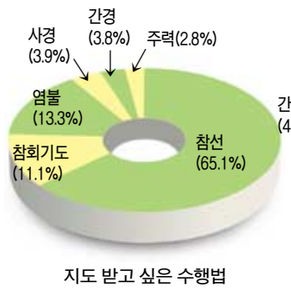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어렵기도 하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열의는 매우 높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참선 수행을 하는 불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수행지침이나 지도자, 마땅한 수행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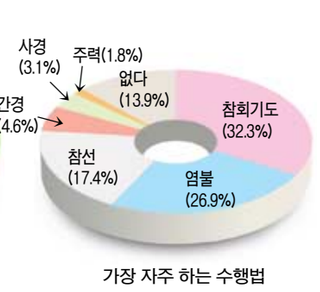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1월 28일 발표한 '신도 수행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설문조사는 신도들을 위한 간화선 수행지침과 수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10월, 불교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재학생과 졸업생(포교사) 1,9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도들의 수행 실태에 대한 조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5.1%)이 '참선'을 가장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수행법으로 꼽았다. 염불(13.3%)과 108배, 3천배 등 절하기를 포함한 참회기도(11.1%)가 그 뒤를 이었고, 사경(3.9%) 간경(3.8%) 주력(2.8%)을 선택한 불자는 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가장 자주 실천하는 수행법 두 가지를 순서대로 골라 달라는 질문에서는 참선(17.4%)보다 참회기도(32.3%)와 염불(26.9%)을 선택한 불자들이 월등히 많았다. 참선 수행을 경험한 불자들의 경우에도 조계종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17.0%)보다는 염불선(21.8%)과 단전호흡(19.6%)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지도 받고 싶은 수행법



가장 자주 하는 수행법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체계 미비'와 '스승(지도자) 부재'라는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불자들이 간화선보다는 다른 수행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의 수행법을 선택한 동기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26.2%)라고 응답한 불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님 · 도반 등 주변의 권유'(24.9%) '나의 근기에 적합해서'(22.2%)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설문에 응한 불자들은 수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체계적인 수행지침이 없어서'(27.7%)를 '일상생활이 바빠서'(47.5%) 다음으로 꼽았고, 수행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법회를 통한 지속적 안내 및 체계적인 교육'(51.6%)과 '사찰(단체) 수행 프로그램의 상설화'(24.5%)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주관한 포교연구실 박희승 차장은 "신도들을 위한 간화선 수행지침과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육성이 종단적 과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 한 해는 신도들이 쉽게 접하고 간화선 수행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수행지침과 매뉴얼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지도자들은 1월 29일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2004년에는 국민화합과 경제안정이 실현되기를 서원했다. 사진은 법회에 이어 새로 개관한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개관축하연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 '국민화합 · 경제안정' 기원

### 종단협 신년하례 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국민화합과 경제회복을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등 불교지도자와 불교단체장, 정관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법어에서 "세상이 어지럽고 괴로운 일이 많을수록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댈 곳은 종교계"라며 "올 한해 국민들의 고통을 감싸 안고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자"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현대불교 제9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2월 14일 오후 2시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사 령
위 영 란
命 편집국 부국장 겸 뉴미디어부장
2월 1일자

새이사장 현해 스님
동국학원 만장일치 추대



전 월정사 주지 현해(사진) 스님이 동국학원 새 이사장에 추대됐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는 1월 27일 열린 제196회 이사회에서 현해 스님을 제21대 이사장에 추대했다.

1968년 종비 1기생으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해 종합대 승격 이후 동문으로는 최초로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 현해 스님은 58년 월정사에서 만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73~80년 일본 고마자와(駒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중앙승가대 교수와 부학장(1983~1985년) 등을 거쳤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제3, 7, 10대 의원을 역임했고, 2002년부터 동국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권형진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 운문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 '인재 양성' 포기한 불사인가?

수십 년째 전국 도처의 사찰에서 대형건축물과 상징물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불사의 역사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찰이나 단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인재불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쉽지 않다. 1천만이 넘는 불자대중의 두뇌와 손, 발이 돼 한국불교의 비전을 실현할 인재육성사업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할 때면 이제는 서글픈 심정이 앞선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조계종 총무원 내 법률책임전문위원을 자청해 화제가 된 두 변호사 보도에 대해 불교계에도 이제 인재가 모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들이다.

그러나 좀더 차분하게 현실을 살펴보면 그러한 기대가 성급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두 사람이 불교계 종사자로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발심을 하게 된 배경이 교단차원에서 인재를 받아들이고 양성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 개인의 결단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인재 결합은 교단이 중차대한 전략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인재양성 목표와 간극이 존재한다.

### '사람이 경쟁력' 인식 넓혀야
### 교단차원의 인력 뱅크 필요

몇 해 전 <매일경제신문>에서 경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우수인재 확보와 활용(45.2%), 최고경영자 리더십(30.6%), 시스템적 운영체제(13.6%) 등을 꼽았다.

한국불교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생존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지도부 스스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절박하게 인식하고 변화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GE 전 회장인 잭 웰치는 '내 업무의 70%는 인재에 쓴다'라고 했다.

둘째, 교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인력을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핵심인재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신규인재 발굴은 개별 조직차원에서 진행하기보다 교단 전체차원에서 인력뱅크를 형성해 조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예산 수립 시 일정 비율 이상을 핵심인재양성에 편성해야 한다. 처음에는 5%를 기준으로 하다 차차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감안해 기본적인 직무분야 이외의 교육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하는 것이 비용대비 면에서 효과적이다.

여섯째, 조직을 학습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업무와 학습이 통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농경사회나 공업사회에 비해 지식문화사회인 21세기는 물적 자산보다 지식, 문화, 이미지가 총화된 무형자산이 월등히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핵심인재가 확보되지 않은 조직에서 21세기 희망 한국불교를 운운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얻는 형국과 다를 바가 없다.

■이영철(불교아카데미 교육연구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교구마다 불교대학 세운다

### 조계종 포교원, '교육·신행 확립' 의지
### 템플스테이 전담기구 등 올 사업 발표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이 각 교구마다 생기고, 행사행정도 온라인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1월 28일 교계 기자들과 만나 "포교원이 별원으로 승격된 지 10년을 맞아 이제부터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포교 종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라며 "올해는 특히 '불자 교육과 신행 확립'에 포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작년부터 강조해온 신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보다 확산시키고, 수행을 중심으로 한 신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선 신도전문교육기관(현재 54곳)인 불교대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직까지 불교대학이 없는 교구 안에 불교대학을 세워 교구마다 1곳 이상의 불교대학을 갖춘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불교대학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불교대학 학사운영 관리를 위한 온라인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2월 중 업체를 선정해 7월까지 개발을 끝내고, 올 하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박용규 신도과장은 "표준화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고 중앙에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종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신도들을 위한 수행체계와 프로그램, 교재를 단계별로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수행문화가 일상적인 신행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사무국을 독립해 외국인과 일반인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군승특별교구 지정 등을 통해 젊은층 포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불교 홍보 영상물 배포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월 27일 조계사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한국불교 홍보영상물 '한국불교로의 초대'를 선보였다.

15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 영상물은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과 수행 가풍, 사찰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해인사, 불국사, 운문사 등 24개 사찰을 돌며 담은 영상을 편집해 내레이션을 얹었다.

영상물은 우리말과 영어 2개 언어를 사용해 VHS, DVD, VCD로 제작되며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한국대사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해외사찰 등에 2월 20일경 배포된다. 박봉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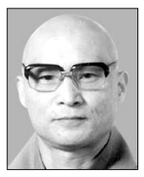
## 종무행정 최고 지도자과정 배우세요

### 동국대 사회교육원 3월부터 강의

종무행정도 현대화·전문화 시대를 맞았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은 3월 봄학기부터 종무행정 최고지도자 과정을 개설, 신입생을 모집한다.

출·재가자 반을 따로 뽑으며 2학기 과정이다. 종무행정 개론 등 기본적인 이론뿐 아니라 종무행정 관련 세무·법무 실무, 국고보조금 관리, 사회복지관 운영 실무, 사찰홍보 등 실무·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30여개 강좌를 개설한다. 과목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강의를 맡길 예정. (02)2260-3728~9 권형진 기자

## 범어사 주지 직무대리 대성 스님 임명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직무대리에 1월 19일 경남 김해 은하사 주지 대성 스님이 임명됐다. 범어사는 3개월 이내에 차기 주지를 다시 선출하게 된다. 대성 스님은 196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64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천미희 기자

## 동대 이사후보 일면·성월 스님

### 조계종 종관위 추천

일면 스님과 성월 스님이 학교법인 동국학원 새 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는 1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입적한 정대 스님 후임으로 전 봉선사 주지 일면 스님(광동학원 이사장)과 성월 스님(2교구 종회의원)을 복수 추천했다. 또 서돈각 이사 후임으로는 원용선 동국대 총동창회 수석부회장과 이재창 동국대 명예교수를 추천했다.

스님 이사는 중앙종회의 종의를 거쳐야 선임할 수 있으나 재가 이사는 중앙종회 동의 없이도 이사회에서 바로 선임할 수 있다. 권형진 기자

## 조계종 동안거 2,256명

2003년 계미년 동안거에는 조계종 전국 93개 선원에서 모두 2,256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선원수좌회 방함록 편집위원회가 펴낸 <계미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비구선원 58곳, 비구니 선원 35곳에서 비구 1,309명, 비구니 947명이 결제에 들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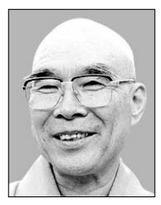
1면에서 이어짐

12인의 선원장스님들이 석달간 연속으로 선지(禪旨)를 펼친다는 점에서 공부인들에게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법회는 위빠사나와 유사 불교수행법들이 확산되면서 '인가해 줄 선사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간화선 위기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당사자인 선방 이력 30~50년의 선원장 이상의 구참 수좌들이 전통 선 중흥의 기치를 들고 처음으로 릴레이 대중 법회에 나섰다는 점에서 불교사적 의미도 갖는다. (02)732-2115

김재경 기자

### ■법문하는 스님들 (법회일정순)



**고우 스님**
현 각화사 태백선원장. 은사는 법희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역임. 법랍 46년.



**무여 스님**
현 축서사 주지. 상원사에서 희섭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등 전국 선원에서 20여년간 안거. 법랍 46년.



**대원 스님**
현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1957년 고암스님을 은사로 남장사에서 출가.



**함주 스님**
현 법주사 총지선원장. 현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은사는 금오스님이며 본사는 법주사. 법랍 44년.



**현산 스님**
현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은사는 화엄사 조실 도천스님이며 법랍 42년.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1960년 수덕사 원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덕사 주지 역임. 법랍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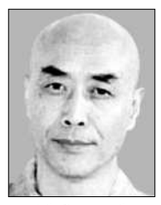
**영진 스님**
초대 기초선원장 역임. 은사는 금산사 도영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법랍 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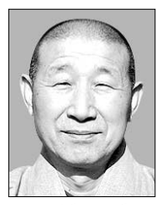
**지환 스님**
현 기본선원장. 1969년 범어사에서 고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2년 석암스님으로부터 비구계 수지.



**혜국 스님**
현 제주 남국선원장. 현 선원장회의 회장. 1961년 해인사 일타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랍 42년.



**현웅 스님**
현 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 20세에 구산스님의 제자로 출가. 1986년 시애틀 돈오선원 창건. 법랍 38년.



**도현 스님**
현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은사는 지난해 입적한 덕명스님이며 본사는 범어사. 법랍 39년.



**설정 스님**
현 수덕사 수좌. 1955년 원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61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법랍 49년.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4기생을 모집함

| | |
|---|---|
| 불교학과 | 근본불교·대승불교·화엄사상·인도불교·중국불교·한국불교·불교개론·불교미술·선종사상·밀교·포교방법론 등 18과목 |
| 한문학과 | 한문법(1)·한문법(2)·장자·주역·논어·금강경·법화경·화엄경·선가귀감 |
| 불교미술학과 | ① 불화1(단청), ② 선화(달마도) ③ 불화 2, ④ 불화 3(이론과 실기) |
| 다도학과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제다학(1)(2)(3)·한국의헌다례·다와정신 |
| 문예창작학과 | 문학의 이해, 문예사조사, 불교문학, 문예작품감상, 미학, 불교이해, 장르별 창작 실기, 불교사상사 |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 및 접수 |
|---|---|---|---|
| 불교학과 200명 (정규,주간,통신반) 다도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문예창작학과(30명) | 불교를 적극 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불교학과 ·2004년 2월 6일 입학금 200,000원 |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고 |
|---|---|---|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문예창작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불교미술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

2004년 2월 7일(토요일)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서울 : 보련각(조계사 앞) 02)733-0333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불교문예창작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2시개강

| | |
|---|---|
| 과목 | ·문학의 이해 ·미학①(동양미학) ·미학②(서양미학) ·문예사조사 ·불교학 이해 ·불교사상사 ·불교문학 ·장르별 창작실기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문예작품감상 ·작품창작지도 |
| 지도교수 | ·김영무(극작가, 희곡작가협회 부회장) ·신세훈(시인, 한국문협 이사장) ·김홍우(동국대 예술대 학장) ·박진서(수필가,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백시종(소설가, 한국문협 이사) ·채상우(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출강) ·신상성(소설가, 용인대 교수) ·무진장스님(동산불교대학장) |

불교한문학과 (3년과정) 정규반,통신반 2004년 3월 4일(목) 오후7시개강

| | |
|---|---|
| 과목 | ·한문법 (1) 한문법(2) ·신심명, 육조단경 ·명심보감, 장자, 주역, 논어 ·능엄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
| 지도교수 | ·김형중 (동대부고 교법사) ·심재동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송찬우교수(승가대), 무진장스님, 김병조 교수 |

다도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9일(화) 오후2시개강

| | |
|---|---|
| 과목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3) ·한국의헌다례 ·다와정신 ·다구학 ·차와선 ·차도문헌 ·차식물학 ·차성분학 ·차품평학 ·차시장학 ·사찰다도법 |
| 지도교수 | ·이귀례 교당선생임 / 선혜스님 / 박희준교수 |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2시개강

| | |
|---|---|
| 이론 실기 | ·단청이론, 실기 ·기초 선긋기 ·불화이론, 실기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그리기 ·사불이론, 실기 |
| 지도교수 | ·윤열수교수(문화재전문위원) ·법인스님(한국사불수행연구회 원장)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

| 과목 | 요일 | 개설경전 | 교수 | 비고(개설과목) |
|---|---|---|---|---|
| 불교학과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전전) | 법화경(3) | 박종 | 법화경(1)(2)(3)(4), 화엄경(1)(2) |
|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팔리원전) | 팔천송 반야경 | 김형준 | 팔천송반야경(1)(2) |
| 능엄경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능엄경 보경소(4) | 송찬우 | 능엄경(1)(2)(3)(4)(5)(6) |
| 근본불교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4시 | 근본불교 (수행론 구차제정) | 최봉수 | 근본불교(1)(2)(3) - (6)(7)(8)(9) 금강경 법화경 |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강의일시 및 장소 |
|---|---|---|---|
|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 2004년 2월 1일~ 2004년 3월 6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3.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4년 3월 8일(월) 오후 7시 ●근본불교학과 : 2004년 3월 4일(목) 오후 4시 ●능엄경학과 :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 새만금 공사 재개 법원 1심 결정 뒤집어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월 29일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국책사업이 유보될 뿐 아니라 다량의 방조제 토석이 유실되고 유실방지 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방조제 붕괴가능성까지 있어 오히려 공사중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 삼보일배 지지 성명 통영환경연합

통영환경운동연합이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삼보일배 하고 있는 환경 스님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1월 26일 발표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통영시는 지금이라도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취하하는 것이 미륵산의 안녕과, 통영의 경제를 생각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에 대해서도 "통영의 큰 산 미륵산을 지킬 책무가 있는 용화사 주지는 뒤에서 미륵산을 개발해 달라는 청원을 내서 수많은 통영시민들과 불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주지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남동우 기자

## 북한산 관통저지 연석회의 공사현장 모니터링 집중

북한산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월 27일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후 국립공원 제도 개선과 공사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도로정책과 관련해서는 도로포럼과 협력해 정책 제안을 내오기로 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면담 추진과 정부의 북한산 관통 결정에 대한 연석회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 동국대 스승은 "기회 닿으면 떠나고 싶다" 제자는 "위상 낮아 소외감 크다"

### 교수 · 불교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교수 절반 "보수 더 주면 옮기겠다"

'기회만 닿는다면 동대를 떠나고 싶다.'

동국대 교수 5명 중 4명은 현재의 보수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이 때문에 타 대학 혹은 직종으로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염준근 교수, 통계학과)가 교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3~12일 서울과 경주 캠퍼스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0명(전체 교수는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불만족 40.5%, 매우 불만족 37.1%)가 현재 보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절반이 넘는 교수(51.1%)가 다른 대학이나 직종으로 옮길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수진 허리에 해당하는 조교수 · 부교수의 경우 60% 이상이 이 같이 응답했다.

이번엔 질문을 바꿔 다른 대학에서 보다 나은 보수를 제시한다면 옮겨가겠느냐고 묻자 53.9%가 떠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 질문과 마찬가지로 조교수(58.3%) · 부교수(66.1%) 중 이렇게 답한 사람이 교수(45.3%), 전임강사(36.4%)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았다.

교수회장 염준근 교수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하나 최근 들어 우수한 교수들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연구 환경 등의 문제로 경쟁대학으로 옮겨가는 등 대학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부는 아니지만 이직의 제일 큰 원인은 보수"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지난해 전임강사를 뽑는데 3명밖에 지원 안 해 적당한 사람이 없어 안 뽑은 경우가 있다"며 "교수 지원율이 낮고 학교를 옮기려 한다는 것은 학교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불교대 학생 95% "커리큘럼 변해야"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취임하면서 불교생태학을 특성화시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학이야말로 동국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문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나 막상 불교대학 학생들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가 불교대 학생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불교대학 수업과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교대 학생 10명 중 7명(71.1%)이 동국대 내에서 불교대학의 위상이 낮거나(62.7%) 매우 낮다(8.4%)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교대학 학생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어 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도 절반(45.5%)에 가까웠다.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의 정체성 위기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문제다. 재학생 200여 명(스님 학생 제외) 중 61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발간된 <석림> 제37집에 일부 내용이 실렸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47.8%가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처하게 된 가장 큰 고민으로 진로 문제를 들었다. 다른 단과대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불교대를 졸업한 학생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3명 중 1명이 넘었다(매우 그렇다 8.4%, 그렇다 28.9%). 불리한 이유로는 각광받지 못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라는 응답(19.3%)이 가장 높았고, 자신의 노력부족(10.8%)과 학교의 무관심(9.6%)이 비슷하게 나왔다.

불교대의 커리큘럼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학생이 응답자의 95.1%(아주 그렇다 40.2%, 그렇다 54.9%)에 달했는데, 2명 중 1명(48.1%)이 현 사회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불교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학생들은 커리큘럼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권형진 기자

### 동국학원 새 이사장 현해 스님

## 풀어야 할 과제 많다

현해 스님이 1월 27일 동국학원 새 이사장에 추대됐지만 앞으로의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당장 풀어야 할 현안들이 도처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우선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교계의 '뜨거운 감자'인 일산 불교종합병원 개원 문제다. 당초 2002년 안에 개원하려고 했던 불교병원은 2003년 6월, 2005년 3월로 개원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학교 신인도 하락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만큼 병원 개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고, 홍기삼 총장도 "경영 컨설팅 결과 2008년부터는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 개원을 위한 정관 개정은 1년 넘게 이사회를 통과 못해 개원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일산병원 개원 연기**
**불교대 위기론 대두 등**
**지혜롭게 풀어야**

'전멸'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론이 고착화된 불교대학도 비껴갈 수 없는 화두다. 1996년 '대학원 중심 대학' 선언 이후에도 대학원 전담 교수 한 명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진로 고민과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은 학부 · 대학원생 모두에게 쌓여 있다. 동국대가 세계적인 불교학 연구의 중심 대학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현재 5명뿐인 불교문화연구원의 확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2006년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이후 10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새 이사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대학의 특성화, 대내 · 외적인 재정확보 노력, 연구풍토 및 학풍 쇄신, 종단과 재단 · 학교 간 신뢰 회복 등을 함께 풀지 않고서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지관 스님과 현해 스님 중 누구를 추대할 것인가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토론 벌인 이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권형진 기자



총무부 직원들이 새청사(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삿짐을 풀며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조계종 새 청사 이전

조계종 총무원이 1월29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새 청사 입주를 마무리하고 2월 16일 경 입주식을 갖는다.

1월 27일에는 총무부, 재무부, 호법부, 종회사무처가 현 총무원 청사에서 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사를 마무리했고, 28일에는 기획실, 사회부, 문화부 등이 입주했다. 그리고 29일에는 이사짐 정리를 마무리하고 30일부터 새 청사에서 종무행정에 들어갔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9일 새 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며, 교육원은 별관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쯤 입주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 미결수 종교활동 허용 촉구

### 국가 인권위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 허가를 1월 27일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불자 문모 씨(30)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도소내 종교교육 및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전교도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 △기결수형자에 반해 미결수용자는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며 △행형법상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분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집회 참가를 위해 구금시설 내에서 미결수용자 다수가 회동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 · 공범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설 및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의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남동우 기자

## "문화재관람료 돌려줘라" 금당사신도 탑사에 승소

진안 금당사(주지 성호) 신도들이 문화재관람료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며 진안 탑사(주지 왕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월 29일 이모 씨 등 2명이 진안 탑사측에서 징수한 관람료 600원이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항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600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찰의 문화재인 석탑을 관람할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석탑의 관람에 대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서 관람료를 징수한 사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원고 이씨 등 금당사 신도들은 2001년 10월 14일 금당사만 들렀지 탑사측 소유 석탑은 보지 않았다고 같은해 11월에 소를 제기했다.


밝은 청정 맑은 햇살로 빚은
금강경 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석비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1말 6kg
■ 청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청국장

메주 주문 연락처 H·P :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부산 051)514-3566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대전 042)862-8638
창원 055)299-5419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광주 062)681-3268
강릉 033)644-9009
복식품



제9회 선우논강 안내

"초기불교의 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

선우논강은 부처님 유언에 따라 법을 토론하고 탁마하는 공부모임입니다.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불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수행,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의 마당입니다. 선우논강은 1년에 2차례 해제 후에 열리게 됩니다.

제9회 선우논강의 주제는 "초기불교의 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입니다.

현대 한국불교 교단 내에서 이부중의 문제, 즉 비구, 비구니의 위상과 관계는 많은 문제와 혼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조류와 기존의 계율, 승가의식상의 괴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9회 선우논강에서는 이 문제를 초기불교의 현장으로 돌아가 살펴보고 오늘날 바람직한 이부중의 관계를 정립해보고자 합니다.

제방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2월 16일(월) 저녁 6시 ~ 10시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 초기불교의 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

● 기조강연 : 도법(실상사)
● 발 제 :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 논 평 자 : 혜능(해인사 율원장), 진오(구미 대둔사 주지)
●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참 가 비 : 2만원
● 준 비 물 : 대가사
● 문 의 : 선우논강 사무실 (02-3676-4060), 실상사 (063-636-3031)

■ 선우논강 후원계좌 :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장영기)
※ 제9회 논강 발제문 및 논평문은 인터넷 다음카페 '선우논강' (http://cafe.daum.net/nonkang) 자료실에 있습니다.

선우논강 대중일동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철오



# ‘오감’으로 전하는 진리의 향기

‘문화’ 하면 왠지 비구니 스님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속가처럼 남녀의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 미술, 방송, 사찰음식, 꽃꽂이 등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포교현장을 누비기엔 비구니 스님들이 감성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다. 실제로 문화 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포교에 열중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불교예술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비구니 스님들이 문화포교의 현장에서 동분서주하기에, 문화의 시대인 21세기 불교계는 결코 두렵지 않다.

**문화현장 속의 비구니 스님들**




**방송**

“미 도미 레도 시도 파파파, 미도 미 레도시도 레레레 ♬” 시그널 음악이 흐르고 곧이어 약간은 걸쭉하지만 차분한 음성이 뒤를 잇는다. “안녕하세요 진명입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시길 바라면서…”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클래식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 방송포교사 **진명 스님**. 8년 이상의 MC 경력자답게 이제는 전국 산사음악회의 단골 진행자로 손꼽힌다. 진명 스님의 출가이야기가 들어 있는 <출가>란 책에 보면 ‘출가를 극구 말렸던 스님의 아버지가 출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를 타고 스님을 보러 절에 왔다가 누더기 승복을 입은 딸을 보고 산을 황망히 내려 갔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는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다.

불교방송에서 7년째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 **도현 스님**(서울 상도동 정혜사 주지)도 방송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자와 후원금을 연결해 주는 등대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스님은 4년전 군법당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인 ‘군불사 디딤회’도 조직해 군포교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음식 연구도 또 하나의 수행”

**사찰음식**

‘건강’이 현대인들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자극적인 오신채를 쓰지 않는 담백한 맛의 ‘사찰음식’이 부상하고 있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 20여년 이상을 사찰음식 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은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음식을 연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수행’이라는 생각에서 음식 포교를 시작했다. 1995년 불교TV ‘푸른 맛 푸른 요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음식을 선보인 이후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스님은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2000년)이라는 사찰요리책을 펴냈고, 몇 차례의 전시회도 열었다. 또한 수원에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을 열어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홍승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도 사찰음식 전문가다. 스님의 음식 키워드는 ‘퓨전 사찰음식’. 지난해 펴낸 <녹차와 채식>에서는 녹차와 사찰음식을 결합해 녹차의 효능과 색다른 맛을 한껏 살린 건강 사찰음식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 국내 첫 비구니 범패승

**음악**

1975년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 송암스님이 보유자가 되면서 그 문하에서 영산재 의식절차를 전수받은 **동희 스님**(정릉 자인사 주지)이 이수자후보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 때 비구니는 계보에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수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년이나 지난 1995년 비로소 영산재 이수자가 됨으로써 동희 스님은 우리나라 첫 비구니 범패승으로서의 계보를 세우게 되었다. 스님은 1970년 초부터 스님들을 비롯하여 일반 대중을 위해서도 범패를 가르쳐 왔으며, 현재는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교수로,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그리고 예술종합대학과 운문승가대학에서 범패와 작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국대 경주캠퍼스 강사인 **현수 스님**과 **현준 스님**이 영산재 이수자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노래하는 비구니 1호’로 기록되는 **범조 스님**(서울 법천사 주지)은 1982년 첫 찬불가 CD집을 냈다.

또 산사음악회 섭외 1순위인 산사의 소프라노 **정율 스님**. 스님은 찬불가로 불음을 전하는 ‘음성포교사’다. 격주에 한 번씩 불교 TV에서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찬불가 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문사 승가대학과 대구 동명사 등에서도 불교음악 특강을 열고 있다. 16년 동안 음성포교에 매진해 온 정율 스님은 지난해 발표한 앨범의 제목 ‘노래로 하는 기도’처럼, 불자들이 기도하며 부르는 노래, 부르는 대로 곧 기도가 되는 노래를 위해 오늘도 목청을 돋운다.

### “수행과 불화그리기는 하나”

**미술**

배낭 하나 달랑메고 떠났던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10년만에 돌아와 지난해 불화전을 연 **귀산 스님**.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우선 방문에 글씨를 써 붙였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선정에 들었다. 탱화를 그린 후 다람살라 왕궁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점안식에도 참여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자 ‘수행과 불화 그리기는 하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0년이 흘렀다. 지난해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칼라챠크라 만다라’, ‘석채’와 ‘분채’를 번갈아 사용한 ‘바르도의 오 여래’ ‘4비관세음보살’ 등 40여점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수증 스님**(금화사 주지)은 연꽃이 갖는 의미를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어 15년 동안 연꽃 그리기에 매진해 왔다. 진흙속에 피어난 연꽃을 보며 수행의 거울로 삼는다는 수증스님은 한지에 수묵담채를 이용해 연꽃을 표현한다. 스님은 그동안 5백여명에게 연꽃 그림을 보시해 왔다.

경기도 이천의 토굴에서 수행하며 작품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선도예가 **보광 스님**. 도자기에 달마선사의 다양한 모습과 산사의 풍경을 새겨 넣는다.

### 세계 각국 돌며 꽃꽂이 연구

**꽃꽂이**

불교꽃꽂이계의 개척자. 지연 · 정명 · 보명 스님에게 붙어 다니는 수식어다. 꽃꽂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했던 70~80년대 당시 이 세 스님들은 꽃꽂이를 연구 · 응용하며 패션과 연꽃등과 같은 다른 장르와도 새로운 접목을 시도 했다.

**지연 스님**(보림 꽃예술증앙회 회장)은 꽃과의 인연을 이렇게 회상한다. “일찍이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꽃과 나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위를 들고 자르는 시늉을 냈을 정도니까요.”

**정명 스님**(연화플라워 회장)도 동네 약국에 놓인 꽃꽂이를 보고 당장 꽃을 사서 따라해 보는 열의를 보였다.

**보명 스님**(연화꽃꽂이연합회 회장) 역시 부처님 앞에 마구잡이로 놓여지는 꽃이 죄스러워 전문 꽃꽂이 교육을 받았다.

이 세 스님은 불교꽃꽂이 문화가 융성한 일본 등지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꽃꽂이의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특히 정명 스님은 호주 · 네덜란드 · 프랑스 등 화훼산업이 발달한 유럽을 순례하며 동 · 서양의 꽃꽂이 문화를 접목시키는데 열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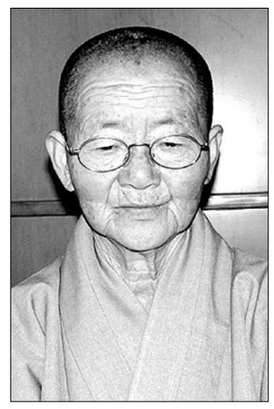
후학 양성이 시급하다는 보명 스님의 말처럼 불교꽃꽂이는 마땅히 배울 곳도 배울 스승도 흔치 않은 게 사실. 그래서 이들 스님들은 불교계 방송을 비롯한 삼선승가대학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주일 · 김은경 기자

---

한국의 비구니 스님 <4> 혜해 스님

## 60년 동안 참선수행 한길



“많이 배우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나는 늙어서 나이만 먹었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경주 사정동 흥륜사 흥륜선원장 혜해 스님(세수 84세, 법랍 60세). 1944년에 입산해서 지금까지 60평생을 오직 선방에서 참선수행으로 일관해 오셨다. 자그마한 체구에 인자함과 눈 푸른 납자의 당당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그래도 한사코 말씀을 청하자 어렵게 수행의 삶을 풀어내 보이신다.

스님은 1921년 평안북도 동주군 안흥면의 한 시골마을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봐도 모든 것이 슬펐다는 스님은 끊임없이 금강산으로 가야겠다는 내면의 외침이 있었다. 19세 때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출가의 마음을 세우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24세에 입산했다.

### 흥륜사를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정착

### 시봉없는 ‘84세’ 옷 한벌로 생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 채 무작정 인연 따라 찾아간 곳이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이다. 임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후 1년 만에 해방을 맞고, 해인사 국일암, 동화사 양진암 등 전국 선방을 두루 다니며 참선 수행하다가 71년 이차돈 순교지인 지금의 흥륜사로 들어와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정착시켰다.

스님이 처음 금강산을 찾을 때는 ‘사명대사의 신통’이나 알았을 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몰랐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참선수행하시는 법안 스님, 곽보봉 스님, 선경산 스님 등을 보고 ‘내가 나를 찾아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깊이 느끼고 참선수행을 하게 됐다. 해방 후 남으로 내려와 무불스님을 계사로 오계를 수지하고,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향곡스님께 받은 화두를 가지고 오로지 일념으로 참구해 왔다.

“이 법 만난 게 얼마나 좋은지…,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잖아요. 어렵게 만났어요.”

어렵게 만났으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난 뭐를 먹든 뭐를 입든 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이 너무 좋을 뿐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3번 공양 외엔 참선정진하지요.” 스님은 그저 일상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 뭔지 모를 묵직한 힘이 느껴진다.

흥륜선원에는 26명의 스님이 수행중이다. 절이 경주시내에 있다보니 산중 선방과 달리 자동차 소리며 사이렌 소리 등 세간의 소리가 간간히 흘러들어온다. 그럼에도 매년 선방에는 공부하려는 수좌들이 몰려와 줄을 선다.

이번에도 22명이 들어가면 적당할 방에 26명의 스님들이 수행정진중이다.

“스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그 연세에 절대 시자의 시봉 하나 안받고 뭐든 혼자 다 하십니다. 작년까지 누더기 한 벌만 입고 계셨지요. 우리가 추워하니 불을 때지 방에 불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상좌스님이 어른스님에 대해 슬쩍 귀띔해 줬다.

어린 시절 오로지 금강산에 들고 싶었던 혜해스님. 어느덧 금강산의 모습으로 모든 선객을 품고 계셨다.

경주=배지선 기자


## 「천문역학 六壬」誌 창간 기념 할인판매 안내

(2월 4일 부터 - 2월 20일 까지 15일간)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는 금번 당국의 허가를 얻어 **「천문역학 六壬」**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어 오는 2월 20일 3월 창간호가 전국에 배포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래의 **육임서를 한시적으로 30%할인 판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종전가격으로 환원됩니다.

| 할인도서 품목 | 종전가격 | 한시 할인 가격 |
|---|---|---|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 2,500,000 | 1,750,000 |
|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 1,300,000 | 910,000 |
|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휴대용 | 1,500,000 | 1,050,000 |
| ■ 육임래정비법 | 350,000 | 240,000 |
| ■ 육임래정법 휴대용 | 310,000 | 220,000 |
| ■ 효사 육임 강의록 | 410,000 | 287,000 |
| ■ 효사 육임강의 비디오 CD | 900,000 | 630,000 |
| ■ 육임 신수비결 | 300,000 | 210,000 |
| ■ 오행제례의식집 | 150,000 | 105,000 |
| ■ 태아길일길시선택분만비법 | 74,000 | 51,000 |
| ■ 육임지두생활비법 | 15,000 | 10,500 |
| ■ 육임비요형이상법 | 150,000 | 10,500 |
| ■ 육임운명판단법 | 130,000 | 91,000 |
| ■ 육임세밀정단법 | 100,000 | 70,000 |

●문 의 : 02-993-8680(담당 정주연)
●입 금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배 본 : 입금후 다음날 도착시켜 드립니다.

## 전국 「육임학당」 수강 접수안내

본회는 2월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홀 에서 육임학당전국수료식을 거행하여 각 지역에서 육임을 공부하신 분들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는 2월부터 다시 학당을 여니 아래 일정에 맞춰 등록해 주십시오

| | | |
|---|---|---|
| 육임학당 「전주숙」 | 2월 8일(日) | 063-284-7714 |
| 육임학당 「광주숙」 | 2월 9일(月) | 062-224-8680 |
| 육임학당 「진주숙」 | 2월 10일(火) | 055-755-1644 |
| 육임학당 「부산숙」 | 2월 11일(水) | 051-756-0141 |
| 육임학당 「대구숙」 | 2월 12일(木) | 053-624-8680 |
| 육임학당 「효사숙」 | 3월 13일(金) | 02-993-8680 |
| 육임학당 「강남숙」 | 2월 14일(土) | 02-525-3039 |
| (이곳 강남숙에서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 |

■등록비 1백5십만원
■교 재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서) 下(활용서)드림
■마 감 2004년 2월 7일까지 등록 요망
■강 사 고복자 효사
■기 간 3개월 13주 52시간

●문 의 : 위 각 학당 전화로 문의 하십시오.
●입 금 : 우리은행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공 익 법 인 한 국 육 임 학 회

# 프랑스의 지성, 산사체험 '예약'

## 역사학자 80명, 4월 해인사서 템플스테이
## 문화 홍보에 효과적 프로그램 증거
## 관광공사, 외국 대상으로 마케팅 확대

템플스테이 열풍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불 조짐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80명이 해인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한국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체험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는 프랑스의 역사학 교수 및 교사들의 단체인 경제사학회(ADHE) 회원 80명이 4월 21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4월 23~24일 해인사에서 1박2일 일정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1월 27일 알려왔다.

경부고속철도 부분 개통을 맞아 한국을 찾는 이들 역사학자들은 해인사에서 발우공양, 다도, 참선, 새벽예불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몸으로 느끼게 된다.

파리지사 박재석 차장은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수행전통과 불교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라며 "산사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8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해인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프랑스 역사학자들의 해인사 템플스테이는 해외에서 템플스테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지사는 앞으로 지사에서 개발하는 모든 관광 상품에 템플스테이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템플스테이야말로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관심도 높은 편"이라며 "템플스테이 전담 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불교계에서 템플스테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본부 구미팀 김배호 과장은 "미국이나 유럽지역의 경우 '템플스테이'와 '참선'에 맞춰 올해의 해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까지 템플스테이의 주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었다면 앞으로는 해외 현지의 외국인들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방한하는 역사학자들은 해인사 템플스테이 참가 외에도 불국사와 석굴암, 통도사, 범어사, 수원 화성, 경복궁, 판문점 등을 방문하고, 고려대와 아주대, 경북대 등에서 한-불 역사학자들간 공동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佛敎연극, 중국에서 막올린다

부산의 극단 '하늘개인날(대표 곽종필)'이 이 지역 극단으로서는 최초로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 불교연극을 선보인다.

극단 하늘개인날 곽종필 대표, 정허 스님, 권철씨 등은 국가화극원 초청으로 지난 해 말 중국을 방문, 연 1회 이상의 교환 방문공연과 인력양성교류, 연극정보 교환 등의 내용을 담은 교류의 향서를 체결했다.


극단 '하늘 개인날' 곽종필 대표(오른쪽)가 중국 국가화극원 조유량과 만나 문화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 부산의 극단 '하늘 개인날' '느낌, 극락같은' 공연

불교 연극 <느낌, 극락같은>은 교류의향서의 첫 이행으로 중국 관객을 만나기 위해 현재 무대 장치, 음악 등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극단 하늘개인날은 불교적, 한국적 색채가 강한 연극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느낌, 극락같은> <이> 등으로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극단이다. 또한 중국 정부 산하의 예술기관인 국가화극원은 원장이 중국의 장관급에 해당 될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 이런 기관에서 지방의 극단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교류 체결은 하늘개인날 곽종필 대표가 99년 국비로 중국 연수를 가면서부터 인연이 돼 하늘개인날 前대표였던 정허 스님과 곽대표가 국가화극원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끝에 4년 만에 어렵게 결실을 맺었다.

이번 교류 체결로 국가화극원은 올 상반기쯤 원폭피해의 잔혹성과 평화를 주제로 하는 연극을 부산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되며 하늘개인날은 10월 베이징에서 <느낌, 극락같은>(이강백 작, 곽종필 연출)을 공연할 예정이다. <느낌, 극락같은>은 지난 1999년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을 받았고 불교적이고 한국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중국에서 공연을 요청한 작품이다.

하늘개인날 대표 곽종필 씨는 "해외 유수 극단들과 교류하고 연극작업을 함께 하면서 작품 수준을 다양화하고 우리나라 우수 연극 작품들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대불청 부산지구, 환경지킴이 나서

## 제 38차 정기 총회에서 '환경특별분과' 설치 의결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에 환경을 전담하는 '환경특별분과'가 설치돼 부산 청년불자들의 환경운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는 1월 26일 대각사 불교청년회관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불청 부산지구 산하에 환경특별분과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도 결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올해 주요 행사계획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황국근 회장은 "불교적인 생명 사상을 근간으로 청년불자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환경특별분과를 설치한다"며 "향후 청년불자들이 주축이 되어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환경 수호 운동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특별분과는 빠르면 2월중에 설치되며 회원들 자체 교육, 답사 등을 통한 환경 의식 고취는 물론 사찰 환경,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한편 대불청 부산지구는 2월 10일쯤 임시총회를 개최,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임원단을 구성하고 200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 18년 만에 병원 찾아 치료비 갚아
### 미안함에 매년 30만원 장학금 전달

병원에 입원한 아들의 치료비가 없어 달아났던 40대 어머니가 18년 만에 치료비를 갚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 윤모씨(46. 사천시)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 경남 진주시 주약동 소재 제일병원(병원장 정회교)을 찾아 밀린 치료비 21만원을 접수했다. 윤모씨는 86년 4살이던 아들의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몰래 달아났다. 그러나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윤씨는 최근 한 사찰을 찾아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병원비를 갚으라는 한 스님의 말에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윤씨는 미안한 마음을 갚기 위해 이제부터 매년 30만원의 장학금을 병원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의 사정이야기를 들은 병원측은 윤씨 아들의 병원 진료카드는 이미 폐기처분된 상태라며, 21만원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윤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 청년 불자 박원구 씨를 도웁시다

## 2억여원의 수술비 마련 못해


급성 간부전증으로 간을 이식받은 박원구 씨.

급성간부전증 수술비와 치료에 필요한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불교방송 '박원구 기자 돕기운동'이 불교계에 확산되고 있다.

대구불교방송, 동화사, 은해사,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대구광역시신도회 등 지역불교 단체들이 1월 29일 대구불교방송국에서 모임을 갖고 대대적인 모금운동에 나섰다. 대구경북지역불교계를 주축으로 결성된 '박원구 불자돕기 모임'은 3월말까지 사찰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불교기자협회 또한 15개 회원사들과 함께 박원구 기자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학생회를 거쳐 93년 대불련 대구경북지부장, 민족평화통일불교협회 간사,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대구불교방송 기자로 활동하던 박원구 씨는 급성 간부전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1월 16일 사촌동생 박성구씨와 부인 홍안순 씨의 간을 이식 받고 회복중이다. 그러나 2억이 넘는 수술비와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월 15일 개설한 카페에는 박원구 씨에 대한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현재 카페 회원들은 인연 닿은 사찰이나 스님들을 통해 오프라인상의 모금도 함께 벌이고 있다.(박원구씨 돕기 계좌-대구은행: 014-08-031387-9 / 예금주: 박원구) 후원문의:한국불교기자협회 016-292-1987

**배지선 기자**

### 대구사원주지련 5일 방생법회
### '한해 풍요와 평안' 발원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정월대보름인 2월 5일 오후4시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지역불교 연합행사인 대규모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방생법회는 보광원 조실 화산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등 지역 사찰의 스님과 신도 만 여명이 참석해 생명 존중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한해의 풍요와 평안을 발원한다.

1부 법요식과 2부 달맞이 방생의식의 순으로 진행되는 이날 법회에서는 해변에 설치한 대형 달집에 불을 사르는 민속놀이도 열린다.

한편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지난 1월 25일 원명 스님(조계종원로회의 부의장)을 비롯, 신도 100여명과 함께 남구 대명동 불교대구회관5층에서 갑신년 신년 교례회를 봉행했다. (053)629-9500

**배지선 기자**

# 한국 불교무용 대만무대 선다


관세음보살의 화현을 주제로 한 불교무용 '화현'.

### 채향순 가무단 초청
### '화현' 등 바라춤 선보여

대만의 가장 큰 행사중 하나인 원소절 행사에서 불교무용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춤이 선보여진다. 2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시 신판교차창역앞 특별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채향순 중앙가무단의 공연이 바로 그것. 이번 행사에서 중앙 가무단은 바라와 승무 등 불교무용과 제천무, 판굿, 장고춤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이번 작품 중 특히 불교무용인 '화현'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바라춤사위에 실어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을 표현하고 세계인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번에 중앙가무단이 초청된 원소절 행사는 정월 대보름 연등제 행사로써 음역 정월 15일에 열리며 '등절(燈節)' 또는 '등석(燈夕)'이라고도 불리는 대만의 대표적 축제. 해마다 전세계에 실력있는 무용단을 초청해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올해는 일본의 요사코이 퍼레이드단, 말레이시아의 국립예술단, 몽고전통예술단, 중국문화대학교 공연단 등을 불러 들였다.

채향순 중앙대 국악대학 타악연희과 교수는 "중앙 가무단은 순수하게 중앙대 타악연희과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며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예술을 펼쳐 보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031)670-4727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www.samhwade.com

# 중국 남경한의과대학 2004년 특차 모집
(마지막회)

| 학과 | 학재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남경중의약대 | 5년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br>• 건강진단서 1통(영문) 유학용<br>•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br>•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br>• 여권용사진 10매 |
| 석.박사 과정 | 3년 | |
| 효장 사범대 | 4년 1~3학년 편입가능 | |

1. 주지스님 추천자 또는 지도교사 및 담임추천, 고등학교졸업자
2. 효장대는 전학과 신입 및 3학년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 수 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삼화불교대)

○ 중국 의과대학, 남경중의대, 남경효장 사범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deu.cn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Tel. 86.25.6322539 / Fax. 86.25.5320825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 2027, 1080
Fax. 02)511-2028



중국남경의과대학 · 중의대학

스노우보드 불자스타 육성

# 불교계가 나섰다

## 20여 스님 '달마배 대회'로 훈련비 지원
## 3일 지산 리조트서 개최, 해외프로 시범

자신과의 싸움이 반복되는 극한 스포츠(Extrem sports)인 스노우보드(Snowboard). 스노우보드 경기는 동계올림픽의 꽃이지만 국내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선수 층도 얇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올림픽 종목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스노우보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꿈나무 불자선수 발굴을 위한 스노우보드 대회가 강원 · 경기 북부 지역 사찰들의 지원으로 개최된다.

2월 3일 오전 8시30분부터 국제적인 규모와 최신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열리는 달마배 오픈 스노우보드 챔피언십 대회에는 하프파이프(Halfpipe)부문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 대부분인 1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입상선수 17명에게 총 1천여만원의 훈련보조금이 지급되는 달마배 스노우보드대회에서는 해외 프로선수인 일본인 유지로씨를 초청해 시범시간도 갖는다.

달마배 오픈 스노우보드 챔피언십 대회는 양평 상원사 주지 호산 스님이 기획하고 추진하자 뜻에 동감하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을 비롯 20여 스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대회 개최비용과 훈련지원비까지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실무를 맡고 있는 호산 스님은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불자 스노우보드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정기대회를 통한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저변 확대, 꿈나무 발굴 및 육성, 향후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보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원 건립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www.dalma-open.com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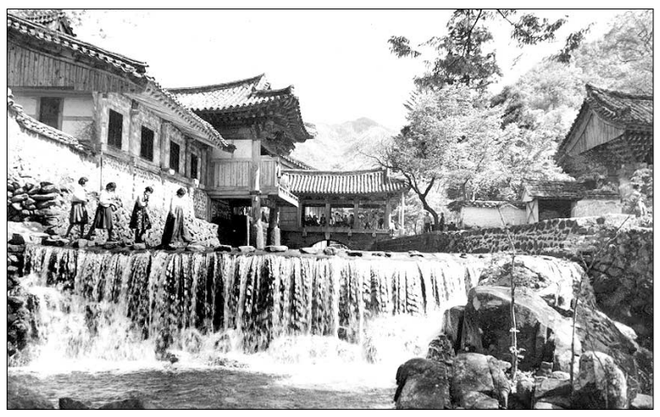


**▮스노우보드 란**

스노우보드는 한 개의 데크(판)와 폴로 구성돼 있다. 스키와 함께 겨울스포츠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는 스노우보드는 스피드 있는 활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중동작과 기술 등을 펼칠 수 있어 매년 동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스노우보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젊은층들만 즐겼으나 이제는 폭 넓은 연령층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인구비율이 6:4 정도로 성장했다.

동계올림픽 종목이지만 한국에는 선수가 100여명에 불과하다.

# 송광사 옛 모습을 찾습니다



1950년대 말의 송광사 임경당, 삼청각, 우화교 모습.

## 일반인 소장 사진 공모전 열어
## 가치있는 자료 CD제작 보급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영조)가 근,현대 사진을 통해 '사찰 생활사 찾기'에 나섰다.

송광사는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송광사 관련 사진을 대상으로 '송광사, 옛날사진 콘테스트'를 열기로 하고 1월 27일부터 사진공모에 들어갔다. 송광사 사진공모는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 사진작가, 관공서 등 개별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송광사 관련 사진들을 한자리에 모아 옛 사찰의 생활사를 한눈에 보고 사료로 영구 보관한다는 것.

이를 위해 송광사는 4월말까지 송광사관련 사진을 공모하고 5월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성보전시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국내 처음으로 사찰관련 사진을 공모하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잊혀져 가는 송광사 옛 생활사를 사진을 통해 찾아내고 가람의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개인사진은 물론 공개되지 않은 송광사관련 사진을 보내주면 많은 사람이 공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송광사 옛사진은 2000년 이전 송광사 관련 사진으로 사찰전경, 전각, 행사, 스님 등 모든 사진이며 4월 17일까지 우편 및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온라인 접수는 jpg,tif 파일로 가로 2400pixel이상)

송광사는 이번 사진공모전을 통해 여행이나 소풍와서 촬영한 개인 사진 가운데 사료가치가 있는 사진이 다수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광사는 사료가치가 높은 사진을 골라 5월 14일 시상하며 전시와 함께 사진도록, CD타이틀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 한마음선원 새해맞이 촛불재



한마음선원이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안양 본원을 비롯 부산, 광주 등 전국 15개 지원에서 갑신년 새해맞이 촛불재(사진)를 봉행했다. 촛불재는 부처님께 새해예불을 모시며,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한해 무사고 기원, 이웃에 대한 마음의 불씨를 촛불로 환히 밝히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은 법회에서 "마음의 불을 밝히라"고 법문했다.

김은경 기자

### 원주사암련 신년하례 법회




원주사암연합회(회장 원행)는 1월 16일 치악뷔페에서 가운데 조국통일 국태민안 사회안정 국민화합 원주발전기원 신년하례법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봉(광덕사 주지) 경혜(성문사 주지) 일휴(약수암 주지) 스님과 김기열 원주시장, 이강부 원주시의회 의장, 안정신 원주상공회의소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 "부처님 만나 마음 농사 지어요"

수원 봉녕사 원력화 보살

## 시어머니 개종 권유에도 염불전념
## 청소 · 김장 사찰 모든일 불심 가득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올해 60살이 된 원력화 보살(김명선)은 담담하게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속된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22살에 시집을 와 기독교인인 시어머니 밑에서 절에도 갈 수 없었다. 마음은 늘 부처님을 향했지만 원력화 보살의 발은 집과 논 · 밭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다. 시어머니가 원력화 보살을 개종시키고자 밤낮 교회에 나가고, 심지어 교회교인들을 집에 데려와 함께 구역예배를 볼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원력화 보살은 입에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놓지 않았다. 스님이었던 아버지의 영향때문이었을까?



"16살때였나. 아버지가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 사찰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갔지요. 스님이 되겠다고. 하지만 이렇듯 속세와 인연을 끊지는 못했네요."

그 사연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비록 스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원력화 보살에게 부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지탱해주던 힘이었고, 또한 인자한 아버지였다.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로 한 해 한 해를 보내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병원도 다녀보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몸은 조금도 나을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사찰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은 27살인 막내딸이 3살 되던 해, 나이 어린 시누이 소풍의 보호자로 따라갔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봉녕사다. 절에 가니 너무 좋았다. 법당 안에서 절을 올리는 것도,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는 것도 좋았다. 그때부터 기초교리도 배우며 본격적으로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인 시어머니를 부처님 품으로 이끌었다.

"벌써 25여년전 이야기네요. (웃음)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지라 여기 승가대에서 공부하는 학인스님들 싱싱한 음식 드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라구 채소 조금 가꾸는 것 밖에…."

말과는 달리 원력화 보살은 몸이 두개였다면 할 정도로 바쁘다. 사찰의 일이라면 궂은 일도 마다않고 두 팔을 걷고 나서기 때문이다. 청소며 김장, 농사 등 원력화 보살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다. 요즘은 손발의 관절염 때문에 물건조차 마음대로 집지 못하지만 그래도 발길만은 늘 부처님전을 향한다. 그리고 벌써부터 봄 농사 걱정이다.

"잘은 몰라요. 그냥 내가 싫은 일은 남들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한다는 것 밖에…" 수줍게 이야기하는 원력화 보살의 모습은 저절로 '보리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수원=김은경 기자



**추천의 말**

묘엄스님 봉녕사 승가대학장

## 학인스님들의 든든한 벗

원력화 보살은 '봉녕사의 농림부장관'입니다. 120명이 넘는 스님들을 위해 배추며 고추, 호박, 가지 등 온갖 채소를 정성껏 가꾸고 사찰의 어려운 일에는 언제나 앞장 서 돕습니다. 덕분에 봉녕사의 학인스님들은 마음 놓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지요.

원력화 보살은 상 내지 않고 행하시는, 신도들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또한 봉녕사의 역사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봉녕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살입니다.


釋經寺

대법회 비법 공개! 특강
- 부처님께 왜 절을 해야만 하는가?

◑ 첫째 :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절을 왜 하게 만들었는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열반(涅槃)과 해탈(解脫)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모든 중생들에게 절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 둘째 : 우리는 과연 부처님께 항상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만 내가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가?

◑ 셋째 :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과연 법신은 움직이는가?

◑ 넷째 : 기도와 회향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특별법회와 절 비법 특강을 합니다.

삼학불교대학 입학안내

1. 승려반 (2년과정 수시모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6시 ~ 9시)
- 강의내용
▶ 천도재, 49재, 점안, 바라춤, 경전, 태징, 북치는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상점안
1. 복청계
2. 천수바라
3. 도량계
4. 거불
5. 헌좌계
6. 다계
7. 향수나열
8. 사다라니바라
9. 가지계
10. 하청

※ 경전 및 의식문에 나오는 한문을 한자 한자 풀이하여 강의하므로 한문을 모르시는 분도 수강하시는 데 불편 없으시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釋經寺
三學 佛敎大學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산 2-2호
전화문의 : 032)462-7322, 463-1630, 469-8797, 011-322-1630
주지 최 해월 합장
• 오시는 길 : 동암역, 백운역 (간석3동 태화아파트 / 만수3동 벽산아파트 뒤)

(출강 · 통신)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양성을 위한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지도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섭화중생하며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충만한
법사(法師)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❶ 출강반 ❷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1부
• 사진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6. 교육장소 : ❶ 서울 본 대학 ❷ 부산 학습 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4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가능)
※ 전화문의 하시면 모집 요강과 원서를 보내 드립니다.

권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 품수와 법사법위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 "매일 오늘 같이 즐거울 수 있다면…"

## ▮ 상락원 80여 식구들의 놀이동산 나들이

### "나 예쁘지" … 나들이 준비 끝

밤잠을 설쳤다. 옷도 때 빼고 광나게 입었다. '젊은 아빠 · 엄마 ·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가서 신나게 노는 날이다. 상락원 앞뜰이 새벽부터 들떠있다.

1월 28일 장애아동 요양시설 상락원. 대형버스 2대가 벌써부터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다. 상락원의 5살 기남이부터 10살 승태, 자원봉사자, 지웅 스님 등 대식구 80여 명이 떠나는 '겨울 나들이'. 잔뜩 신들이 나있다. 24시간 갇혀 지내던 아이들이 기지개를 마음껏 켠다. 어제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도 전에 버려진 아이지만, 오늘만큼은 아니다.

'상락원 얼짱' 소정(8·정신지체1급)이가 한껏 뽐을 냈다. 웨이브 파마도 했고 나비 모양의 핀도 달았다. 자원봉사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V'자를 내어 보인다. 그리고는 어눌한 말로 "음, 나 예쁘지!"하고 피식 웃어댄다.

나들이 준비에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대식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다보니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기저귀는 기본, 구급약, 간식과 점심 도시락, 젖병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준비물에 담겨진다.

### 풍경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오전 10시 반, 드디어 세상 밖으로~. 아이들이 모두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눈을 부릅뜬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그림을 하나라도 놓지 않는 모습이 진지하다. 조는 아이도 눈에 띈다. 정신지체2급 용훈이(9). 이영록(20) 씨가 흔들어 깨운다. 그래도 눈이 감긴다. 졸린 눈을 비벼 떠도 연신 하품이다. 어젯밤 들뜬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

"용훈이는 제가 중3때부터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용훈이가 재작년에 심장수술을 받기 전날, 대뜸 '아빠' 하더라고요. 그 때서야 녀석이 마음을 열더군요."

3년 전, 용훈 이는 이 씨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 가족'이 됐다. 할머니와 엄마도 생겼다. 상락원에서 5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벌여온 이 씨의 어머니 김은옥(49 · 법명 대명화) 보살과 지현(22 · 대전대 02학번) 씨가 바로 그들이다.

'엄마 스님'도 함께 했다.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장 법등 스님과 지민이(6 · 정신지체1급). 이들은 지민 이가 생후 두 달이었을 때, 모녀지간의 인연을 맺었다. 지민을 본 첫 순간, 스님은 짠했단다.

"느낌이 남달랐어요. 녀석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민 이가 첫 돌이었을 때 큰 수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어미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 '홀로서기' 배우는 기회

왁자지껄.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상락원 아이들과 하루 동안 부모로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잠실벌 롯데월드에 도착하기까지 쉴새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이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고개 짓이 바쁘다. 제일 먼저 승태(10 · 정신지체2급)가 상락원 원장 지웅 스님의 손을 이끈다.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족족 만지고 말을 건넨다. 인기몰이를 한 것은 공중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번호버튼을 눌러댄다. 그리고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누구에게 걸려고 한 전화였을까.

"아이들이 혼자 있기를 제일 싫어해요. 매일 집에서만 지내다보니 바깥나들이를 한다고 말하면,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나요. 떼쓰고 울고, 밥까지 안 먹어요. 빨리 가자고."

이번 겨울 나들이 행사가 마련된 이유. 지웅 스님은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또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사회적응훈련의 기회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지하철 표도 끊어보고, 차례를 기다라며 줄도 서봐야 아이들이 앞으로 '홀로 서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웅 스님의 생각이다.

나들이 행사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기구 타는 시간.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6개조로 나눠, 놀이 시설로 흩어진다. 회전목마, 열기구, 접시 타기 등.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고려대 자원봉사모임 '참살이' 회장 박영목(20 · 03학번) 군이 기남(5 · 정신지체1급) 이를 업고 놀이 기구로 뛰어간다.



"아이들을 한번 보면 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같이 놀다 막상 헤어지면 눈에 밟히기까지 한다니까요. 절대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기쁨을 얻게 돼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풍물패 공연. 막대 사탕을 물고 있던 민경(9 · 정신지체1급) 이가 풍물패 중앙 무대를 점령하고, 소정 이가 노래를 부른다. '얼씨구~ 절씨구~'. 한 바탕 치러지는 공연에 자빠지고 엎어져도 좋다고 난리들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후 4시.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차에 다시 올랐다. 발갛게 상기된 아이들이 기쁨을 가누지 못하는듯 연신 소감들이 쏟아진다. 바라보는 '젊은 아빠 · 엄마'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진다. 돌아오는 길, 용훈 이가 김이 잔뜩 서린 창문에 무언가를 썼다 지운다.

무엇을 썼을까. 옆에 앉은 이영록 씨에게 말을 건넨다. "아빠!"

글= 김철우 · 사진= 박재완 기자



**상락원은?**

장애아동 86명의 보금자리 상락원.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이 지난 98년 기원학사를 리모델링해 문을 연 장애아동요양시설이다. 대부분 연고가 없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지체, 뇌병변 등의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 현재 후원자 및 일반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따뜻한 인연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기저귀, 생활필수품 등이 늘 부족하다.

후원계좌 외환은행 287-22-00424-0
(예금주 상락원) (02)921-6410







① '웃어요. 사진 찍습니다.' 상락원 대식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② 롯데월드에 상락원 유모차 부대가 떴다.



③ 원장 지웅 스님의 손을 잡으니 가파른 계단도 문제 없어요.
④ 지민이가 엄마처럼 따르는 법등 스님.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창문에 무언가 썼다, 지웠다.*
*말을 건넨다. … "아빠"*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6권(특별)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 천도, 명절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리즈냐〉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새로 나온 <프리즈냐 6권> 특별가 책정!!!
초하루 설법 / 보름 설법 / 지장 설법 / 관음 설법 / 49기도 설법 / 명절 설법
프리즈냐(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현대설법연구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

# ‘수행과 포교’ 조화로 내실 다진다

##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 ——— 올 종무기조와 핵심사업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종단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각 종단은 다양한 종무지표와 종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밀교 대표종단으로 꼽히는 진각종도 올해 ‘수행과 포교의 조화’에 바탕을 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으로부터 진각종의 종무기조와 핵심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교학 · 교법체계 연구 성과와 비전은.**

진각종은 제2의 도약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해 불교사의 흐름을 좇아 인도 중국 몽골 등 밀교 고찰들을 탐방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육자진언과 금강계 37존 만다라의 장엄함을 확인했다. 진각종조 회당대종사의 교법이 시공을 초월한 ‘밀법(密法)의 진수’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육자진언을 신앙의 원천으로 37존 제존 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종단의 교상은 한국밀교와 티베트밀교에서 보이는 독특한 형태다. 현재 티베트밀교가 세계불교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한국밀교가 나가야할 방향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밀교를 중흥하는 종단으로서의 맥을 잇는 방법은 회당대종사께서 남긴 유법을 정확히 알고 잘 받들어 실천하는 것이다.

**▶올해 진각종의 종책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해 교학 · 교법체계 확립과 지역교구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면서 종단의 정체성 확립에 치중해 왔다. 혹자는 집행부의 지도력 부재 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제2의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올해에는 포교사업의 강화와 경주 산내연수원의 본격적인 개발, 새로운 재정수입의 개발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종교의 생명력은 포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체계화된 신교도 조직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내연수원이 교육 · 수행 본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원 불사 등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포교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나.**

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교주체인 심인당과 지역교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교구를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신행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지역포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신교도 조직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교도들의 재교육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법노장 제도도 부활된다. 창종 초기 운영됐던 법노장 제도는 지역을 구역으로 나누어 신교도를 관리하는 일종의 포교사 제도라 할 수 있다. 당시 법노장 제도는 오늘날 종단을 반석위에 세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이 제도를 정착시켜 법노장들이 지역포교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심인당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량으로 탈바꿈시켜 나간다. 현재 심인당은 신행도량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 · 문화 · 복지가 이뤄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새로 건립하거나 증축하는 심인당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

**▶출가승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출가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창종 초기 출가승이 있었고 현재도 독신승이 남아 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수행과 포교의 조화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밀교종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는 원로급 스승을 비롯해 종단 내 여론을 수렴을 거쳐 종헌 · 종법을 개정하는 수준이다. 올 상반기에는 종헌 개정안을 중앙종의회에 상정할 것이다. 중앙종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을 미리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종립 위덕대의 군승파송학교 지정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 종단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는 미묘한 사안이다. 조계종이 군승특별교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군포교에서 다른 종단을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군포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종단간 화합마저 해칠 수 있다.

당장 위덕대를 군승파송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단 차원의 군법당 지원도 지속하면서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천태종도 금강대 졸업생의 군승파송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종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같이 논의하고 함께 군포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각종과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불교의 핵심은 교법 실천에 있다. 외형과 형상에 얽매이는 불교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형상을 벗은 진리를 행하는 가르침이야말로 수승하다 하겠다. 그러나 요즘 불교는 껍데기를 숭상하도록 하는 잘못된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진각종은 심인진리의 구현과 생활속의 불교를 이루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의 재정과 행정을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화합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출가승제도 개헌 추진… ‘법노장제’ 부활
### 교육 · 수행의 본산 산내연수원 불사 착수

## 미륵종 비구니회장 동성 스님 취임



지난해 7월 창립한 미륵종 비구니회의 초대 회장에 동성 스님(부산 옥선사 주지 · 사진)이 취임했다.

미륵종 비구니회는 1월 16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동성 스님의 제1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동성 스님은 부회장 행인 스님(진주 불동암)과 이연화 교임(울산 연화사 수도원)을 비롯해 총무부장 법화 스님(언양 금수사), 재무부장 해월 스님(울산 약수암) 등 집행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동성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이 때 종단 안에서도 비구니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며 “종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천태종 총무원 · 종의회 국 · 과장 인사 단행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월 16일 총무원과 중앙종의회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장급 6명, 과장급 5명, 서기급 9명 등 대규모로 이뤄졌다.

국장급은 총무부 인사국장 갈지스님, 교육부 교육국장 구수 스님, 교육부 문화국장 광성 스님, 사회부 사회국장 보광 스님, 사회부 영농국장 보국 스님, 규정부 규정국장 시용 스님이 새로 임명됐다.

또 총무부 인사과장 겸 전산과장 진성 스님, 교육부 교육과장 거홍 스님, 재무부 회계과장 무성 스님, 중앙종의회 사무과장 진성 스님이 기용됐다. 박봉영 기자

## 조계종 포교사 품수식 20~22일 김천 직지사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월 20~22일 김천 직지사에서 신규 포교사 연수 및 품수식을 개최한다. 제9회 포교사고시 최종합격자와 제8회 포교사고시 연수 미이수자들은 이번 연수를 참석해야 포교사로 품수된다.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2월 14일까지 포교원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02)720-7060~4 박봉영 기자




## 진선여고 종교생활관 기공

진각종 종립 진선여고 종교생활관 지진불사(기공식)가 1월 19일 교내 회당 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는 “진선여고 생활관 신축 공사가 장애 없이 원만히 성취 될 수 있도록 교직원과 신교도들이 서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지진불사에는 혜일 총인을 비롯해 교육원장 혜정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진당 정사, 서울교구청장 수성 정사, 한기수 진선여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 원융종 사업계획 확정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1월 16일 서울 구로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신년하례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경 신도 수계법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3월 개통,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등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가사불사를 종단 차원으로 진행해 법계에 따른 의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일공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법륜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 종단소식

#### 20일부터 49일 불공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2월 20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49일 불공에 들어간다. 총지종의 49일 불공은 전통 불교의 안거의 변형된 형태의 밀교수행 기간으로, 모든 승직자와 재가 불자들이 동참한다. 이 기간에는 재난소멸, 소원성취, 영가천도, 자녀 잘되기 등을 진언염송을 통해 서원한다. 49일 불공은 4월 8일 회향된다.

#### 태허 스님 49재 열려

본원종 제3세 종정 태허 스님의 49재가 1월 23일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열렸다. 이날 49재에는 부종정 무구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총무원장 대화 스님, 감찰원장 대성 스님, 교육원장 동광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혜원 스님, 예천 연방사 주지 일봉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태허 스님의 사리 30과는 연화정사 내에 조성된 부도탑에 봉안됐다.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후학들은 종단을 일으켜 세운 태허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 금강대 오리엔테이션

천태종 금강대(총장 박봉식)는 2월 18~22일 중국 상하이사범대, 복단대 등지에서 200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수시 ·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마친 신입생이 참가하며, 비용 전액을 학교에서 부담한다.


#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2月 첫째주,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화 ~ 금)
◈ 수련과정 (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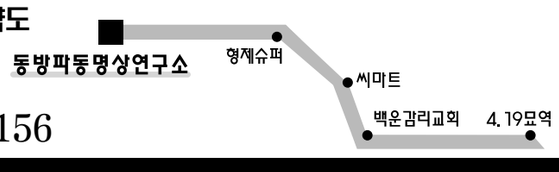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잘 나가는 불자회' 비결은…?

잘 되는 일터불자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비결을 갖고 있을까. 설마 일은 뒷전이고, 신행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나가는' 직장불자회 2곳을 찾아 운영노하우를 알아보았다. 19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은행 불자회와 새내기 신행모임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 이들 불자회 활동을 '별점 평가'로 내린다면, 불교계 인지도, 법회활성화 정도, 톡톡 튀는 신행프로그램 등을 감안해 능히 만점인 ★★★★★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 "각자 할 일만 잘하면 모임 저절로 굴러가요"



'금융계 불자회의 터줏대감' 한국은행불자회원들. 19년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법회를 열고 있다.

## 금요일 점심시간 '즐거운 공부'
## 19년간 한 주도 안 거르고 정진

**한국은행 불자회**

한국은행 불자회(회장 강화중 · 금융결제국장)는 85년 금융계 최초로 창립되어 올 1월에 900회 법회 봉행이란 기록을 세웠다. 1989년 전국금융단불자회 결성을 주도했던 한국은행 불자회는 그동안 석주, 무진장, 월주, 암도, 대행 스님과 미당 서정주, 고은 선생 등 꾸준히 공부해 걸출한 선지식들을 모셔왔다. 큰 스승들이 불자회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한국은행 불자회는 지금도 매주 금요일 점심 시간이면 <법화경>, <달마관심론>, <불교경전입문> 등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사경한다. 궁금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1월 27일, 은행 본점 시청각실에서 만난 회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들의 '이심전심'이 대단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회원들 대부분이 금요일 점심시간엔 다른 약속을 안 잡아요. 한 자 한 자 공부하는 재미가 너무나 크거든요."

윤석필 고문(54 · 시설운영팀장)이 말한다. 김난희 재무(41 · 결제업무팀 과장)도 한마디 거든다.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 불자회 일을 알아서 해요."

잦은 인사이동에도 안정적인 불자회 운영이 가능한 이유.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법사 섭외, 법회 공지, 전화 및 전자우편 연락, 목탁 집전, 법회 참석 독려 등 일은 많아도 소임을 맡은 회원들이 '똑 부러지게' 해내고 있기에 불자회 운영에 허점이 생길 틈이 없다.

"불자회 소임은 말 그대로 심부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일부 불자들은 모임을 만들고도 자신은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불자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먼저 찾아서 척척 해내니 불자회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안구용(48 · 안정분석팀 차장) 간사장과 하용이(51 · 정책기획국 수석부국장) 간사는 자신의 소임만 잘 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도리를 강조했다.

# "극락같은 공항 만들자는 공감대로 회원 영입 박차"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 2년이란 짧은 기간에 회원을 두 배로 늘렸다.

## 창립 첫해 직원 절반이상 회원으로
## 산악회 · 합창단 등 만들어 활동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 전인배(55 · 경위) 회장은 "불교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라는 말부터 했다. 이 같은 자부심은 새내기인 '불자회'를 단연 불교계에서 돋보이는 신행모임으로 성장케 했다. 지난해에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 불자회 깃발을 세우고, 122명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불자로 만들었다.

"한국의 관문에서 근무하는 경찰로서, 불자로서 느끼는 자부심으로 극락같은 공항을 만들고 싶다는 소원이 불자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불자회 배영수 고문(47 · 경정)의 말이다.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가 빠른 성장세를 보인 비법은 두 가지. 지난해 1월 경찰대 내에 불교산악회(회장 이찬우, 불자회 감사를 결성해 부담 없는 신행활동의 장을 마련했고, 불교계 처음으로 전 · 의경 찬불가 합창단도 조직했다. 특히 전 · 의경 합창단은 음영배 불자회원이 직접 지휘봉을 잡아 지도했다. 지금은 경찰청 합창경연대회에 도전장을 던졌다.

또 한 가지. '불도저 3인방'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전인배 회장, 박관규 총무(55 · 경위), 이찬우 감사가 바로 그들. 이들은 불자회 창립 이전부터 입회 원서 받으러 잠실운동장의 60배에 달하는 공항을 구석구석 누볐다. 또 공항을 출 · 입국하는 스님들을 극진히 모셨고, 전 · 의경들에게는 사비를 털어가며 간식을 챙겨주었다. 대한민국의 관문에 불교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서원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

"늘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친목계가 아니다. 불자모임이다'라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앞으로 더 부지런히 뛰어가려고 해요."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는 올해 '큰 일'을 내기 위해 야무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항에 입주한 정부기관, 항공사, 용역업체 20여 개 단체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인천공항불자연합회의 창립을 준비하는 일이다. 오는 3월이면 공항공사, 법무부, 민항기 조종사 등의 단위 기관 불자회가 창립된다.

글=김철우 · 사진=고영배 기자

## 우리불자회는요

### 서초반야회

### '부동심 닦기' 법회와 성지순례 매진
### 전국 법조인 불자모임 결성 산파역



서초반야회는 자비 · 평등의 지혜를 배우는 법조인 불자들의 모임이다. 지난해 4월 간월암 순례법회 때 장면.

<대방광불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세간(離世間)'에는 부처님의 법을 들은 중생이 세간에 있되 속세에 물들지 않는 게 '연꽃이 더러운 물에 썩지 않는 것'(如蓮華不着水)과 같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부동심(不動心), 여기에서부터 자비 · 평등의 마음을 다잡고 성불의 인연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반야회는 불자 법조인들의 신행 모임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사회법의 판단과 적용을 통해 소리 없이 회향하고 있는 일터불자회입니다. 창립은 지난 1995년 2월,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일하는 불자 판 · 검사, 변호사, 법원 및 검찰청 직원, 법무사 50여 명이 뭉쳐 첫 닻을 올렸습니다. 당시 손수일 판사가 우면산 대성사 도문스님을 친견하면서 모임이 본격화됐고, 지금은 회원이 150여 명으로 늘어나 대표적인 불자법조인 신행단체가 됐습니다.

우리 반야회의 자랑은 단연 빠짐없이 봉행하는 법회입니다.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대성사에서 법회를 갖습니다. 도문 스님의 법문과 참선, 그리고 법우들과 나누는 법담은 언제나 지친 심신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신행활동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지 않습니다. 매년 전국의 사찰을 찾아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문경 봉암사, 예산 수덕사, 경주 천룡사, 수원 용주사, 남양주 봉선사 등 법향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반야회의 왕성한 활동은 전국에 법조인 모임 결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96년에 당시 사법연수원 김희옥, 이인재 교수가 前 조계종 종정 서암 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다르마 법우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뿐인가요? 94년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98년 청주지방법원, 99년 창원지방법원, 2000년 수원법조인 불자회 등을 줄줄이 창립시켰습니다.

우리 반야회는 올해부터 젊은 불자 법조인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 불교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에 진출한 두 분의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법연수원 내 불교모임인 다르마 법우회와도 정기적인 합동법회를 봉행해 불자 법조인들을 한 데 묶어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주 모여 법에 대해 논하고,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성지순례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불교문화를 자주 접하는 기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우선 올해는 강원도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 등 적멸보궁을 순례하는 성지순례를 기획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처님 법에 의지해 '파사현정'을 실천하는 불자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홍우 총무


#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베푼 것은 남듯이 내가 클 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3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쉽게 포교하며,
21세기의 풍요로운 삶을 생활불교의 실천수행으로.....

# 금강불교대학 2004년도 신입생 모집

(사이버 동영상강좌 = http://www.kkbuddha.net)

**1. 모집과정**
불교기초과정
불교 전문 과정-(포교사)
장례지도사 과정-(장례지도사)
**공통** : (컴퓨터기초.기초의식.경전)

**2. 모집방법**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및 등록

**3. 개 강**
2004년 2월 7일

**3. 입 학 식**
2004년 3월 6일(토) 오후1시

● **특전(자격)** : 포교사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장례지도사 (한국장례업협회)

문의 : **금강불교대학** (www.kkbuddha.net)
경남창원시동정동708-48번지 (641-490) 전화:**(055)253-0108** / 전송:**(055)296-6200**

■ 아직도 무협하면 쾌쾌한 냄새가 가득한 지하만화방과 중원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떠올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림을 논할 자격이 없다. 소림, 무당, 아미, 화산, 곤륜, 마교 등 전통무협계보와 김용, 와룡생 등 작가들의 이름을 쭉 읊는 정도라면 '딩동댕'. 이 정도는 돼야 21세기 新강호를 휩쓸고 간 온라인 · 모바일혁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무협에 대한 기본상식으로 내공을 쌓은 후 21세기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주목받는 무협게임의 세계로 입문하면 된다.

# 온라인 강호 '新 불교 무림'이 평정한다

## 디오, 열혈강호 등 중화권서 호평 무림장악 초읽기



21세기 무협 인터넷 타고 신문화코드로 재탄생
폭력성 옛말, 불교사상 접목 게이머들에 인기

최근 게임업계의 최대 이슈는 불교의 108개 카르마(업) 세계를 다룬 3D 가상체험게임 '디오'이다.

디오는 불교에서 업보와 인연을 뜻하는 카르마를 108개의 대륙으로 표현, 대륙의 번뇌를 지닌 후예가 흩어진 힘을 찾아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게임이다.

즉, 전생의 업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개인의 번뇌를 카르마가 흡수해 디오라는 자아구축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카르마 속 수행인 '협행'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디오는 불교사상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면서도 무사, 스님, 자객, 도사 등 4가지 인물과 12개의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다양한 성장과 도 · 창 · 궁 · 조 · 화선 등의 무기를 별도 지원함으로써 무협액션게임의 묘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디오의 이런 노력은 지난 2001년 재미를 배재한 채 포교와 교육성만을 강조한 최초불교게임 '니르바나'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니르바나 전에도 '공작왕' '탄트라' '퇴마록' 등이 불교소재와 재미를 접목시킨 게임으로 평가받았으나, 겉으로만 불교를 취했을 뿐 폭력과 선정성이 난무해 불교게임으로 보기 힘들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불교사상과 게임을 적절히 접목시켰다는 디오, 즉 무협게임이란 무엇인가.

작년 말 <무협소설 연구서>를 낸 전형준(서울대 중문과)교수에 따르면 무협은 1910년대에 발생한 대중문화의 일종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 대만 · 홍콩 등지를 중심으로 소설과 함께 만화, 영화,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파생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코드다. 앞서 디오에서 보듯 게임에 무협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무협이란 장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이다. 무협은 역사적 사실 속에 가공인물과 실존인물을 교묘히 혼재시켜 게임이 가진 허무주의에 실존주의적 성격을 보완한다. 이러한 무협 속 역사성과 초현실적 무공들은 21세기를 맞아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최첨단 무기와 결합, '무협문화'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생성하고 있다.

게임전문잡지 <PC Power Zine>은 최근 '디오'와 '열혈강호' 등 무협게임이 호기를 띠며 개발되는 이유를 판타지 온라인게임의 난립으로 인한 채산성 저하와 새로운 장르를 찾는 게이머들의 입맛충족에서 찾고 있다.

탄탄한 역사 스토리에 기반을 둔 무협게임들은 '롤플레잉'이라는 이야기 완성형태의 게임으로 약 70만명의 게이머들을 무림의 세계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월 16~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락기기 전시회에 출시된 국내 무협게임이 중국인의 높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중화권 수출의 호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단행본으로 3백만부 이상이 판매된 인기 무협만화 열혈강호는 3D 온라인게임으로 개발돼 1백 20만달러의 중국수출계약을 맺었으며, 무협소설 <구룡쟁패> 역시 중화권 수출을 목표로 전통무협게임과 함께 모바일게임, 출판만화 등으로 준비 중이다.

디오의 개발실장 오용환 씨는 "일반 패키지 게임과 달리 온라인 게임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는 커뮤니티성, 즉 일상생활과 유사한 관계설정이 이뤄진다"며 "무협이 가진 인과(因果)와 명확한 선악의 논리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과 정서를 가진 중국 · 대만 · 홍콩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10대뿐 아니라 20~50대를 아우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2600여년 역사의 동양 불교사상으로 중무장된 무협게임들은 기존 서양 중세의 판타지가 주를 이루던 게임시장에 새로운 소재와 설화, 인물 등 풍부한 무공을 전파, 국내 200여만명의 게이머들을 '新불교무림'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3D 온라인 게임 '디오'의 4대 인물 중 신무스님의 모습.(위)
(사진왼쪽부터) 카르마 시발점에 선 4명의 주인공들, 신무스님과 염부도사의 대결, 철패로 무장한 신무스님, 3D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의 주인공들.

### ▮클릭! 무협게임의 세계로…

www.yulgang.com 열혈강호 – KRG소프트 무협 어드벤처게임
www.45yeon.com 연 – 무협 온라인게임
www.muin114.com 무인시대 – 무협 온라인머그게임
www.1000y.com 천년 – 전통무협 온라인게임
www.unonline.co.kr 운 – 무협 풀3D 온라인게임
www.darkstoryoline.com 묵향 – 3D 무협 온라인게임
www.1003b.com 천상비 – 무협 3D 그래픽머드게임
www.muhon.co.kr 무혼 – 무협 풀3D 롤플레잉게임
www.nhero.com 신영웅문 – 3D 무협 온라인머그게임

### ▮국내 무림계보

독재정권, 시위, 화염병의 뿌연 연기로 잿빛 미래 밖에 그릴 수 없었던 1960년대. 시대는 암울했고 사회는 시민들에게 발전과 변화만을 강요했다. 이때 후미지고 비탈진 동내 어귀 만화방 한편에 뽀얀 먼지와 함께 내려앉은 무협소설. 정식계약이 아닌 해적판으로 출판되던 무협소설은 권선징악과 인과법에 따른 주인공들의 맹활약으로 사회에 대한 소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식 라이센스를 타고는 1970년대 초 대만작가 와룡생의 <옥차맹>이 <군협지>라는 이름으로 발간, 무협단행본 시장을 형성했다.

국내 무협시장은 중국 · 대만 · 홍콩 등 중화권의 대중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영웅문> 등의 무협 수작들이 국내에 유입된 1986년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1960년대-암울한 시대, 홍길동식 주인공 활약**
**1980년대-'영웅문' 등장으로 일대 전환기**
**21세기-인터넷 보급으로 다양한 계층 확보**

중국 개혁개방의 주역 덩샤오핑(鄧小平)이 "당신의 소설을 읽었으니 우리는 친구입니다"라고 친근감을 표현했던 김용의 <영웅문>은 무협소설의 최고봉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베이징대학의 정규교과로 채택,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베이징대학 주최로 '김용 소설 국제연구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영웅문>은 중국내 1억만부 판매뿐 아니라 국내 무협소설 사상 최고의 판매부수인 3,000만부의 판매기염을 토해내며 지하 만화방 속 무림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 이후 무협소설은 기존 질서에 의심을 던지는 냉소와 비판의식에 동양의 선사상이 절묘하게 혼합하면서 중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계층의 고정 독자를 확보, 만화 · 영화 · 드라마 등으로 세력을 키워가며 21세기 신무협 세계를 이끌고 있다.


##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위덕대 · 금강대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학교 안 묻고 책 빌려 준다

##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 2월 6일 창립

## 도서 활용 폭넓혀 면학 지원…전자도서관도 구축

올 3월부터는 금강대에 다니는 학생도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불교관련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강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 · 경주 캠퍼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위덕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가 참여하는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이하 불도협)가 2월 6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창립되기 때문이다. 불도협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동국대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김종철 팀장은 “불도협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교학 발전과 이를 통한 포교”라며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이 타 대학 학생들에게 걸어두었던 빗장을 풀어 신생대학의 도서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대학들은 도서관 운영과 예산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일단 불도협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관련 도서 상호 대차(貸借)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금강대 학생이 동국대 도서관의 불교 도서를 대출하고 싶으면 금강대 도서관에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금강대 도서관은 동국대 도서관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고, 우체국 택배로 운송된 도서를 학생에게 전달해 주는 것. 단 운송 시간을 포함해 15일인 대출 기간을 어기면, 연체한 일수만큼 도서관 전체의 대출이 정지되기 때문에 연체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이 같은 자료 공유를 포함해 불도협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분담 수서, 불교학 관련 홈페이지 구축까지 크게 세 가지다. 분담 수서는 각 도서관 별로 분야를 나눠 구비하기 어려운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정된 도서 구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에서 발간된 불교관련 도서와 논문 등 평소 예산부족으로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던 자료를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 자료를 제공할 온라인상의 ‘전자 도서관’ 구축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역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학 자료 검색은 물론이고, 일제 시대 이후 발간된 잡지나 간행본 등 희귀본의 원문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한도 내에서 불교관련 자료를 최대한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협의회 창립준비위원장인 최인숙(동국대 중앙도서관장) 교수는 “불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참여 단체를 사찰 내 도서관, 교양 대학 등 불교관련기관으로 확장할 생각”이라며 자료 공유의 폭을 넓히려는 복안도 제시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 불교학결집대회 도우미 모집

### 5월 1~2일 대회운영 지원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해주)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도우미를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모집된 도우미는 5월 1, 2일 이틀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결집대회에서 참석자 안내와 대회 운영 등에 참여한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 이며, 이름 · 소속 · 성별 · 주소 · 이메일 주소 · 연락처 · 구사 가능한 외국어를 기입한 신청서를 skbinfo@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260-3128

## 김해서 금동경패 출토

### 국내 처음, 고려시대 것 추정



출토된 금동경패. 앞면(좌)에 갑옷을 입은 신장상이, 뒷면에는 ‘俱舍釋論 第十三卷(구사석론 제13권)’이 새겨져 있다.

경남 김해시 옛 절터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완전한 형태의 금동경패(金銅經牌)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문화재연구원(원장 박동백)은 지난해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산 74번지 일대를 발굴한 결과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신장명문경패(金銅神將名文經牌, 불경을 넣은 나무 상자 겉에 달아 내용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던 것)’와 금동불상, 소조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금동제 경패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현재 국내에 전해지는 경패는 보물 제175호 송광사 목조 · 상아 경패 43점과 호암미술관에 기증된 금동 경패 조각 2점이 유일하다”며 “이번에 발견된 금동경패는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그 출처가 분명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감은사지 느티나무의 편지

## “내가 역사경관 기념수 된다면 … 기대 커요”

“저는 감은사지 느티나무입니다. 감은사지 3층 석탑(국보 제112호)과 함께 450여 년 동안 감은사 터를 지켜왔죠. 수 백 년 전 감은사지를 뛰어다니던 동네 꼬마 녀석들과, 두 손을 꼭 모으고 탑돌이를 하던 이름 모를 스님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최근 40여 년 동안에는 감은사 터 여기저기를 들춰보는 사람들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했고, 당산제를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석탑에만 관심을 가져서 질투 나기도 했지만, 여름이면 제가 만든 그늘 아래서 감은사 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 주는 일이 저의 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이 제가 ‘감은사지 역사경관 기념수’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월 26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 · 관리 지침’을 마련해 문화재 지역에 있는 수목 가운데 수령이 100년 넘거나 상징성 있는 나무를 ‘역사경관 기념수’로, 이외에는 ‘문화재 경관수’로 정해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는군요.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 나무를 단순한 조경수가 아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생명 문화재로 인식한 겁니다. 제가 ‘역사경관 기념수’로 지정되면 매년 2번씩 건강검진도 받고, 아플 땐 치료도 해 준다니 500살이 넘어도 이젠 걱정 없습니다.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느티나무.

저처럼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지 않고, 문화재 지역에 조성된 숲 친구들은 ‘문화재 경관림’으로 지정해 5년 마다 자라는 나무 종류와 그 분포, 위치를 조사한데요. 그리고 외래 수종이나 너무 빨리 자라는 속성수종을 제거하고, 산불 예방 시설도 설치해서 보존관리 한다는 군요. 이젠 안심하고 아름다운 문화재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희종 교수의

## 불교와 생명과학 <30>

### 불멸을 바라는 어리석은 소망

## 과학의 힘에 기대 불멸을 꿈꾸는가?

## 생로병사의 ‘실체’ 없음을 바로 알자

최근 우리가 많이 접하는 생명과학 뉴스 중 하나가 인공장기의 개발이다. 돼지 등을 이용한 이종(異種)간의 장기 개발에 대한 뉴스를 보면 마치 수년 내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된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생로병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자.

생명체(생명이 깃든 개체)의 생로병사에서 과연 무엇이 생로병사 하는 걸까? 각 개체를 이루고 있는 신체적 자기(自己)이다. 생명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각각의 개별성은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서 다양한 화엄 세계를 이루는 바탕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체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간의 동종(同種) 장기 이식도 아직은 어려워 인체의 다양한 조직적합성(MHC)에 대한 면역학적 검사를 통과해야만 실시하게 된다. 몇 년 전 성덕 바우만이라는 재미교포의 골수이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에 응했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그 까다로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면밀한 검사를 통해 선정된 사람은 이식을 한 후에도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한다.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시키는 최저의 면역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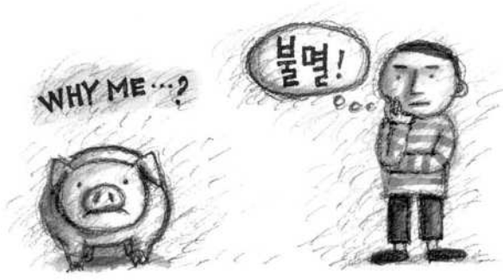
모든 포유동물들도 그들 나름의 고유한 조직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종간의 장기 이식이란 개체성뿐만 아니라 종간(種間)의 장벽도 뛰어넘어야 하기에 수년 내에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항간에 이야기 되듯 이종간의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간의 장기 이식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면 사람간의 동종(同種) 이식이라도 지금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날이 곧 올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꿈은 면역체계가 계속 고정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자기(自己)를 규정하는 면역체계는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한다. 비록 주요 조직적합성의 구성은 변하지 않지만 체내에서 그물망처럼 얽혀진 면역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항상 내안에서 이루어져 그 성격이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과학이 사용하는 분석적 방법으로는 결코 그 총체적 실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또, 설령 동물의 장기를 이식한다 해도 인간이 몇 년 더 살기 위해 동물을 희생하는 것이나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고 이에 수반되는 일반 감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란 결코 우리가 상상하듯 더 나은 삶이 아닐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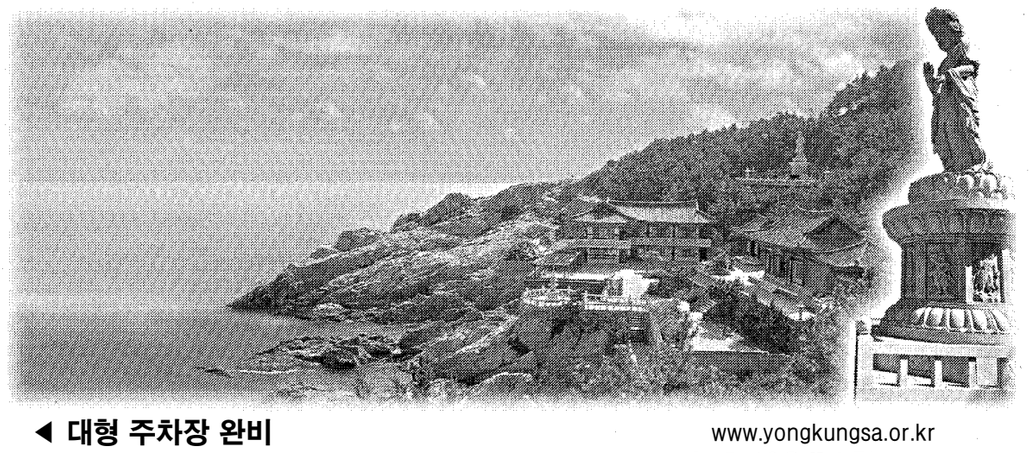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란 결코 우리가 환호하는 불멸에의 어리석은 소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생로병사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물 한 방울에도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간파한 부처님께서 늙고 병들어 힘들어하던 제자에게 신통을 부려 (이 시대의 과학 지식은 일종의 신통한 짓이 아닌가?) 그 고통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실체 없음을 보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한 이야기가 경전에도 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 DONG YONG KUNG TEMPLE
전화: 051) 722-7744,7755

불교성지순례
16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15일 (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 257만원
인도의 3월은 조여름으로 12월이나 1월달 보다 순례하기에 훨씬 기후가 좋습니다.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영축산,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 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12일, 3월4일, 3월23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2월10일, 3월9일 ····· 159만원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58만불의 딴보디사원,최대의 불탑유적과 종)-양곤(쉐다곤대탑,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12일, 4월10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야 고대왕궁-담불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 85만원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 79만원
▶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 85만원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3월23일, 4월20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6월 4일, 7월 6일 ,9월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실크로드여행사를 방문하시는 분께 수미산 사진집을 드립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재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일람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등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리산 선신에게 배운「황토사용법」을 보급하는 山人, 明德 洪炫普선생이 추천



건강 황토 단주 세트

정상가 : 60,000원 (15mm x 10개)
특판가 : 36,000원

정상가 : 55,000원 (10mm x 10개)
특판가 : 33,000원

■ 제품문의 : 02)730-1520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회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천년고찰 기도도량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313-5700
011-351-2993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발원사 055-882-3455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지역: 공주
▶보시: 월 70만원
▶45세 전
041)857-8606

전통의식,각종행사, 천도재,점안식,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제의식,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대학원 진학하실 기도스님과 조계종단에 출가하여 대도를 성취하실 분께서는 연락바랍니다.
050-2000-2233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신심있고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 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011-699-08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할 공양주를 모십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60-29
02)813-7425

행자를 모십니다.
▶고졸이상
▶만 40세 이하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 지원함
02)917-3363(정릉)

신심있고 가족처럼 함께 지낼 운전하실 거사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내외분도 환영합니다
충남 온양 보문사
041)545-6531
011-422-6757

전통의식, 각종법회행사 천도재, 49재, 기타불공 스님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1-9850-2946
053)653-0287
보리암 성보스님

구성학(九星學)강의
「구성학의 기초, 구성학의 사주풀이」의 저자 직강
02)2655-1016
011-340-1472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함께 수행하면서 지낼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급구 모십니다
경북 선산 조계종 사찰
018-587-2363
054)481-2363

국내 3대 지장보궁중 소백산 제2 보궁에서 불심있는 30대~50대에 조용한 곳에서 자기수행겸 공양주 보살님을 구함
또한 20대~40대 조계종 승려가 보궁에서 자기 기도할 스님과 내지는 외로운 건당 상좌를 구함
소백산 제2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지역
011-527-0637
019-554-24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정읍 보림사
063-535-6800

- 스스로 치료 못할 병은 없다 -
면역 치료법 발견! 공개 및 전수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면역 치료법" 발견! 공개 및 전수치료 못할병은 없다.
내 병은 내가 스스로 고친다.
02)793-1886

가평 잣
● 300g 1만원
● 650g 2만원
031)592-2865
010-3005-2865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태아영가 49재 천도 영가천도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中
● 태아영가 천도재 3月8日 봉행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출퇴근 가능
▷ 서울 서초구
016-381-131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진천
043-532-207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전북 완주
063)263-7475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 주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강료 : 월 15만원(교재대금 포함)
▶ 수료후 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한국명리교육원
02)336-8484

우리집도 100%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
부부문제(금전 · 애정 · 갈등)
자녀문제
(학습태도,친구관계,직장문제,부모+형제에 대한 존경과 애정)
정기강의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수시천견 : 월~일요일 오전 11시 이후
장 소 : 성북구 돈암1동 83-2 (해인사 내)
문의전화 : 02)925-3747

부동산 담보대출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출하세요
- 부동산 감정가 60%이상 - 담보사채
- 일반대출 - 매매잔금 대출 - 건설 관련 자금
(주)한국금융상품개발 02)3437-8282
* 금액에 따라 연금리 3%~1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육임(六壬)역학 강좌
풍부한 육임 고전과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체계적인 강의!
특징 1. 가장 오랜 역사 2. 풍부한 문헌자료와 검증된 정확성 3. 고도의 음양오행 예측 학문
육임명인 1. 강태공(주문왕) 2. 오자서(오왕) 3. 제갈공명(유비)
※지방에 계신 분은 「통신강의」 신청 받습니다.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교육일정 : 2004년 2월 11일(화)-12일(수) 주 1회
★강사 : 초 · 중급 - 남륜 스님
★사주통변 - 김재덕 (SBS 인생역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관상학 (특강) - 신기원 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행자님을 모십니다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행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문의 : 577-5800 교 202 H·P: 011-302-8435, 011-249-3378, 011-898-4680 e-mail: neungin@chollian.net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신임주지공고
● 전 주지: 달마스님 ● 신임 주지: 혜광하 스님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106번지
대한불교 총화종 천불정사

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강화
* 다른 질병관련 시력저하된 분
* 경전을 많이보시는 스님, 불자님



일본특허 2790212 KIST승인 KDAR03G-3K
미국특허 5382714 식약청HSK 2106909099
제조원 : 日本(주) MERCURY- MK
눈밝은 세상 (02) 2237-8004
홈페이지 (영문)http://eye88.hihome.com (한글) 눈밝은 세상

고급 사주프로그램 3만원
▶철찬리 판매중 - 기간
▶고급형 사찰종무관리프로그램 증정 2004. 2. 7까지
▶고급 사주프로그램(시중동급제품 70만원)
- 사주내용 : 사주, 이사방위, 궁합, 택일, 작명, 부적(인쇄가능), 사주 전문가도 만족
- 계좌번호 359-04-534378(조흥 : 오정택)
- 연락처: 018-270-1856
- 본원기획 오정택 실장 - (주)지우커뮤니케이션 파트너 가입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작명대백과사전
경기대 국제대학원 동양철학과 겸임 교수가 시인의 감성으로 5년간에 걸쳐 성씨별로 최상의 이름이 되는 이름 하나하나를 손수 창작하여 완벽하게 수록해 놓은 한국인의 작명대백과사전.
당신을 일평생 훌륭한 작명가로 만들어줄 단한번의 기회
'작명대백과사전' 이 있습니다.
작명대백과사전 소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국에서 사용되는 성씨(286개)에 맞추어진 이름이 모두 수록된 작명대백과사전은 세련되고, 복많고, 운좋은 이름으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시대에 맞춰서 작명되어야 한다는 현대식 해석법으로 손수 작명된 '이름백과사전'은 더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金培成 지음.
신도가 많고 존경받는 스님들은 무엇인가 달랐다!
지성과 정성을 들이며 새생명의 자녀를 위하는 신도들에게 훌륭한 이름을 제공하는 능력있는 '우리스님! 자랑스럽다'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복잡한 작명법과 한자의 획수를 다몰라도 가을과 겨울생은 木火를, 봄과 여름생은 金水에 해당하는 이름을 '작명대백과사전'에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불가에서는 명체불이(名體不二)라 하여 '몸과 이름은 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신도분들에게 운좋고 복많은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착순 200명 한정판매! 명 운 당
Tel. 02)312-3254 / 02)312-3274 http://www.nemebook.co.kr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야생 한약재 제품
고혈압(하고혈정) 신경통(생인정) 당뇨(하당정), 복부팽만, 속쓰림(비송정)
몸이 차가우면(음) 뜨거우면(양) 각 질병마다 음, 양 2가지 제품
건강제품은 중간유통마진이 80-90%입니다.
생인당은 공장직판(20첩 한재분량) 1개월분 1통 5만원(운송비 별도)



하당정 - 당뇨 치료
하고혈정 - 고혈압 치료
생인정 - 신경통, 생리불순 치료
비송정 - 복부팽만, 속쓰림 치료
현재 유통 중인 한약재는 대부분 인공재배약재, 화학식물, 영양제, 비료, 농약 사용으로 약효는 감소하고 독성은 증가하여 효능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인당 한방연구소장 황보 병호 합장
02)420-8083 / 011-9882-1526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밝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즐가 후 즐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묘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OO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지명스님 합장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포항
● 법당 : 47평
● 요사 :
● 시설비 : 2500
● 가액 : 1000/50

● 위치 : 부산
● 법당 : 36평
● 요사 : 15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25억

● 위치 : 경북
● 법당 : 2300평
● 건평 : 300평
● 가액 : 23억
신도시 중심가로 건물즉시활용 가능하고 도심사찰포교지로 최적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택지 지구(내)아파트밀집지역(뒤)
● 면적 33평(공양 간 별도)
● 전세 3천만원(월세 없음)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장엄 화려함. 즉시 법회가능 (10년 포교지)
몸만 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234-3184

## 음택명당(절터)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여주IC 5km
● 530평, 음택명당(정혈 있음)
● 가액 : 평당 30만원
● 도로에 인접해 있고, 조용하며, 풍치 안정되어 있음,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음, 정남향 마사토
017-275-5001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전철 10분거리 교통 전철 편리 시장입구
● 상권지역 상가건물 5층에 2층 2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6-368-6917

## 토굴 터 안내
● 위치 : 밀양시 삼랑진읍
● 전망 좋고 기운이 좋은 토굴
● 건강 관련 터로 더 좋음
● 부지 4100평(준농림지)
● 주택 30평
● 가액 2억
055)356-8742

##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슴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 부 지 : 1200평
● 법 당 : 11평
● 요 사 : 20평
● 가 액 : 2억 5천

● 위 치 : 경기
● 부 지 : 2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2동 70평
● 가 액 : 1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주역 15분
● 법당 단독주택
● 임법당, 방 6개, 주방 2개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몸만와서 운영가능, 철학관으로 좋음
011-9208-4984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주엽동 (주엽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시설 25평, 법당과 방 한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탱화, 시설A급, 3층건물에 3층 철학관으로도 적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천 2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 단독주택포교당
● 위치: 서울 중구 신당역 앞
● 평수: 약 2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1-791-8222

## 토굴안내
● 위치: 홍천 양덕원
● 평수: 20평 건물등기
● 텃밭있음
● 가액: 600만원
017-379-2201
031)772-6193
서암합장

## 사찰 안내
● 위치 : 보령시 외곽
● 면적 172평중 대지 86평
● 정남향. 건평 36.75평
●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져있고 앞면은 툭터져 있으며 큰도로에서 약 80m도보
● 입법당, 큰방1(가로25자,세로12자 이상), 작은방2, 주방, 욕실
● 잘지은 조립식 건물. 1년됨
● 타지역 이사관계로 매매
● 불사금 보시하시고 함께 생활하실 불자님 환영
041)934-8516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산
● 부지 : 5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목재)
● 양도가 : 6억
※ 산세 및 계곡 절경임

● 위치 : 강원도 양양
● 부지 : 450평
● 법당 : 35평(목재)
● 양도가 : 6억
※ 산세 및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사찰 안내
● 법당 : 대지 97평
● 1층에는 대웅전, 산신, 용왕단
● 법당 2층 : 천불전
● 종각 2평, 입주문 1동
● 요사채 대지 85평
● 지하 식당, 1층 사무실, 2층 살림집
● 가액 : 7억
● 가정주택으로 등록되어있음
055)288-0830

## 사찰안내
● 위치 : 대전
● 지하1층 지상3층 2층 50평 요사채, 3층 27평 법당 지하와 1층은 현재 임대중 (임대보증금 3100만원, 월95만원)
● 가액 : 3억8천만원 (융자 9500만원)
019-652-7008

## 사찰 안내
● 위치: 팔공산 선본사 방향
● 법당 : 목조20평,요사채 슬라브 30평
● 대지 180평, 노천 용왕당
● 입구까지 포장도. 주차 30대 가능
● 산세가 좋고 계곡물 흐름
● 지하수 1일 500톤. 창건 1년
● 가액 : 3억3천만원(중개불요)
011)860-2014

## 사찰 안내
● 위치: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에서 5분거리
● 건물 평수 : 총 40평
● 임법당 10평외 방4개, 목욕탕 2개
● 조건 : 매년 도지 18만원외 묘지관리
● 가액 : 6천 500만원
033)662-8713
010)3030-8713

##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흥덕사지옆 흥덕사원
● 평수 : 총 60평 법당 15평, 방 4개, 거실, 목욕탕, 부엌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1-806-4867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55)386-7463 / 010-3061-4264

## 사찰안내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 대지: 100평
● 임법당(임대) 방3개, 주방1개
● 가액: 7천만원
011-888-0130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 포교당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평수: 40평 방1, 상담실, 주방, 법당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결정 (탱화-중요무형문화재 작품)
011-213-7499
043)258-4242

##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충주시내
● 부지 : 7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1억 5천
※ 동굴법당 있음
011)688-3521

##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주엽 전철역 150m. 앞, 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건물 : 2층건물 2층 85평
● 방5개, 친견실, 욕실 2개
● 보증금 4천만원,월 100만원
● 버스정류장앞 지하철3분거리 (주차장 완비)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51-1719

##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전기. 전화 유)
● 전1991평 (불사가능 터로 터 정리됨)
● 가액 5800만원
054)672-7619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동호동
● 건물 실평수 (50평) ● 임법당, 방 2개
● 특징 : 신도시 개발지역 도심 속의 포교지로 최적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아주싸게, 답사후 절충)
016-502-7307
053)963-9945

##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 교통 전철 편리.
● 상권 지역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16)368-6917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내당동
● 구)황제예식장, 황제맨션앞
● 평수 : 45평
● 방4개,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9633-0302

##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대지 360평, 대웅전 26평
● 지장전 10평, 산신각 5평
● 용왕전 0.5평, 공양실 大, 공양실 小, 주지실, 종무실, 방4칸
● 가액 : 5억(절충가능)
011)9105-7240

## 포교당 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암사전철역 부근 대로변
● 법당 35평, 방1, 넓은 옥상에 방3, 공양간, 활용가능평수 6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매매
●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2800만원. 옥상 사용 가능
011)714-3635
02)481-3635

##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문현동
● 대지 120평 법당 50평 요사채 50평
● 전세 5000만원
051)636-3418
011-876-8642

##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644-5797

##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목조 한옥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좋은터 경관도 좋음
● 가액 : 2억원
016)249-3393

##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32)863-3171
018)201-5590

##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400만원
02)935-4294

## 사찰부지안내
● 성남시 분당 5km
● 대지 200평, 토목공사 완료
● 법당 45평 허가득
● 분당시범단지 전철역간, 마을버스 있음
● 가액 2억 5천만원
031)718-3114
011-9669-4455

## 단독주택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46-312 (산, 임야와 인접하여 있음)
● 평수 : 대지 점유면적 약 120평 (대지 70평+국유지 약 50평
● 건물 : 약 35평(1층 슬라브건물) (방 4개+화장실3개+넓은거실) (6년된 신축건물로 건물상태 깨끗함)
● 주위환경 : 본 주택옆에 약 1100평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형주차장, 체육시설, 휴게실등 편의시설 있음 수십그루나무, 탁트인전망, 그림같은 조경, 하루종일 새소리가 있는 도심속 전원주택이며 사찰用으로 개조가능함
● 가액 3억원(은행감정가 2억 8천만원) 융자 1억 7천만원(국민은행)
011-9914-8837(주인직접)

##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법당 30평,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부지 1천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41)567-0392
011)723-6640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방동 계룡시 인접
● 대지 70평, 임법당, 건물 40평
● 방3개, 주방 1개
● 보증금 100만원, 월 17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살림살이 일체, 몸만와서 운영 가능
033)672-2900

##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팔공산 파계사 근교
● 대지 306평
● 건물 50평(법당, 요사채)
● 산신각 4평
● 가액 답사후 결정
017-522-5544
053-985-9824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4층 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방1개, 주방1개,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역학을 할 줄 아시는 분 환영
●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9852-8386
051)782-9386

## 불교용품점(승복, 법복)
● 위치: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밑
● 방1개, 부엌1개 17평
● 현재 상업중
● 보증금1000만원 월45만원 절충가능
● 물품대금 모두 3500만원(조절가능)
019-656-0480

##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 창원 사이에 있음
● 대지 182평, 법당 2층 30평(천불전), 법당 1층 30평(대웅전), 용왕단 산신각4평, 영정각 3평
● 요사채 2층 33평(방4개, 입식부엌, 거실, 목욕탕, 화장실) 요사채 1층 40평(사무실5평, 주지방5평, 신도방 10평, 화장실3개) 요사채 지하 40평(부엌 6평 외 부엌있음, 공양간 34평, 화장실) ※ 4차선 도로 바로 인접, 주차장 넓음
055-288-0830

##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운장사 법당
● 보증금 1000만원 월10만원
033)766-0057

##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1천만원
011-226-2880

##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 대지: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 30평
● 돌탑 30여개
● 가액: 4천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43)744-3331
016-409-4502

##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안지랑역 부근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105-7240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내당동
● 구)황제예식장, 황제맨션앞
● 평수 : 45평
● 방4개,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9633-0302

##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대지 360평, 대웅전 26평
● 지장전 10평, 산신각 5평
● 용왕전 0.5평, 공양실 大, 공양실 小, 주지실, 종무실, 방4칸
● 가액 : 5억(절충가능)
011)9105-7240

## 포교당 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암사전철역 부근 대로변
● 법당 35평, 방1, 넓은 옥상에 방3, 공양간, 활용가능평수 6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매매
●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2800만원. 옥상 사용 가능
011)714-3635
02)481-3635

##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대지 : 1000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41)753-0302

##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목조 한옥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좋은터 경관도 좋음
● 가액 : 2억원
016)249-3393

##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32)863-3171
018)201-5590

##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400만원
02)935-4294

## 사찰부지안내
● 성남시 분당 5km
● 대지 200평, 토목공사 완료
● 법당 45평 허가득
● 분당시범단지 전철역간, 마을버스 있음
● 가액 2억 5천만원
031)718-3114
011-9669-4455

##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 사찰 안내
● 위치 : 아산과 공주 경계
● 부지 : 4500평
● 요사채 30평, 법당 15평, 산신각 4평
● 새로절을 불사할 분만 전화요망
● 납골묘 300기
041)841-0751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4층 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방1개, 주방1개,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역학을 할 줄 아시는 분 환영
●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9852-8386
051)782-9386

## 일주문



### 지역 노인 경로잔치 개최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1월 19일 관내 100세대의 불우 독거노인들에게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 평화통일 민족화해 기원 법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1월 29일 천안컨벤션센터 VIP홀에서 '평화통일 민족화해 및 천안시 민안녕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서울 용산구 원효사 주지 학봉 스님은 최근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5백 여 만원을 전달했다.



### 서초반야회와 신년 합동법회

법조불교인회 전창렬 변호사는 1월 29일 서울 조계사에서 서초반야회와 공동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초청, 신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 임시총회 및 8기 환영식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조우영 회장은 2월 14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2004년 상반기 임시총회 및 8기 환영식을 봉행한다.



### 연세대서 사경지도자 양성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오는 3월부터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사경지도자 과정을 열고 강의를 진행한다.



### 제32차 수련회 개최

법륜불자교수회 강수균 회장은 1월 31일부터 2월1일까지 옥포 용연사 대웅전에서 제32차 동계수련회를 봉행했다.



### 7일 제24회 입학식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학장은 2월 7일 서울 종로구 동산반야회관 2층 법당에서 제24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한다.



###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회장 당선

광주 서부경찰서 보안과 김창배 경사는 1월 16일 서내 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서부경찰서 불교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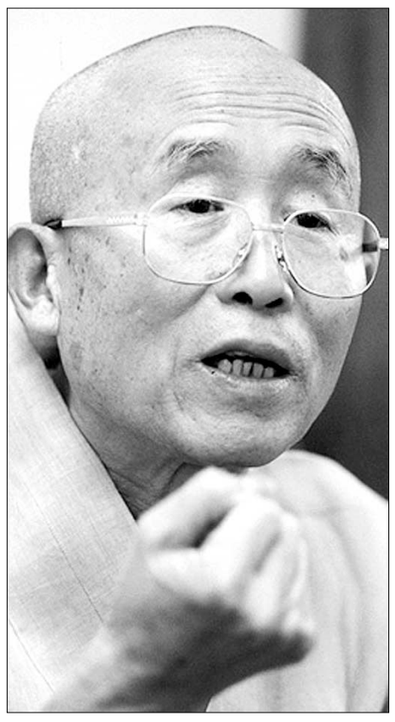


###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가 최근 통일 · 대북 정책 수립과 남북화해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 화엄경 청량소초현담기 편찬

###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격식을 갖춰 공부하는 것을 예로부터 이력(履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력으로 공부하는 곳이 줄어드는 등 좋은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법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평생을 대장경 역경 사업에 매진해온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사진)은 최근 <화엄청량소초현담기(華嚴 淸凉疏鈔懸談記)> 2권을 편찬하고 "한문으로 편찬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좋은 법보를 천하의 동호인과 나눔으로써 교학에 눈밝은 좋은 학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출판 소감을 밝혔다.

<화엄청량소초현담기>는 중국 화엄 5조인 청량 징관 스님이 저술한 <화엄청량소초>에 대한 총론서. <화엄청량소초>는 화엄경 전체의 대의를 소개한 책으로 화엄경 주석서의 주석서다.

"사기는 우리나라 승가에서만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강백이 자신의 제자가 강사로 처음 강의를 나갈 때 그 법을 인정하는 전강신표(傳講信表)이자 원전소개, 낱말풀이, 해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사용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모두 필사한 것으로 오탈자 등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일반 초서와 다른 불교만의 고유한 초서로 쓰여져 초서에 능통한 한문학자나 강원의 강백들도 쉽게 그 뜻을 알지 못해 전국을 돌며 사기를 모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눈 밝은 학인 배출 위해 능엄학림 논강 토대로 정리

조계종 교육원의 후원으로 발행된 이 책은 능엄학림 3기 연구생들이 매일 경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논강과 월운 스님이 이를 검증하는 문강과정을 거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 월운 스님은 그동안 능엄학림 연구생들과 <화엄청량소초>의 색인집이라 할 수 있는 <과도집(科圖集)>과 <화엄십지품사기삼가본(華嚴十地品私記三家本)>을 편찬했었다. 김두식 기자



## 서옹 스님 49재, 5천여 불자 애도속 엄수

조계종 전종정 서옹 스님 49재가 1월 30일 백양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초우, 수산, 지혜, 동천, 천운 스님을 비롯해 동화사 조실 진제, 쌍계사 조실 고산, 내소사 회주 혜산,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세민(해인사) 영조(송광사) 몽산(대흥사) 범여(선운사) 명섭(화엄사) 마근(신흥사) 스님, 재가신도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백양사는 이번 49재를 맞아 '참사람 서옹 큰스님' 화보집을 발간했다. 이준엽 기자

## 현각 스님 서강대 강단에 선다

### 3월부터 '참선과 삶' 강의



베스트셀러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이며 화계사 국제선원장인 현각 스님(사진)이 가톨릭재단 서강대에서 참선을 가르친다. 스님은 1학기 동안 종교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점짜리 '참선과 삶'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3월부터 매주 화 · 목요일 1시간 15분씩 영어로 진행되며, 참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참 시간도 마련된다.

수강인원은 학생들이 높은 관심으로 당초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됐다.

김승혜 종교학과 교수는 "현각 스님이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해 불교에 귀의한 만큼, 불교의 참선을 접해보지 못한 기독교, 천주교 학생들에게 불교의 영적 깊이와 삶의 성찰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은경 기자

## 최고령으로 포교사 된 임응옥 씨

### 교육단체련 '제2회 포교사고시'서



"오랫동안 사찰에 다니면서도 불교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교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늘그막에 이런 영광이 오네요."

지난 1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공동대표 대은 스님 등)가 실시한 제2회 포교사고시에 응시한 임응옥(71 · 대전 보현불교대학) 씨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고 소탈한 웃음으로 소감을 밝혔다. 최고령 합격자라는 부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신심이 깊은 불자들이 많은데 합격증을 받아들기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어떤 분야에서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할지 갑작스레 고민이 생기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발심을 해야겠습니다."

3월 열리는 품수식을 기다리는 임 씨의 각오는 남다르다. 30여년의 신행활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보현불교대학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에는 121명이 응시해 108명이 합격했으며, 김경재(동산불교대학) 씨와 김혜연(보현불교대학) 씨가 공동으로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불교신문 지령 2000호 축하 리셉션




불교신문 지령 2000호 발행 축하 리셉션이 1월 27일 서울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불교계 언론인과 각종단 지도자 등이 참석한 이날 리셉션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축사, 노무현 대통령의 화상 축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 김태복 장군 38년 군생활 마감



법당 건립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킨 군 사법기관에 맞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김태복 장군이 1월 27일 육군 제2291 부대에서 전역했다. 3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김 장군은 이날 전역식에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군 수뇌부에 고언했다.



## 문광부 종무관에 김수연 씨

문화관광부 종무실 종무관에 김수연 전 감사관실 감사관이 1월 27일자로 발령받았다. 김 종무관(사진)은 1976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2002년 8월 예술국 예술진흥과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 인사

부산범어사

△부주지 영환 △총무 범산 △기획 정만 △교무 의정 △재무 원범 △포교 일광 스님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빙의령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업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직원모집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찰에서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 인 원 : 0명

■ 조 건 : ◎ 신심있는 불자를 환영함
◎ 영업경력 있는 자 우대
◎ 남, 여(35세 이상)
◎ 차량 및 운전면허 소지자
◎ 서울, 경기 지역내 거주자

■ 서 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 연봉 2,500만 ~ 3,000만원 정도 가능함.
서류는 FAX로만 접수 가능하며
서류 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후
통보함.

FAX 번호 : 031)906-5108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관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曼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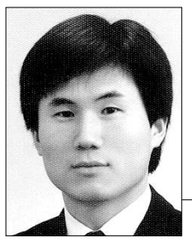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불자 세상보기

김 상 득
전북대 윤리학 교수

# 정보사회의 청개구리들

청개구리 우화가 있다. 청개구리는 언제나 엄마의 말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여 엄마의 마음을 무진장 아프게 하였다. 엄마 개구리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의 이런 마음을 꿰뚫고 자신의 시신을 강에 묻어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아기 청개구리는 자신의 불효를 깨닫고 엄마 말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만 오면 청개구리는 슬피 운다고 한다. 이 우화를 통해 우리는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하지만 청개구리 우화를 현대인들은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왜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과 반대로 행동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청개구리는 자신이 엄마와 다른 존재임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다름, 즉 개성은 표현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얼짱 혹은 몸짱 신드롬 역시 개성의 한 표현이다.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갖고 싶은 것은 비단 여자들만의 본능이 아니라 남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몸매를 아름답게 그리고 개성있게 가꾸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마음과 노력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문제는 얼굴이나 몸매 등 외적 아름다움과 개성의 추구로 인해 정작 소중한 내적 미와 개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외모 지상주의로 또 하나의 물질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얼굴이나 몸매의 아름다움 추구는 그래도 하나의 문화 코드로 봐 줄 수 있다. 대인관계나 자신의 행복추구에 있어서 얼굴이나 몸매도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즈음 20대 여성 특수강도 수배자에 대한 인터넷 카페 열풍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 코드로 해석하기에는 왠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바로 얼짱이나 몸짱이라고 해서 그의 행동이나 말이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얼굴이 예쁘다는 사실과 도덕적 범죄는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의 선택과 무관하듯이, 나의 얼굴이나 몸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자연에 대해서는 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도덕적 평가는 언제나 인간의 자율적인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얼짱이나 몸짱은 결코 도덕적 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자연적 운일 따름이다. 이것을 혼동하여 얼굴이 예쁘다고 특수 강도를 저지른 범죄자마저 도덕적으로 미화한다면 이는 분명 가치관의 전도라 아니 할 수 없다. 얼짱이나 몸짱 신드롬 이면에는 얼굴이나 몸매가 아름답지 못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멸이 숨겨져 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몸이나 얼굴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성형외과를 찾고 있지 않는가?

흔히 정보를 홍수에 비유한다. 홍수가 나면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건물이나 사람까지 그 희생물이 되고 만다. 뿌리가 튼튼해야 홍수를 이길 수 있다. 첨단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은 바로 우리를 정보의 홍수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래서 그 홍수의 물결이 흐르는 데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 도덕과 예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방예의지국의 가치관마저도 얼짱과 몸짱 신드롬에 뿌리 채 뽑혀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의 바다에 표류하다가는 동방예의지국이 '동방예외지국'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도덕과 예의를 숭상하는 아름다운 가치관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보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도덕과 예의를 먹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3년 동국대는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전국 대학 종합평가에서 30위로 떨어졌다. 2002년도에 24위에서 1년 만에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지난해 동국대의 교수 10여명이 타 대학으로 떠났다. 위기를 느낀 교수회가 12월 재직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건만 되면 동국대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해본 교수가 51.1%로 나타났다니,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급여문제였다. 서울시내 대학 중 동국대 직원의 급여는 중상위인 반면 교육의 주체인 교수는 중하위권이기 때문에 거의 전체 교수가 복지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수 식당이나 휴게소 하나 변변히 없다는 것 등 교수들의 쌓인 불평이 이탈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수교수 확보와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란

## 동국대 위기 돌파구 찾아라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최근 <석림>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재학생 승가모임인 석림회가 불교학과와 인도철학과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불교대학 수업과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동국대 내에서 불교대학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1%가 위상이 낮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수와 학생의 이와 같은 반응은 반드시 재단이나 학교 당국이 직감하고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일산 불교병원건물을 잘 지어 놓고도 개원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둘째치고라도, 학교 발전에 우수교수 확보는 지상과제인 데도 오히려 쓸만한 교수마저 떠나겠다고 하고 건학의 주체인 불교대학의 학생들이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적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면 무언가 새로운 특단의 처방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건학 100년을 자랑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즈음에 학문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현해 스님이 이사장에 추대됐다고 한다. 종합대학 승격 후 동문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사장이 된 만큼 동국대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대학 발전의 비전을 시급히 제시해 동국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 이렇게 들었다 쌀은 생명이다

온갖 정성 두루 쌓인 이 공양을 부족한 덕행으로 감히 받노니
탐심을 여의어서 허물을 막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 이루고자 이제 먹노라.
〈오관게(五觀偈)〉

밥 : 곡류 따위를 익혀 끼니로 먹는 음식. 주로 쌀밥을 일컬음.(이희승 감수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한국인에 있어 밥의 의미는 이런 사전적 의미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히 음식의 한 가지가 아니다. 생명 또는 가장 숭고한 노동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밥숟가락을 놓았다'는 말은 죽음을 뜻한다. 태아에게 탯줄과 같은 것이 밥이라는 얘기다. '밥줄'이라는 말은 직업 또는 생계 수단의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 '밥'의 의미 반경은 '빵'의 그것으로 갈음될 수 없다.

종교적 희생의례(犧牲儀禮)의 문화인류학적 의미는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보통 희생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수(犧牲獸)가 그것을 행하던 당시 가장 귀한 제물이었음은 분명하다. 우리 민족에게도 밥은 그런 것이었다. 밥이 제상이나 수라상에 오르면 '메'가 되고, 쌀이 부처님 전에 바쳐지면 공양미가 된다. 한국인에 있어 밥(쌀)은 생명의 등가물이자 가장 귀한 것의 상징이었다.

이런 밥의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안달하는 정부로부터는 숫제 국가 발전의 걸림돌 취급을 당하고 있다. 농업개방 불가론자들이 말하는 벼농사의 비교역적 가치 이전에, 모두를 살리는 공양물로서 쌀의 생명성에 주목할 때다.

사스, 광우병, 조류 독감이 증언하는 세계화의 허약한 면역 체계를 보라. 우리에게 쌀의 중요성은 세계화 · 반세계화라는 양극을 넘어선 지점에 있다.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 김태복 장군의 전역

법당건립을 위한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킨 군 사법기관에 맞서 5년여의 법정투쟁을 벌여온 김태복 장군이 1월 27일 전역했다. 전역식이 열린 부대는 군 수사당국에 조사를 받기 직전 사단장으로 몸담았던 번개부대였기에 김 장군의 감회는 남달랐을 것이다. 군 사법기관과 길고 외로운 싸움을 벌인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김 장군은 육군 모부대 지휘관 재임시절 군불교 발전을 위해 군법당을 건립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는커녕 뇌물수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오랜 기간 소송을 벌이면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정리하는 아픔을 겪었다.

김태복 장군 사건은 우리 불교계의 아픔이요 부끄러움의 대표적인 일이 됐다. 또한 불교계에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시주금이 뇌물로 변해버린 김 장군 사례는 군불자들의 종교활동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심의 발로로 군법당을 짓고도 죄인이 되는 현실을 보면서 어떤 군불자가 자유롭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나도 군불자 중의 한사람이다. 김태복 장군 사건이 불거져 나온 이후 군법당에 나오는 간부급 불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되었지만, 힘든 과정을 거쳤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 만약 이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군불교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군불교가 오로지 기댈 수 있는 곳은 군불교를 후원하는 불교계 뿐이다. 불교계가 군불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란다. 정대호/인천시 강화읍

### 사찰공간은 '문화현장'

최근 사찰을 비롯해 종교시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한 교회에서도 대단히 활발한 문화활동이 펼쳐진다. 그 곳에 다니는 이웃의 자랑은 대단하다. 수영장과 스쿼시 연습장, 헬스장 등을 교회내에 갖추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차례 함께 이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런 때 사찰은 얼마나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사찰에서 문화강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드물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산중사찰은 도심에 있는 종교시설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행법, 문화재 등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충분한 가치재다.

크고 화려한 건축 불사 보다 시급한 것이 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일이다.

만약 야외 수영장과 헬스장이 산중사찰에 있다면 어떨까. 사찰 옆에 전시관이 있다면 또 어떨까. 산중사찰에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짓는 것은 문화를 누리려는 사람들을 사찰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유지숙/안산시 사동

## 독자의 시

다비식

보석보다
더 빛나게 살아온 자취
새파란 하늘보다
더 새파랗게 살아온 자취
새하얀 구름보다
더 새하얗게 살아온 자취

그 맘
그 몸 저 위하여 아니라
중생 위하여
불질러
불질러 밖엔 나타낼 길 없음을
이름하여
아! 다비식

장천수/포항 연일읍 생지2리

## '현대' 만평

심 민 섭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6-4422



공 연합회 포교사 합격자 고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월 4일 제2회 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실시하고 필기 및 면접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함.

| | |
|---|---|
| 국제불교정법대학 | 강순심 김옥순 손미숙 이칠봉 (4名) |
| 금강불교대학 | 김길동 김병진 김현옥 문영택 변재용 서영임 송희자 이선미 정문자 정승민 최성환 황은림 (12名) |
| 동산불교대학 | 고란임 고정자 권명원 권오복 김경재 김광자 김기성 김기열 김동덕 김상호 김영식 김영욱 김영호 김인섭 김춘복 김현진 맹동재 박성근 박윤택 박창목 박현주 박형기 서동수 손종곤 신영일 안숙이 안인순 안정숙 원정연 유재명 윤웅일 윤희자 이래훈 이병주 이상우 이선자 이은태 이은훈 이충희 임창우 장복선 정진숙 정회선 정흥식 조국현 천옥희 최덕집 최정환 한승화 홍범희 홍애영 홍양순 (52名) |
| 보현불교대학 | 강정옥 공병운 김혜연 문명대 박정애 양승동 오영배 이경애 이기명 이두원 이은식 이준태 임응옥 (13名) |
| 불이선원 | 강신구 김명숙 (2名) |
| 사르나르불교대학 | 곽임득 구인완 김병철 김복희 김영화 노정란 문원보 문흥일 박기호 박성일 배복희 성병석 성정옥 송임숙 송필애 여미란 이상화 이옥부 임창숙 조순갑 최순근 홍필순 황선택 (23名) |
| 한국불교불교교대학 | 최삼은 (1名) |
| 해동불교범음대학 | 김권일 (1名) |
| | 이 상 (108名) |

■ 합격자 등록기일 : 2004년 2월 10일 까지
■ 연수장소 : 대전 월대수련원
■ 등록비 및 연수비 : 6만원 (소속학교 접수바람)
■ 연 수 일 : 2004년 3월 6일 ~ 7일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전화 02)734-9595

페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 잊혀진가람 탐험

감포 감은사지



# 우뚝솟은 삼층석탑 통일신라 힘 과시



삼국통일의 위업에 걸맞게 거대한 풍채와 위엄을 가진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국보 제 112호).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해의 용이 되었다는 문무왕이 조수에 따라 드나들도록 설계된 금당터.

경주로 가는 길은 '신라로 가는 길'이다. 함월산, 토함산, 산으로 이르는 길이든, 호미곶, 대왕암, 바다로 닿는 길이든 그 길은 모두 신라로 가는 길이요, 신라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반도 땅, 삼한(三韓)의 경계 안에 신라의 자취 어리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 맥박 고동치던 서라벌 언저리에 이르면, 향내음, 꽃내음 물씬한 천년의 향기를 느낀다. 가도 가도 끝없는 길, 새로운 길. 신라로 가는 길은 꿈꾸는 길이요, 노래하는 길이다.

꿈 속에 듣던 황매산 영암사지 돌축대의 잔나비 울음소리는 잠을 깨도 귀에 쟁쟁거린다. 이런 날 새벽열차를 타고 넘는 역사의 문지방은 한없이 호흡을 가쁘게 한다. 시린 겨울 안개를 가르고 무혈입성한 경주는 옛 고향에 돌아온 듯 예의 그 안온한 모습이다. 보리사 솔 그늘에 앉아 계신 석가여래의 자리도 애랫목인냥 따습고, 탑골 부처바위의 마애불상 권속들도 정겨운 이웃인냥 그윽한 품을 벌려 마중한다.

### 황룡사 · 사천왕사와 함께
### 신라 3대 국찰로 유명

### 절 세운 문무왕과 신문왕
### 海龍 · 만파식적 전설로 되살아나

여기서 세차게 발길을 잡아끄는 것은 경주박물관 뜨락의 무두불(無頭佛) 군이다. 어찌할 것인가. 목과 팔다리를 역사의 허깨비들에게 겁탈 당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살과 뼈가 더 있어, 저토록 꿈쩍을 않는 저 고집들을 어쩔 것인가.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아직 못다한 역사가 있고, 못 받은 공양이 있어 저토록 미련을 두고 집단으로 저잣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저 사연들을 누가 거둘 것일까. 갑시다. 무두불들이여! 오늘은 감포 앞바다로, 가서 동해 저 심연에서 울리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다시 얻어 목이 터져라 희망을 합창합시다. 용당산 감은사지 쌍탑에 기대 서서 일월성신으로 반짝이는 호국성령들의 눈빛을 오래도록 마주합시다.

보문동에서 황룡계곡을 거쳐 덕동호를 지나는 길은 신라로 가는 길 중에도 혼자 가기 아까운 길이다. 도반이 있으면 더욱 좋고, 도반이 없으면 흰 구름이라도 데불고 함께 할 길이다. 덕동호 저 깊이 모를 수심 아래 수몰된 고선사지는 무슨 연유로 경주박물관 뒤뜰에 삼층석탑 한 기만을 남겨놓았는지. 이젠 수중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천길 심연에서 홀로 목어를 울리는지 암청색 수면은 너울너울 살아서 달려온다.

추령터널을 나와 유속이 완만한 대종천을 따라나서면 저만치 1천년의 시공을 뛰어 넘어 앞서가는 어가 행렬이 있다. 위풍당당한 문무대왕의 행차이시다. 이 땅 최초로 통일국가의 대업을 완성, 홀로서기에 성공하였으나, 또 다른 민족의 숙적 왜구가 수시로 동해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일삼으므로 만고의 정법인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를 제압하고자 숨 돌릴 틈도 없이 토함산을 넘은 것이다. 문무대왕이야말로 불심 충만한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 땅의 영도자가 아니었던가. "내가 죽은 뒤에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의 평화를 지킬 터이니, 나의 유해를 동해에 장사지내라. 화려한 능묘는 공연한 재물의 낭비이며 인력을 수고롭게 할 뿐 죽은 고혼은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숨을 거둔 뒤에는 불에 태워 장사할 것이요, 초상 치르는 절차는 힘써 검소와 절약을 좇아라."(<삼국사기> 문무왕 21년조)

통일신라의 찬란한 문화시대를 개막한 위대한 영주. 전제군주로서의 막강한 권력과 호사를 뒤로하고 검약과 절제로써 솔선한 진정한 위국안민(爲國安民)의 지도자인 문무왕과 같은 선열이 있어 신라의 추억은 포만하고, 그러한 위정자를 이 시대에는 만나지 못해 우리의 시대는 곤고하고 애석한 것이다.

감은사지(感恩寺址 사적 31호)는 문무왕이 장차 자신의 유골을 뿌릴 대왕암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터를 골라 착공했으나, 절을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자(681년), 그의 아들 신문왕이 부왕의 숭고한 염원을 이어 받아 즉위하던 그 이듬해(682년)에 완공한 절이다. 선왕의 은혜와 원력이 사해에 사무쳤으므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 하였던 것이다. 감은사지. 곧 황룡사, 사천왕사와 함께 신라의 3대 국찰로 알려진 호국 성지, 감포 앞바다의 그 멋스런 절터이다.

용당산을 배산으로 대종천을 임수로 명당 터에 자리 잡은 감은사지는 폐사가 되어서도 지켜야할 그 무엇이 있는지 절 터 입구에 세 그루의 노송을 키우고 있다. 어떤 부정함을 막으려는가. 솔잎은 잡것의 접근을 막는 것이므로 금당 터 느티나무가 그 밑둥에 새끼줄을 두른 것과는 그 처지가 다른 것이다. 감은사지가 절터로서보다는 감은사탑으로 더 유명세를 타는 것처럼 감은사지 답사는 동서 2기의 삼층석탑(국보 제112호)을 참배하고 탐험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대미를 장식한다.

감은사지 동 · 서 2기의 석탑은 그 거대한 풍채와 위엄이 가히 사람과 자연을 압도한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의 국력에 걸맞게 그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감은사탑 2기의 삼층석탑은 그 크기와 품새가 천하제일의 것이야 했던 것이다. 어떠한 장식도 군더더기도 필요하지 않다. 동해의 용이 되고자 했던 문무왕의 위용이 그러했을 것이다. 당군을 물리치고, 왜구마저 범접을 사양했던 신라인의 기백과 불심이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장중하고 튼실하여 안정감과 상승감이 넘치는 감은사탑은 종래의 평지가람에서 산지가람으로, 일탑일금당 중심의 가람배치에서 쌍탑일금당으로 가람배치 양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최초의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감은사탑은 상하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리고 지붕돌(옥개석)의 끝이 경사를 이루는 통일신라 7세기 후반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축조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석탑 양식은 고선사지 삼층탑, 불국사 석가탑 등을 거치면서 3층 석탑의 기본양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감은사지 석탑의 특징은 기단부와 탑신부 등 각 부분이 한 개의 통돌이 아니라 수십개에 이르는 부분석재로 조립되었다는 것이다. 지대석과 면석이 12매로 다듬어진 같은 돌이며, 갑석 또한 12매이다. 탑의 상륜부에는 1장으로 만들어진 노반석이 남아 있고, 그 이상의 부재는 없으나 3.9m의 찰주가 노반석을 관통하여 탑신부에 꽂혀있다. 석탑의 전체 높이가 13m에 이르는 우리나라 삼층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감은사지는 동 · 서 두 개의 석탑 사이의 중심을 지나는 남북 선상에 중문과 금당, 강당을 세운 형태이다. 감은사지 금당은 이중의 방형대석 위에 장대석을 걸치고, 그 위에 장대석을 마루 깔 듯 깔고 초석을 놓은 것으로, 동해의 용이되었다는 문무왕이 조수를 따라 드나들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호국가람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신문왕이 만파식적을 얻었다는 이견대는 문무왕의 산골처인 대왕암을 바라보는 대본리 바닷가에 있다. 두 개의 대나무가 한 개로 어울려 소리 내며 천지파랑을 잠재우는 만파식적은 아마도 죽비(竹扉)가 아니었을까. 내우외환으로 얼룩진 이 시대의 파랑을 잠재우는 만파식적, 그 죽비소리를 감은사탑, 하늘을 향해 치솟는 찰주 끝에서 듣는다.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양북면 장항리절터 편>

**감은사지 가는 길** 감은사지는 경주시내에서 추령터널을 지나 4번 국도를 타고 동해로 향하다가 양북면(어일리) 검문소에서 929번 지방도로 따라 6.5㎞ 정도 가면 된다. 대중교통은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양남행 버스를 타고 , 감은사터 입구나 봉길리 해수욕장에서 내린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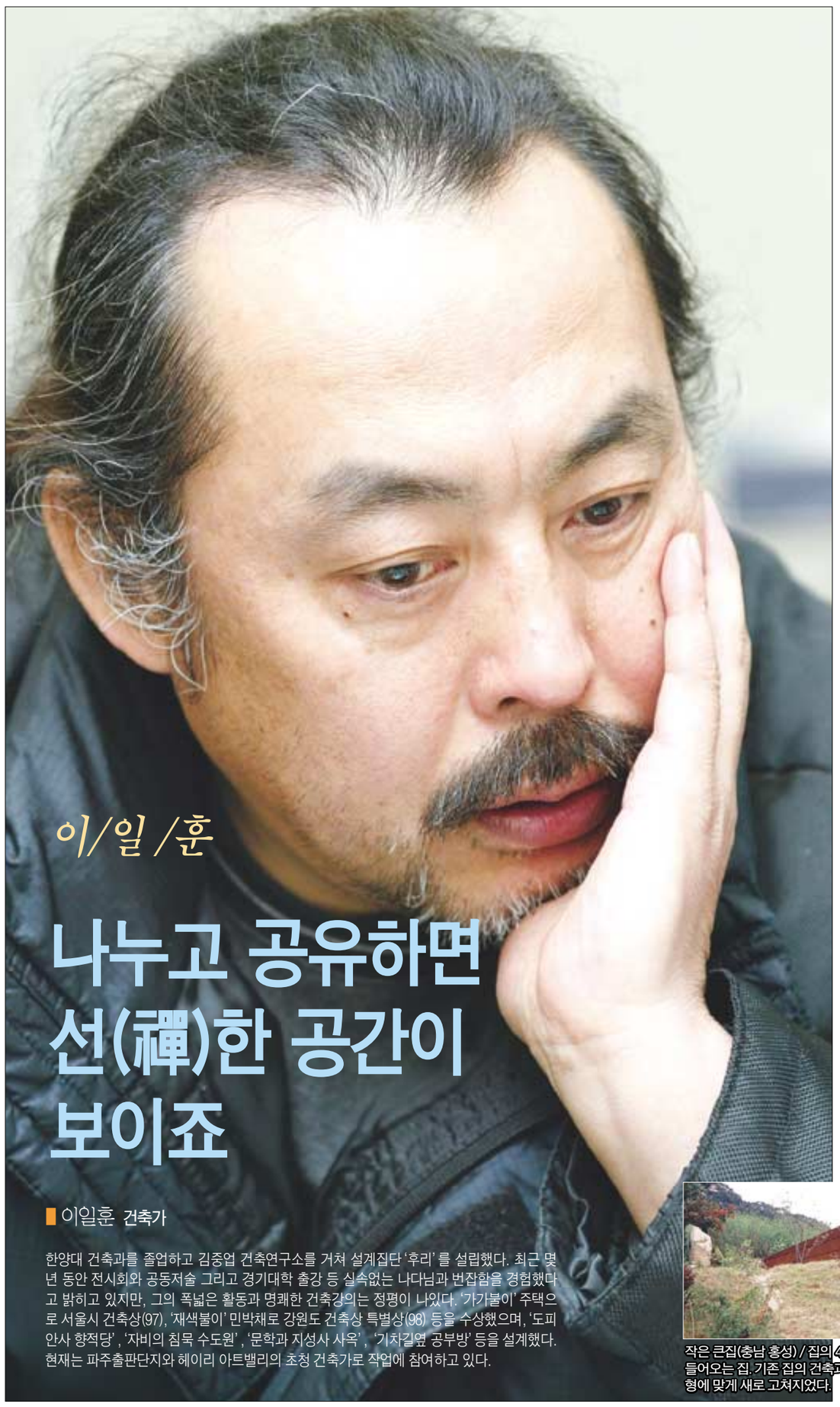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이/일/훈

# 나누고 공유하면 선(禪)한 공간이 보이죠

**이일훈 건축가**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김중업 건축연구소를 거쳐 설계집단 '후리'를 설립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시회와 공동저술 그리고 경기대학 출강 등 실속없는 나다님과 번잡함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의 폭넓은 활동과 명쾌한 건축강의는 정평이 나있다. '가가불이' 주택으로 서울시 건축상(97), '재색불이' 민박채로 강원도 건축상 특별상(98) 등을 수상했으며, '도피안사 향적당', '자비의 침묵 수도원', '문학과 지성사 사옥', '기차길옆 공부방' 등을 설계했다. 현재는 파주출판단지와 헤이리 아트밸리의 초청 건축가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산문밖의 探

그가 지도를 보고 있다. 집과 도로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담아낸 지도다. 집의 형상이나 높낮이 조차 생략된 지도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외곽선만이 단선으로 처리돼 있다. 여기에서 그는 몇 가지 '꺼리'를 읽어낸다.

"방향과 관계없이 두 채를 똑같이 지은 A집과 B집은 분명 부동산 업자가 동시에 지은 건물일 테고, 북쪽 대지경계선에 바짝 붙은 C집은 일조권 규정이 없을 때 지은 집이 틀림없어요."

그를 따라 곰곰이 지도를 뜯어본다. 도로선과 맞추느라 찌그러진 집, 도로에서 물러나 앞마당을 키운 집, 길가에 나앉고 뒷마당을 확보한 집…. 그는 한 장의 지도에서 집과 길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끌어냈다. 1월 19일 건축가 이일훈(후리건축 대표 · 51)씨와 만나 나눈 '가가불이(街家不二)' 담론의 서두였다.

"건축에서는 공간을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내부화하려고 했죠. 건물 외부 공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구획된 내부에서의 편리만이 오직 고려의 대상이었죠."

외부와 차단된 건물에는 음습한 어둠만 드리우고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 역시 건축법이 정한 최소 규격에 지배되는 우리네 도시. 도면을 밀치고 자세를 고쳐 앉은 그가 담배를 태워물며 도시의 '못마땅함'을 토로하기 시작한다. 동선(動線)의 최소화를 추구해 한 덩어리 공간을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좋아진 것이 무엇이며, 하나로 통합된 공간에서 소위 공동체적인 정을 나누긴 했을까를 되묻는 건축가. '효율적인 공간은 편리한 공간이며 편리한 공간은 선(善)한 공간이다'는 세기를 풍미한 건축론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이다.

"타성에 젖은 사고와 행동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들을 깨부수는 혁파, 그것이 제 작업의 근간입니다."

사고의 틀을 깨고 규정을 뒤엎는 그의 작업에 다분히 선(禪)이 녹아 있다. 그러나 그는 선과 건축의 연관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 공세를 "입으로 내뱉으면 이미 선이 아니다"며 단칼에 잘랐다. 단지 진정한 '편안함'을 호도하는 건축계 현실에 반기를 들고 싶었고, 그 못마땅함을 개선하고자 '채 나눔'이라는 건축론을 실제 설계에 적용했을 뿐이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안해 낸 '채 나눔' 기법은 개인적인 실험을 넘어서 90년대 이후 건축계의 화두가 됐다.

"채란 사랑채, 행랑채라고 부를 때의 '채'요, 나눔은 공유와 분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나눔'이죠. 채를 나누고(分離) 그렇게 떨어뜨려 생긴 공간을 타인과 나눈다는(共有) 의미입니다."

그의 채나눔 건축기법 핵심에는 '불편하게 살자', '밖에 살자', '늘려서 살자'라는 독특한 철학이 배어 있다. 방과 방 사이를 떨어뜨리고 동선을 늘려 불편하게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내부를 외부로 끌어내 바깥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자는 생각이다. 집 한 채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을 따로 지어낸 우리네 한옥구조를 상상하면 된다. 극단의 경우 방과 방 사이를 이동할 때 비바람을 맞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그의 의도된 설계다. 그 공간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만나고 또 길(街)과 집(家)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의 '가가불이(街家不二)'는 '하나인 동시에 둘이 존재하는', 또는 '둘인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는' 불이(不二)건축의 의미를 살려낸 작품으로 꼽힌다.



모형으로 설계방향을 일러주는 이일훈 씨.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끊임없이 질문**
**건축계 현실 비판 '채 나눔' 설계 적용**
**'불편하게, 밖에서, 늘려서 살자'가 핵심**
**전통복제 의미없어, 쓰는 방식이 중요**

이 씨의 이 같은 생각은 종교건축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은 기둥으로 띄운 방아래 활공루라는 빈 공간을 입구로 통하도록 설계해, 다분히 폐쇄적이었던 절의 내부 공간을 외부로 끌어냈다. 옥상 끝 계단꼭대기에서는 풍경의 울림으로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을 마련해 도솔천을 형상화했다.

재료의 변혁도 이어졌다. 이 씨는 '지금-여기'의 보편을 담은 콘크리트로 절집을 지어올렸다. 재료는 좋고 나쁜 것이 없으며 단지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전통복제형 건축은 오늘에도 내일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백 년 쯤 지나 사찰건축을 평가해 볼 때 절충식 목조건물은 역사의 블랭크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혁파를 담아낸 이일훈 씨의 건축은 외관상 별다른 눈길을 끌지 못한다. 단순한 회색집에 끊임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건축과 학생들을 보고 동네사람들은 의아해 할뿐이다. 그래서 그는 독백처럼 내뱉는다. "지나는 사람은 그 집에 살지 않는다. 그 집에 들어가 보라고. 건축학을 전공해도 껍데기만 관심있게 보니 일반인들이야 오죽할까."

거침없는 얘기를 무심히 쏟아내는 그에게 말머리를 틀어 '헤이리 아트밸리' 설계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공동작업에 초청된 건축가의 'n분의 1'일 뿐입니다."

그는 끝까지 기자의 선입견을 무너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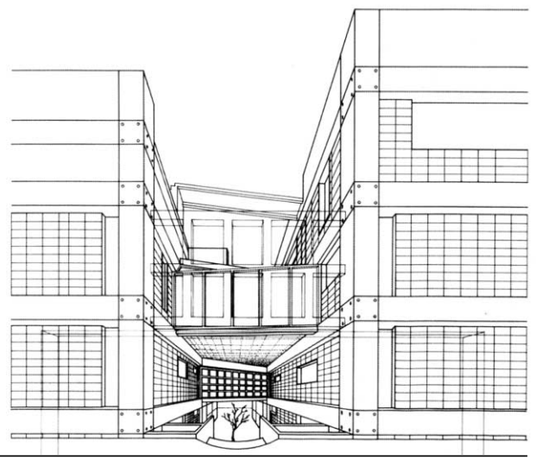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작은 큰집(충남 홍성) / 집의 4분의 3이 땅속에 묻혀있지만 모든 방에 햇볕이 다 들어오는 집. 기존 집의 건축과정에서 훼손됐던 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땅의 지형에 맞게 새로 고쳐지었다.



'가가불이' 도면. 내부를 외부화한 공동 공간이 돋보인다.(오른쪽)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입재 : 2003년 11월 2일 회향 : 2006년 8월 27일

**생전예수재 특별봉행**

입재 : 2004년 양력 윤 2월 29일 회향 : 2004년 음력 윤 2일 29일

한국불교 2000여년 역사속에서 최초로 「예수재의범」을 사언절 우리글로 완역한 우리절에서 여법한 준범에 의해 특별히 봉행하는 이번 "생전예수재 49일 기도"에 깊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곤지암 우리절(전화 031-763-4674)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신간
우리말 四言節
독송 · 사경용
편역자 : 동봉스님
도서출판 운주사
값 6,000원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이제열 법사의
## 경전속의 수행법 <2>

###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의 의미

큰 사찰을 찾아 가면 입구마다 일주문이 서 있고, 그곳에는 사천왕상이나 금강역사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이들 상은 불법을 지키는 옹호신중으로서, 예로부터 불자들의 예배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화엄경이나 능엄경 등과 같은 주요 경전에는 한결같이 사천왕과 금강역사들이 출현하여 경전을 찬탄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라도 경전을 수지하는 중생이 있다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들에 대해 단순하게 옹호신중이 아닌 대웅전에 모셔진 불 · 보살님 상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에 방문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청정하고 온화하신 모습은 세상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 주실 것 같고 온갖 소원을 빠짐없이 이루어




**마음속에 들어찬 온갖 욕망과 번뇌 똑바로 보라**

주실 것만 같아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그와 같은 거룩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사천왕상이나 금강역사상의 모습을 바로 보지 않고서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상(相)과는 정 반대되는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은 무섭고 성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꺼려합니다. 저 모습들이야 말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 지를 일러주는, 또 다른 방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의 부릅뜬 눈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추호도 감추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으며, 들고 있는 칼이나 주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리석음과 악을 용납치 않고 부숴버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 상들이 밟고 있는 잡귀들 역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욕망과 번뇌들로, 항복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통한 해탈에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일주문을 통과해 부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관찰하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과 번뇌를 깨뜨리는 행위가 수반될 때 성취됩니다.

사천왕이나 금강역사를 외적 존재로만 여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준엄하게 심판하는 내적 존재로 돌리는 것이 저들을 바르게 신봉하는 길입니다. <유마선원장>

美 프로비덴스 젠센터 — 수행현장을 가다

# 참선 수행에 종교 장벽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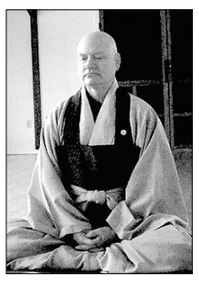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 관음정근 중인 수련회 참가자들.

## 美 전역서 기독교인 30여명 모여 마음공부
## 새벽예불 끝내고 좌선과 경행 '참나 만나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로 사방이 얼어붙은 듯 고요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덴스 젠센터(선원장 대광)의 아침. 1월 17일 오전 4시 45분, 새벽 예불(Morning Bell Chanting)의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회색 적삼을 차려 입은 미국인 불자들이 조용히 법당인 달마룸에 모여들었다.

영문 삼귀의와 108배, 잠시 숨을 돌린 후 지심귀명례,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봉독이 이어지고 불자들은 영문 반야심경을 읽으며 새벽 예불의 의미를 되새긴다.

"Avalokitesvara Bodhisattva when deeply practicing the Prajna Paramita…."


선원장 대광스님

30여 분의 좌선이 끝나자 어느새 1월 17일의 아침이 선연하게 밝아왔다. 오늘은 한국 불교 참선 수행을 경험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30여 명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하루 동안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명상에 특별한 방법이 있냐고요?"

대광 스님이 바닥을 내려친다. 쿵!

"지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그쪽에 앉으신 분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얼마나 연습이 필요하죠?"(웃음)

"참선에는 기교나 방법이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게 명상이죠. 이제 시작해 보세요."

75년 켄터키 대학 교수 시절 숭산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87년 출가한 대광 스님. 그리고 메사츄세츠 주에서 온 케빈 헌터 신부. 두 성직자는 17일 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크리스천 부디스티 수련회(Christian Buddhist retreat)'를 열었다. 수련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20분 좌선과 10분 경행으로 진행됐다. 휴식 시간을 이용, 불교와 선(禪)에 대해 문답하는 기회도 주어졌다.


대광스님-케빈 신부와 문답하는 수련생들.

참석자들은 좌복 위에 가부좌를 틀고 두 손을 단전에 모은 채 자기 안으로 빠져 들어갔다. 20분의 참선이 끝나면 경행을 하고, 경행이 끝나면 좌선이 이어진다. 자기 안에 무엇을 찾는 모습에서 생사 문제의 답을 구하는 수행자의 의지까지 묻어난다.

"미국인들은 쇼핑몰에서 잡지 하나를 집어들 듯 너무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선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명상의 바늘구멍에 실을 꿰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처음부터 공을 멀리 날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습, 연습, 연습하는 거예요."

케빈 신부가 미국적 생활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은 명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명상이 세 시간, 네 시간째 이어진다. 처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20분간의 좌선도 쉽지 않다. 한 사람씩 합장 반배를 하고 일어나더니 사흘 전에 이곳에 와서 오늘 수련에 참석한 미셸도 힘든 표정을 짓는다. 불편한 듯 몇 번 자세를 바꾸더니 합장 반배를 하고 조용히 자리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녀는 "내 친구들이 명상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힘든 것을 직접 부딪히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던 생각이 어리석었던 것 같다"며 환히 웃었다.

수련의 마지막은 염불 정근을 경험하는 시간. 대광 스님이 '관세음보살 정근 '을 하자고 제안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온갖 소리를 잘 듣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에서 들리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자비심을 길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에 리듬을 탄 관세음보살 정근. 세상의 소리를 듣는 30여 수련생들의 마음에는 장벽이 없었다. 불교와 기독교,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있었다.

조계종 원로의원 숭산 스님(화계사 조실)이 1972년 로드아일랜드 주에 세운 프로비덴스 젠센터는 세계 관음선종(Gwan Um School of Zen)의 중심 사찰이다. 대광 스님이 선원장격인 가이딩 티처, 종해 스님이 주지를 맡아 각종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프로비덴스 젠센터는 매해 미국인 불자 중심의 동안거, 하안거 결제 수행, 이틀간 진행되는 용맹정진, 바쁜 도시인들을 위한 '마음(Heart) 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제에는 일주일 단위 입제가 가능하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아침, 저녁 예불에 참가하며 1박을 할 때마다 30 달러, 기타 수련에 참가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프로비덴스=강유신 뉴욕특파원

크리스천 불교 수행 가이드
케빈 헌터 신부

## "불교, 기독교 명상수행 복원에 도움 줄 것"



"불교는 서양의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1월 17일 프로비덴스 젠센터에서 종교간 명상 수련을 지도한 케빈 헌터 신부는 "15, 16세기 과학의 발달에 따라 서구사회 속에서 합리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것들은 사라지거나 약화됐다"며 "그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 속의 명상 수행도 소멸되거나 작은 그룹 차원으로 고립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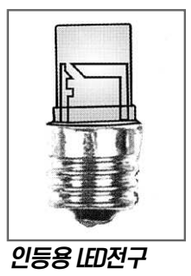
케빈 신부는 "그러나 불교는 다양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등의 선불교는 강한 수행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 명상 수행은 기독교의 명상 수행 복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세기 미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적인 미국인의 삶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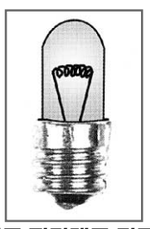
케빈 신부는 70년대 조수아 사사키 스님을 만나 불교를 배우고 명상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다양한 부디스트 크리스천 수련 모임의 지도는 물론 종교간의 대화와 교환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85년부터는 홍법원과 인연을 맺고 크리스천의 불교 수행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


#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2266-9098,7550 FAX :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 kibosa@kornet.net



#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현장속으로

제1회 오쇼 사마디 페스티벌 & 심포지엄

# '오쇼 명상' 부활을 꿈꾼다

## 라즈니쉬 열반일 맞아 국내 첫 축제 열려
## 춤 음악 침묵 속에서 70여명 에너지 교류

80년대 초반부터 책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 그러나 오쇼의 명상법을 실제로 행하는 이는 많지 않았고, 관련 명상센터도 소수에 의해 근근히 맥을 이어오는 정도였다.

그러했던 오쇼 명상이 부활의 계기를 맞았다. 국내의 산야신(라즈니쉬의 제자)들을 비롯한 오쇼 매니아들이 OSKA(Osho Sannyas Korean Association: 약칭 오스카)를 설립, 오쇼 관련자들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축제를 기획했다. 오쇼의 열반일(1월 19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오쇼 관련자 70여명이 참가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 원주 피라밋 명상원에서 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행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삿상' 과정 중 침묵을 통해 스승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참가자들.

### 오쇼 오쇼 오쇼! 삿상 절정

▲만남과 축제=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17일, 피라밋 명상원의 150평 대형 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시브, 스미타 등 낯선 이름을 부르며 포옹하는 이들 뒤로 오쇼의 사진을 담은 대형 플래카드가 보이고, 축제 분위기 고양을 위해 달아맨 파티용 풍선이 옅은 불빛에 끊임없이 반짝였다.

첫 프로그램의 시작은 스승과의 삿상. 이는 진리와 하나가 된 스승 가까이 앉아 있는 시간으로, 스승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기 위한 순간이다. 참가자들은 '음악과 함께하는 춤'과 '얼어붙은 침묵'을 교대로 진행하며 스승과의 교감을 시도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악은 점차 격렬해지고 '오쇼'를 3번 외치며 삿상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3번의 웅장한 북소리로 일련의 과정을 마감한 후에는 오쇼의 강의비디오를 시청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요가치료학을 전공하는 김복태 씨는 "운집된 군중 에너지에 자발적으로 고조된 자체 에너지가 결합돼 색다른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자못 신기해했다.

이후 아프리칸 댄스, 탄트라 명상 등에 젖어들며 나눔은 한층 깊어졌고, 설경에 기대어 체험에 기반한 명상을 논하는 소리 또한 진해져 갔다.

### 카타르시스 체험시간

▲아침을 맞는 춤명상= 아침 7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쏟아내리는 볕을 맞이하며 다이나믹 명상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격렬한 호흡'과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몸짓표현'에 이어 몸속의 깊은 울림을 "후!후!후!" 소리로 끌어올려 에너지 고양에 전력을 다했다. 숨소리는 점차 거칠어지고 몸의 구석구석에서 진한 땀이 배어나왔다. 그러나 모든 동작을 멈추고 침묵과 함께 얼어붙었을 때 스스로를 관하는 마음을 얻게됐다. 마음수련 등 명상센터 강좌를 두루 체험했던 이현주 씨는 "카타르시스를 허용함으로써 상념의 정지를 도울 수 있었다"며 "이른 아침 다이나믹 명상은 마음의 건강과 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춤명상 시간에도 이어졌다. 이 시간은 온몸의 세포를 일깨우는 걷기명상으로 시작, 차츰 격렬해지는 명상음악에 따라 모든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몸짓을 이끌어냈다. 몸의 표현에 익숙해진 이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표현까지 피어올랐다. 행사를 이끈 최항식 씨는 "테크닉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를 통해 몸의 이해와 각성을 끌어낼 수 있다면 오쇼 명상은 가장 실천적인 명상 수행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OSKA 문화운동 이끌어야"

▲오쇼명상을 심도있게 논의= 심포지엄 시간에는 김진묵(음악평론가) 씨의 '오쇼와 뉴에이지 문화', 최항식(전 니케타나 센터 원장) 씨의 '현실 속에서의 삶과 명상'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손민규(명상나라 대표) 씨는 '오쇼관련 출판 문화'를 발표, 오쇼 출판물의 출간 및 번역 현실을 토대로 국내 오쇼 명상의 총체적인 문제를 이끌어내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 같은 논의는 OSKA발족을 얘기하며 보다 심도있게 진행됐다. 손민규 대표는 "OSKA의 구심점은 비산야신이 돼야한다"며 "뿌나 아쉬람 문화 안에 갇힌 산야신들이 폐쇄적 태도를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오쇼 명상모임이 문화적인 운동(movement)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주=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오쇼 라즈니쉬는?**



1931년 인도에서 태어나 21세의 나이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명상가. 현대인들을 위한 다이나믹 등의 동적명상법을 개발, 70년대 이후로 세계 각국 구도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또한 동양 명상에 대한 통찰과 서양 정신요법을 결합한 치료집단을 창설해 주목을 받았다. 74년 설립된 인도 뿌나의 코뮌(공동체)은 현재까지 구도와 명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 "명상하면 건강해진다" 美 의학계 잇따라 발표

명상이 건강을 증진한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저 월쉬(Walsh)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항우울 작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명상을 통해 사람들은 인내력을 증가시키고 자극적인 생각에 방해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정신과 신경증(Journal of Mental and Nervous Disorder)>에 게재됐다.

최근 미국심장학회의 회의에서도 초월명상(TM)이 대사장애 증후군들의 위험요소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LA 세달스 시나이 메디칼센터 노엘 베일리(Dr. Noel Bairey Merz) 박사는 "초월명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 혈당치와 인슐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디아나 주립대 제인 크리스텔러(Jean Kristeller) 교수는 "위빠사나의 '마음챙김' 명상은 거식증 환자들이 식사습관 회복을 도와, 언제 먹고 언제 그만둘 것인가를 몸과 마음이 알게 한다고 밝혔다. 미국=강유신 뉴욕특파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혜 스님 (上)

# 불광산 교육체계 세워

1992년 11월 8일, 대만의 주요 일간지와 영자지에 눈길을 끄는 사진 하나가 실렸다. 장삼을 걸친 단아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사법원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이등휘(李登輝) 총통과 악수하는 장면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비구니 스님이 총통과 악수를 하고 매스컴의 찬탄을 받는지 의아해 했다. 그는 다름 아닌 제 2회 중화민국사회운동상 시상식장에서 사회개선에 앞장선 걸출한 인물로 선정되어 상을 받은 불광산 문교기금회집행장(文教基金會執行長)인 자혜(慈惠) 스님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랐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앞다투어 보도했다.



### 성운대사 만나 불교에 귀의
### 대만 최초의 석사 비구니

중국은 송 · 명시대 이후 통치계급의 지지를 받은 성리학에 밀려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불교는 속세와 등지고 은둔해 염세적인 종교로 오해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대만 불교는 일제강점기의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타락의 일면조차 보여 지식인들에게 미신으로 폄하되기도 했으며 스님의 자질 또한 높지 않아서 생활 유지의 차원에서 승려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자혜 스님의 수상 소식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과거 40여년 동안 자혜 스님이 보여준 홍법이생(弘法利生)과 문화, 교육 방면에서의 활동을 돌아보면 이러한 수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혜 스님은 1934년 대만 이란(宜蘭)에서 태어나 65년 먀오리(妙栗) 법운사(法雲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속성은 장(張)씨로 상당히 개화된 집안에 태어나, 그 당시로서는 여자로서 입학이 쉽지 않았던 난양(蘭陽)여고를 졸업했다. 1953년 성운 대사가 이란에 주석할 당시 자혜 스님은 여고를 졸업하고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른바 무엇하나 부족할 것 없는 엘리트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자혜 스님이 어떻게 불광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당시 성운 대사는 이란에서 염불회와 각종 청년회 활동을 이끌고 있었는데 자혜 스님도 거기에 동참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 가끔씩 핑계를 대고 빠지기도 했지만, 점차 성운 대사의 인품과 박식함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성운 대사를 따라 강연회에 참석하면서 그의 중국어를 대만 본토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1965년, 정식으로 출가하게 되었다. 불교에 대해 회의를 갖고 접근했던 한 신여성이 비구니가 되기까지에는 10여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출가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불교의 큰 바다에 빠져들면서 스스로의 확신에 의해 귀의했음을 말해준다.

1967년 자혜 스님이 성운 대사를 따라 불광산의 터전이 된 까오슝 대수향(大樹鄕)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스님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모레를 나르고 돌을 옮기며 불광산 창건에 신심을 바쳤다. 그러한 혹독한 고행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불광산과 자혜 스님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성운 대사는 '인간불교'를 구상하면서 교육, 문화, 자선, 법회라는 네 개의 큰 기둥을 세웠다. 그 가운데서 자혜 스님은 교육과 문화의 두 가지 중책을 맡았다. 자혜 스님의 그릇을 알아본 성운 대사는 이러한 대임을 맡기기 위해 불광산 개산 초기의 어려운 시기에 이미 스님을 일본 오다니대학(大谷大學)에 보내 유학하게 했다. 그 결과 대만에서는 비구니로서 최초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귀국 후에는 불학원의 강의를 맡으면서 불광산 자체의 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인 승가교육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계속)

김재경 기자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본인의 눈으로 전생 및 빙의여부를 직접 확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직접 대화,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전생·빙의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수행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적체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편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윤회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선할 때마다 밀려들던 번뇌, 망상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00사 00 합장

교육내용

- 전생퇴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 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 영가천도 실기 :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증세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제 3자를 통해 영가확인 및 원격치유
- 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함.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大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교육기간] 1회 : 2월 9일(월) 오후 12:30 ~ 오후 9:00까지
2회 : 2월 10일(화) 오전 10:00 ~ 오후 8:00까지
3회 : 2월 17일(월) 오후 12:30 ~ 오후 8:00까지
4회 : 2월 24일(월) 오후 12:30 ~ 오후 8:00까지
총 4 회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접수 후 입금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장강의 가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 주장자따라…

⑤ 혜월 스님의 '문자'

조태호




**혜월 스님**(1861~1936): 충남 예산生. 열살때 정혜사에서 혜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경허 스님께 전법게 받음. 전국 선원서 정진하며 후학지도하다 부산 안양암에서 원적

## 네티즌 교리문답

# 무위법, 무위 세계의 의미는?

**문** 무위법, 무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선 해설서에는 '함이 없는 법, 함이 없는 세계'라고 풀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ID '박종윤')

**답1** : 불자님의 마음속에 '아, 이것이구나' 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위법. 즉 작은 단지 속에 물은 적어도 출렁입니다. 물이 출렁이지 않으려면 물을 완전히 비우세요. 그런 다음 단지마저 깨뜨려 버리세요. (ID '법설')

**답2** : 모든 세상사가 이미 함이 없는 '무위법(함이 없는 법)'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의해, 나를 위한, 즉 '나'라는 에고(我相) 때문에 무위법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 입니다. (ID '김명상')

**답3** : 무위(無爲)는 선(禪)적인 차원이지 교학(敎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유위(有爲)로 인해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위적인) 노력은 내 팽개쳐라. 단지 조용히 앉아 있어라. 그리고 내면을 보라. 보고 있는 그놈이 그대가 찾는 그 놈이다. (ID '태양성')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선의 세계 ㉙

# 불립문자(不立文字)-2

## 언어는 탐욕·분별 담긴 표현의 수단일뿐

언어는 워낙 분별의 기제라는 것이 불교의 언어관이다. 게다가 그 분별은 진상을 충실히 가려내는 분별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반영된 자의적인 분별이라고 본다. 더욱이, 일단 어떤 사물에 자의적인 분별을 담은 말을 갖다 붙으면 우리는 그만 그 말에 휘둘려서 그 말을 통해서 사물을 재단해 버린다. 선불교는 그런 입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으며 그것을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구호이다.

사물에 이름이 없었을 때를 상상해보자. 17세기 영국 시인 존 밀턴(John Milton)의 서사시 <실락원(Paradise Lost)>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에 낙원을 마련하고는 인간을 만들어 거기에서 살게 하였다. 모든 것이 처음인지라 사물에도 이름이 없었으리라고 밀턴은 상상하였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완벽한 낙원에서 편안히 지내며 낮에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로 소일한다.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 함은 사물을 서로 구분하는 일이다. 다르게 생긴 꽃을 보고 각자 장미라는 이름과 국화라는 이름을 붙였을 텐데, 그 이름으로 인하여 장미라는 이름의 꽃과 국화라는 이름의 꽃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고착된다. 이름 붙이기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그런 단순한 구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인간 의식이 지어내는 한 없이 복잡한 분류체계를 반영한다. 장미, 국화, 민들레, 개나리, 진달래 등은 꽃이라는 개념으로 묶이고, 버드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은 나무로 분류된다. 꽃과 나무, 풀은 모두 식물에 속하고 동물 및 광물과 구분된다.

그러고 보면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의사소통은 모두 그런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분류체계와 이름이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된 분류체계와 이름, 나아가 거기에 관습적으로 부여된 의미라든가 가치판단을 그대로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적어도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

우리는 대개 언어란 우리의 체험과 인식, 판단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여긴다. 한 마디로 우리의 사유를 표현하는 도구로 본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역설한다. 언어는 우리의 사유를 규정하는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사물에 어떤 특정의 이름이 붙은 것은 필연적이 아니라 다분히 임의적이라는 점, 이름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의 고유한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이름과의 구별에서 나온다는 점도 현대 언어학에서 역설한 바이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말은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버드나무를 가리키며 '저건 나무야'라고 말할 때에는 산이나 물, 건물 같은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나무를 말한다. 한편, 책상을 가리키며 '저건 나무야'라고 할 때에는 철제나 플라스틱이 아닌 목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그 자체가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류체계의 문맥 속에서만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한정된 역할을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수호일체성 주야신의 법문

# 부처님 가르침 음성으로 표현해 제도

## 법계 올바로 관찰, 깨달음의 행 실현

선재동자는 적정음해 주야신의 소개를 받고 '모든 성을 수호하는 주야신(守護一切城主夜神)'을 찾아간다. 그 주야신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나서, 보살들이 보살행을 닦을 때에 어떻게 중생을 이익케 하고, 가장 훌륭하게 중생을 거두어 주는지를 물었다.

이에 주야신은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매우 깊고 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甚深自在妙音解脫)'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큰 법사가 되어 거리낌 없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잘 열어보이며, 중생을 이익케 하는 모든 일을 지어서 선근을 쌓는 일을 쉬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지도하는 스승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일체지(一切智)의 도에 머무르게 하는 등등의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으로 중생에게 베푸는 것은 선법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게 하며, 온갖 지혜의 도를 돕는 법(助道法)을 모아서 마음에 항상 온갖 지혜의 지위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야신이 말하고 있는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의 경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표현해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주야신은 이 해탈을 얻음으로 해서 큰 법사가 되어 아무런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모든 부처님의 법장(法藏)을 열어보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선법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을 얻어서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야신은 그 내용을 주로 열 가지의 법계 관찰과 열 가지의 큰 위덕이 있는 다라니 바퀴(陀羅尼輪)를 가지고 나타내 보이고 있다. 주야신은 먼저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은 깨끗한 법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여 선근과 도를 돕는 법을 모으게 할 때에 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설하고 있다.

그 내용은 광대한 지혜를 얻어서 법계가 무량하고 무변함을 아는 것,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서 여러 여래에게 공경하고 공양할 수 있기 때문에 법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여래의 한결같은 음성을 모든 중생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법계가 한 성품(一性)임을 아는 것, 여래의 서원이 모든 중생을 두루 제도한다고 하는 것을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법계의 성품이 깨끗함을 아는 것, 보현의 묘한 행이 일체에 두루하기 때문에 법계가 중생에게 두루함을 아는 것, 보현의 묘한 행이 널리 장엄하기 때문에 법계가 한 가지로 장엄함을 아는 것 등이다. 주야신은 "이 열가지로 법계를 관찰하여 선근을 모으며, 도를 돕는 법을 마련하며, 부처님들의 광대한 위덕을 알고, 여래의 부사의한 경계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설하고 나서, 주야신은 다시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여 여래의 열 가지 큰 위덕이 있는 다라니바퀴를 얻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설하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는 다라니바퀴 ? 모든 법을 두루 지니는 다라니바퀴 ? 모든 법을 두루 말하는 다라니바퀴 등이다.

주야신은 "이 열 가지는 일만 다라니바퀴로써 권속을 삼고 항상 중생에게 묘한 법을 연설한다"고 하면서, 중생에게 듣는 지혜(聞慧), 생각하는 지혜(思慧), 닦는 지혜(修慧)의 법 등을 갖가지로 말해서 불가설 법문으로 중생에게 얘기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로써 법문의 한 단락을 마무리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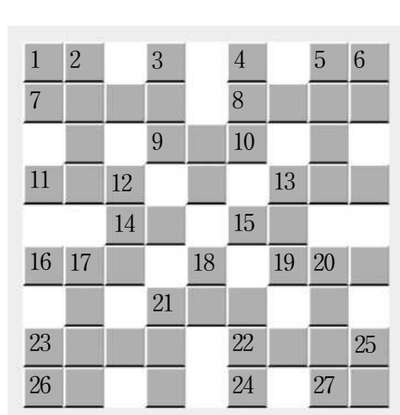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차별 없는 법계문바다에 들어가서 위없는 법을 말하여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한다. 나는 '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해탈'을 성취하였으므로 잠깐잠깐마다 온갖 해탈문을 증장하며, 해탈의 경계를 수습(修習)하는 하나 하나의 방편에 의해 잠깐잠깐마다 모든 법계에 편만한다."

수호일체성 주야신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해탈' 법문은 무엇보다도 법계를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어야 선근을 모으고, 부처님들의 광대한 위덕을 알고 부사의한 경계를 알게 되어 갖가지 법으로써 중생에게 묘법을 설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일체의 세계에서 두루 널리 깨달음의 행을 실현해 보이는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해탈법문은 모든 존재의 실상(實相)을 진실되게 이해해서 그것을 묘한 법문으로써 자유자재하게 꽃피워냄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식의 이름이 '모든 성을 수호하는 주야신'인 것은 경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주야신이 "무명에 가려서 생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밤과 같은 윤회의 어두운 삶 속에 있는 중생들 중에 홀로 깨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의 성(心城)을 수호하고 삼계(三界)의 성을 버리게 하여 온갖 지혜의 위없는 법의 성(法城)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절에서 의식할 때 치는 기구 5.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7.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는 뜻 8.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 9. 답을 서술식으로 쓰는 문제 형식 11. 지구 밖의 다른 천체에서 온 사람 13. 아들의 양녀 14. 공적인 일 15. 나라나 임금을 배반하여 군사를 일으킴 16. 참다움, 착함, 아름다움을 아우르는 말 19. 부처님의 교법을 법륜이라 하고 교법을 설하는 것을 뜻함 21.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 23. 뜻을 이루어 뽐내며 거들먹거림 24. 한국 상고의 단군조선을 대통일 민족국가로 서술한 역사책 26. 좋은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품종을 개량하는 일 27. 문장의 단락.

**세로** 1. 양치는 아이 2. 책상 위에 올려 놓고 보는 시계 3. 고려말 충신으로 호는 포은 4. 관공서 등에서 새해 업무를 보기 위해 행하는 의식 5. 자손의 여러 대 6. 우리나라 제 2의 도시 10. 관직에 있는 사람 12.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움 13. 조선 정조 때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한문 소설 17. 조선시대 회불정책의 일환으로 선종과 교종을 폐합한 것 18. 망을 보기 위해 세운 높은 다락집 20. 법률에 대해 자문하는 직무 21. 아니할수 없는, 마지못해 22. 나한을 모신 전각 23. 돌보아 길러 자라게 함 25. 건축물이나 비석 따위의 기초가 되는 단.

# ‘아줌마 논객’ 도덕경 풀어내다

인터뷰 도덕경 완역서 낸 이/경/숙 씨

## “왕필 이후 2500년간 나온 번역서 모두 오역 ‘충격’ 원문 모두 직접 번역 학자들 내 책 참고하게 될것”





**이경숙은 누구**

1960년생인 이경숙씨는 3년 전 〈노자를 웃긴 남자〉를 펴내 도올 김용옥 교수를 매섭게 몰아붙여 오프라인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1999년 출판한 종교 서적 〈마음의 여행〉도 인터넷에 연재하다 우연한 기회에 〈정신세계사 과학총서〉로 출판된 것. 현재 그녀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름카페(http://clouds.or.kr)에서 〈육아일기〉, 〈기란 무엇인가?〉, 〈개천록〉, 〈황제〉, 〈근대 해전사〉 등을 연재하고 있다.

누가 진정한 노자의 제자일까?

3년전 TV강의로 유명세를 날리던 도올 김용옥씨를 〈노자를 웃긴 남자〉란 책을 펴내며 신랄하게 비판해 화제를 모았던 ‘아줌마 논객’ 이경숙씨(44)가 새 책을 내놓았다. 책 제목은 〈완역 이경숙 도덕경〉(전 2권). 지난번 책 〈노자…〉가 20장까지의 책을 번역한 ‘도올의 저격용’이었다면 이번 책은 순수한 교양 학술서다. ‘도경’과 ‘덕경’으로 나눠 총 81장의 〈도덕경〉을 기존의 해석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야말로 ‘이경숙식’으로 완역했다.

이번 책 출간으로 학자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녀는 “컴퓨터 엔지니어인 남편 김관흥씨(46)와 고3, 초등 6년생인 두 딸을 두고 있는 전업주부일뿐”이라며 ‘아줌마 논객’의 자리를 고집했다.

### 중학시절 경전 베껴 쓰면서 한문 읽고 해석하는 눈 떠

▲MBC에서 방송특강을 재개한 김용옥 교수를 의식해 출간 시기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가.

–이 책은 순수하게 완역에 목적을 두었다.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처음에 〈도경〉을 먼저 번역해 원고의 절반은 2년 전에 이미 출판사에 넘겼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덕경〉을 지금에야 완역했을 뿐이다.

▲얼핏 책을 훑어 보아도 한문은 물론 동양학 전반에 관한 내공이 돋보인다. 평범한 아줌마가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 고전을 번역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 정말 한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간다. 다시 말하지만 동양학이나 한학에 관한 전통적 교육과정을 밟은 적이 없고, 스승도 없다. 다만 중학교 시절부터 불자인 어머니를 따라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불경과 함께 〈도덕경〉을 베껴 쓰면서 한문 읽는 눈을 조금 뜬 것이 전부다. 처음에는 의미도 모른 채 그림 그리듯 따라 해보다가 어느정도 시기가 되자 자연스럽게 뜻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감각이 몸에 배게 됐다.

▲한문 문법이 번역하면서 큰 문제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는 〈노자를…〉의 독특한 화법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던 동양학자들도 지금은 대체로 이씨의 ‘파격적 문법’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시중 서점에 나가서 문법에 맞춰 해석했다는 〈도덕경〉이나 〈노자〉의 책들을 살펴보라. 오히려 번역의 일관성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도덕경〉은 한문 문법이 성립되기 이전의 책이다.

학자들이 후대에 형성된 문법의 틀에 맞추려다 보니까 노자의 본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내가 비난한 도올뿐 아니라 왕필(王弼) 도덕경 이후 2500년 동안의 번역과 해설이 모두 잘못된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 원문을 직접 번역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오역과 해설을 모아서 다시 책으로 엮으면서 오역의 역사가 반복돼 온 것이다. 나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원문을 직접 번역했다. 그래서 앞으로 노자 관련 책을 쓰는 학자는 내 책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렇다면 이번 책에서 지은이가 왕필 이후 잘못 읽고 있다고 들이댄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

### ‘백독불여일필’이라 생각 책속에 따라쓰기란 만들어

–도덕경 81장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1장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도를 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이름이 도인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이름으로 이름 불일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 이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뇨’라고 해석한 것이나, 10장의 ‘載營魄抱一 能無離乎(재영백포일 능무리호)’를 ‘온 나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것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기존 해석과 크게 다르지만 이해가 훨씬 쉽다.

▲〈도덕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인가?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특히 겸손과 하심을 강조한 책이라고 본다. 요즘 같이 혼탁한 시대에 정치하는 이들이 보면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저자로서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체계적 한학 수련 없이 불경을 필사하면서 깨달은 한문 해석 비법의 한 가지가 바로 ‘백독불여일필(百讀不如一筆)’이다. 눈으로 따라 읽을 때에는 의미가 불분명했던 것도 한 번 직접 써보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직역과 자구 해석, 친절하고 재미까지 곁들인 주는 물론, 꼭 해당 구절을 써보도록 따라 쓰기란을 만들었다. 꼭 한번 써 보길 바란다.

▲고전 번역을 계속할 생각인가.

–도덕경을 가볍게 이야기한 에세이와 손자병법 책이 올해 안으로 나온다. 손자병법은 병법에 관심을 가진 터라 전부터 꼭 번역해 보고 싶은 책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실력이 된다면 불자인 만큼 불경 번역도 해보고 쉽다. 그래서 이런 원력을 실현시키고자 틈만 나면 집 인근에 있는 마산 불곡사를 비롯해 명찰 들을 순례한다. 명상 펴냄/각 권 1만8천원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전문가 서평



**정신과 영수증**
정신 지음
영진출판사/ 8천8백원

‘I SHOP therefore I AM!(내가 소비하는 것이 나를 말해준다)’

최근에 정말 기획력이 돋보이는 책을 만났다. 〈정신과 영수증〉. 월간 〈PAPER〉에서 가끔 보던 글인데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처음엔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청춘이 정신과를 드나들며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속에는 참 무릎을 치게 하는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산 물건과 영수증을 꺼냅니다. 물건은 제 자리에 놓아두고, 영수증은 꺼내어 시간과 가격, 장소 위에 자신의 기록을 더해 갑니다. 그것을 살 때의 기쁨과 슬픔, 그날의 날씨,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한 사람들과 들려오던 음악에 관하여…. 그녀가 스물여덟 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서른 살 쯤에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 동안 가져왔던 것과는 또 다른 영수증을 가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은가! 휘리릭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책이지만, 그 어떤 기록보다 우리시대 한 사람의 인생을 가감없이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수증’과 자기자신 ‘정신’을 결합해 〈정신과 영수증〉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저자가 참 부럽다.

### 소비성향으로 나를 본다?

#### 카피라이터가 쓴 영수증 일기

SK텔레콤의 ‘june’과 KTF ‘Drama’의 네이밍을 하고 광고 카피를 쓰기도 했던 정신은 이지아, 김율원, 사이다 이 세 사람의 친구와 함께 한 추억들을 영수증을 매개로 일기 쓰듯이 차곡차곡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다. 편의점의 아이스바 영수증에서 영화 티켓, 파리행 비행기 탑승권 영수증까지 저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꺼이 돈을 지불한 다양한 영수증의 사진과 글을 통해 스물다섯 인생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전시되고 있다.

‘I SHOP therefore I AM!’ 미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바바라 크루거가 자신이 제작한 포토몽타주에서 데카르트의 명제에 빗대어 한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화를 풍자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만큼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반영하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오호~!’ 했던 말이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소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록! 영수증으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정신과영수증은 참 기발하고 정직한 자기기록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아 짤막한 메모와 함께 영수증 일기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직업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사람마다 참 다양한 영수증 히스토리북이 만들어질 것 같아 생각만해도 재미있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를 소개할 때도 최근 6개월간의 소비내용 증명으로 영수증 기록장을 필수 구비서류로 요구한다면 어떨까? 그 사람의 취미와 인간관계, 성격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아닐는지? 만약 당신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라면 오늘이라도 상대방에게 건강기록부와 함께 영수증 기록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해보자.

김상아 비욘드마케팅그룹 디지털콘텐트 팀장

◇457호 21면 전문가 서평의 필자는 김남형 홍익대 강사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누락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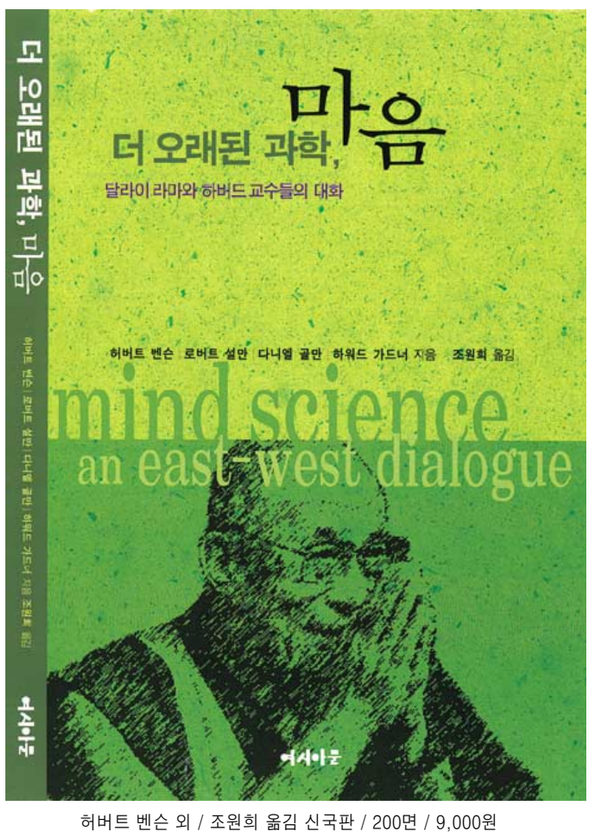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 · 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mind science

☞ 법보시 연락은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 덕암 스님이 걸어온 길

**덕암 대종사 법어집** 김기훈 엮음

**꽃은 뜰 속에서 웃고 새들은 창 밖에서 노래하네**

활안 스님 엮음

불교정신문화원 / 각권 3만원



지난해 11월 원적에 든 전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의 법어집 두 권이 출간됐다. 불교정신문화원이 펴낸 <꽃은 뜰 속에서 웃고 새들은 창 밖에서 노래하네>와 <덕암 대종사 법어집>은 각각 스님의 49재와 백일재를 기념해 선보인 책이다.

<꽃은…>에는 스님의 생애와 행장, 사진, 오도송, 상당법어 그리고 저서 <불교신앙의 바른 길>과 <대승보살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담았다. 전 태고종 종정 보성 스님과 원효종 종정 법홍 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0여 명이 쓴 '내가 아는 덕암 스님'에서는 스님이 평생 마련한 6억 원을 서울 법륜사 건립불사 기금으로 내놓은 일이나 인도 성지순례로 쿠시나가라성 부처님 다비장에서 1시간 이상을 오열한 일화 등을 생생히 볼 수 있다.

<덕암 대종사 법어집>에는 신문과 잡지 등에 실린 스님의 대담 기사와 저서 <불교 기초 교리>, <인도 성지순례기> 등을 실었다. (02)969-2410

## 마음바탕 알고 싶다면…

**선과 깨달음** 박건주 지음 / 운주사 / 8천5백원



"어떻게 함이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까(何爲無分別)?" "(일체)법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於法不生心)."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박건주 교수의 <선과 깨달음>은 박 교수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선종의 심지법문(心地法門, 마음바탕 법문)과 1900년 돈황에서 발견된 선종법문에 해설을 덧붙여 책으로 펴내는 첫 번째 결과물이다.

박 교수는 "육조혜능 스님 이후 선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선사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낯익은 반면 초기 선사들의 목소리는 아직 낯설다"며 "초기 선사들의 심지법문은 간단하지만 그 자체로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종의 역사를 고찰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본문과 해설을 합친 분량이 40여 페이지가 채 안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달마선의 요지를 명료하게 담고 있는 <심명>은 심지법문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심명>을 지은 우두법융(牛頭法隆, 594~657)의 생애와 우두종의 법계를 소개하고 본문을 풀이했다.

이 밖에도 1900년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절관론>과 달마선(達摩禪)의 진수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현종기>를 비롯해 선법과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달마대사의 법문인 <이입사행론>과 <안심법문> 등에 관한 설명과 본문 해설이 담겨있다.

#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마무리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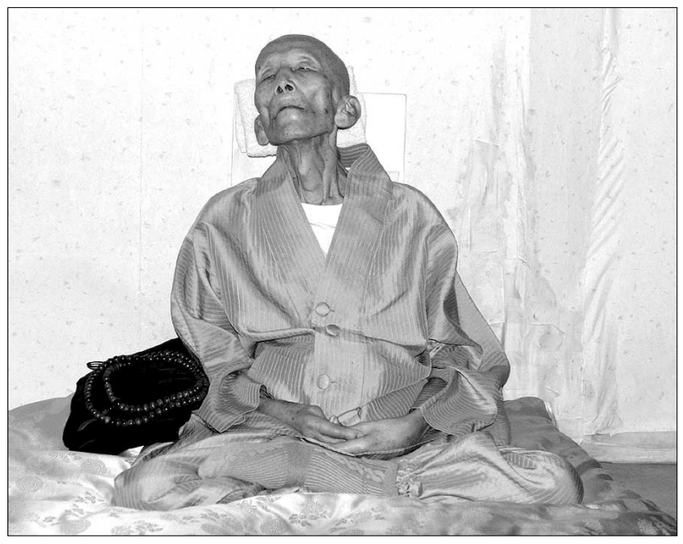
나왕 겔렉 린포체 지음 / 정승석 옮김

초당 / 9천원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오진탁 지음

청림 / 1만원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해 12월 원적에 든 서옹 스님의 열반은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세인들의 가슴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서옹 스님의 좌탈 모습.

죽음은 삶의 거울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지난해 12월 좌탈에 든 서옹 스님이 세인들의 가슴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도 수행자로서의 스님의 생애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선보인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과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은 이처럼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침서다.

달라이 라마의 조카이자 티베트 라마인 나왕 겔렉 린포체가 지은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은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생사관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 전체는 네 가지 상태, 즉 삶과 죽어가는 과정, 죽음, 죽음 이후 그리고 환생으로 나누어진다. 죽음이 삶과 반대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일 따름인 것이다. 때문에 지은이는 책에서 죽음에 대비해서 해야 할 최선의 것은 인내와 자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매일 실천한다면 죽음에 직면할 때 당황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한 차례의 삶에서 사용한 몸이 매번의 삶에 동반하는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을 나의 분노와 집착 그리고 자아를 쉬게 하는데 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 역시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록 임종시에 후회할 일은 그만큼 적어진다"며 "자비심을 계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지은이는 책에서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순간의 불편이나 불만을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나 행동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므로, 심기가 불편해질 때면 마음을 관찰해보라고 말한다. 또 자신을 '가장 소중한 자'로 인식하고 남은 시간동안 부처님처럼 깨달은 존재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수행할 것을 권한다. '명상하는 법'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기', '마음 치료하기'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법도 소개한다.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을 펴낸 오진탁 교수(한림대 철학과) 또한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올바르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생사학(生死學)'을 연구하고 있는 오 교수는 "삶과 죽음 혹은 생성과 소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진행되는 영원한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티베트 라마와 한국 生死연구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방법**

책에서는 학원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초등학생과 지하철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비롯해 안락사와 낙태, 자살, 사형, 에이즈 등 아홉 가지 주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죽음과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오 교수가 말하는 '이상적인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어가는 사람은 대체로 여섯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죽음을 부인(否認)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위 사람에게 화를 내는 단계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삶의 마무리' 단계를 맞이합니다. 이어 우울의 단계를 지나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죽는 것이야 말로 '이상적인 죽음'이 아닐까요?"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이 현재 행하는 행위를 면밀히 관찰하라'는 <티베트 사자의 서>의 가르침처럼,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커다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성장'의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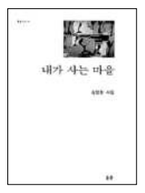
## 새로나온 책



■ **<명문종가 이야기>**(이연자 지음, 컬처라인, 1만8천원)=오랜 전통의 종갓집 살림과 종갓집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사라져 가는 우리 생활문화를 되살리려는 이연자 우리차문화원장이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전국의 명문 종가 18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취재한 기록이다. 진보 이씨 퇴계 이황 종가와 사육신 중 유일하게 대를 잇고 있는 박팽년 종가를 비롯, 고성 이씨 귀래정파 종가, 안동 김씨 정헌공파 해헌 종가 등 종갓집의 내림음식 비법부터 생활문화까지 대물림 해 온 전통이 담겨 있다.



■ **<거지성자 1, 2>**(전재성 지음, 안그라픽스, 각권 8천5백원)=1999년 발간됐던 <거지성자>와 2000년 선보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가 상·하권으로 재편집돼 나왔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인 지은이가 독일 유학 중에 만난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와의 7년간의 교유와 거기에서 배운 깨달음을 담고 있다.



■ **<내가 사는 마을>**(김정운 시집, 들꽃, 5천원)="입고 벗은 옷 수십 벌이고/ 안 입는 옷도 있지만/ 여적지 벗지 못한 옷/ 두 벌 반이다."('옷' 전문)

현대불교문인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김정운 씨의 시집. 그의 시는 "불교적 신심을 바탕으로 신산한 삶의 바다 위를 지혜롭게 건너가려 애쓰는 치열한 구도 정신을 보여주며(고명수 시인)", "시적인 화두는 철학적 문답이기보다 더 인간적인 통찰력에 뿌리를 두기에 여운을 갖는다(성춘복 시인)."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가장 행복한 공부 | 청화 스님 | 시공사 |
| 2 | 수행의 단계 | 달라이 라마 | 들녘 |
| 3 |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 이르는 길 | 달라이 라마 | 경성라인 |
| 4 | 생활 속의 기도법 | 일타 스님 | 효림 |
| 5 |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 대림 스님 | 초기불전연구원 |
| 6 | 운명을 뛰어넘는 길 | 김지수 | 불광 |
| 7 |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 틱낫한 | 장경각 |
| 8 | 완벽한 참선법 | 우학 스님 | 좋은인연 |
| 9 |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 혜봉 거사 | 불광 |
| 10 | 밥상에 도가 있다 | 정세채 | 모색 |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사
2004년 법기사 겨울 수련회
3박 4일간의 출가
TEL. 02-854-1848
www.bubkisa.or.kr
장 소 : 경기도 양주군 도리산내 육지장사
기 간 : 2004. 2. 19.(목) – 2. 22.(일)
대 상 : 바른 불교 수행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참 가 비 : 일반 8만원 / 학생 6만원 (교통비 별도)
참가신청 : 홈페이지 및 선원 방문접수
수련주제 : 1. 나를 향한 꿈과 열정
2. 불교로 철학하기
3. 바른 수행을 향한 첫걸음
4. 체계적인 불교 수행
5. 그리고 영원한 대자유!
문 의 : 서울 02-854-1848, 부산 051-516-9104
011.9161.9532 / www.bubkisa.or.kr
주최 : 서울대학교 불교동아리 수행불교회 후원 : 법기사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당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치발란스 Dangchee Balance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천태종총무원장상)

향광행(서울시 수유3동)

# 세 자매의 부처님 <상>



그림 · 문병성

## 가난 때문에 가정 파탄, 3자매만 남아
## 지하방서 벌레 물리며 굶주린 생활
## "부처님,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숙명인지 운명인지 어쩔 수 없이 세 자매 어린 아이들을 기르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했습니다. 나라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을 빌어 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세 자매의 가정이 파탄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세 자매의 엄마는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데다 홀로 세 자매를 기르는 것에 힘겨워 하다 집을 떠났답니다. 그토록 예쁘고 천진한 세 자매 부처님을 두고요. 10살 윤녕, 8세 서임, 6세 지호를 두고서 울면서 울면서 그 아이 엄마는 그렇게 떠나고 말았답니다.

두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 엄마는 19세였고 아빠는 군인인 21세였답니다. 어린 나이에 무엇이 그다지 바빠서 결혼식이란 격식도 없이 세 자매를 생산했답니다. 어린 사람들이 자식들 기르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그만 시대를 잘못 만나서 헤어져야만 했답니다.

처음엔 그 세 자매의 엄마 아빠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아이만 낳고 살면 반대 없이 곧잘 살 줄 알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다 이 할미의 업이라 생각했지만 처음엔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한없이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수행이 부족한 중생인지라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이 불쌍한 세 자매 부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자매는 신발도 다 떨어져 엉망이었으며 옷은 더러워서 길거리 걸인 같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단칸방 생활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바퀴벌레는 득실거리는데, 아이들 온몸을 물어뜯어서 흉이 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피부 또한 성한 곳이 없어서 아이들은 가려워 긁다가 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밝고 부유한 시대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을 아무 곳에나 버려뒀습니다. 과자 부스러기와 라면 먹고 씻지 않은 그릇 때문에 바퀴벌레 천국이 되었지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의논도 없이 세 자매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나 시집간 딸자식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제 몸도 성치 못하고 칠순의 남편마저 뇌졸중으로 3년째 방안에 누워 계시는데, 그 아이들마저 어떻게 기르겠냐며 미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시설도 좋으니 그곳으로 보내자고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귀엽고 예쁘고 눈이 까막까막한 살붙이를 부모가 버렸다 해서 이 할미마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김치 한 조각 놓고 밥을 먹다가도 부둥켜안고 울며 뜨거운 눈물을 얼굴에 떨어뜨리면서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옷가지는 남에게 얻어다 입히고 신발도 깨끗이 빨아서 신기고 물을 데워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학교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만 보고 거짓말도 곧잘 했습니다. 고삐 풀어진 망아지마냥 길들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흉이 심하니 아이들이 놀린다며 학교 가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거지라고 손가락질 한다며 학교에도 안 가곤 했습니다. 개교기념일이라고 이 할미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부처님 이 불쌍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제 죄니 이 어린 새싹의 아이들께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매일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35번씩 읽고 발원했습니다. 한달에 1000번씩 외는 것을 생활화 했습니다. '이 어린 세 자매가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해주소서, 거짓말 하지 않게 해 주소서, 이 할미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고 참회의 기도를 매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밥상 앞에서 두 손 모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처님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이 밥을 먹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밥을 먹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거짓말 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고 제 나름대로 기도 발원문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 자매 부처님을 보살핀 지가 어언 5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 땡볕에 6세 아이가 어느 몹쓸 사람에게 끌려가 성추행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해 지금은 다행히 별탈없이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답니다. 이 할미가 보살피지 않았더라면, 아니 부처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그 어린 가슴에 상처를 입힐 뻔한 일이라 지금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지금은 우리 세 자매 부처님에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밖으로만 맴돌던 아이들이 집안에서 차분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할미가 서울 강남 포이동에 있는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다니는데, 녀석들이 매주 꼭 따라 다닙니다.

매주 목요일 밤이면 강의를 들으러 길을 나서는데 우리 예쁜 세 자매들은 그때마다 제 보디가드가 된답니다. 강의가 늦게 끝나 밤이 늦어서야 집에 오는데도 꼭꼭 따라다닙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십사 하고 마음속으로 발원했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화계사에 가서 어린이 법회를 봅니다. 이 할미는 지금도 매일같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35번씩 독송하고 우리 귀여운 세 자매를 위해 발원한답니다. '부처님 우리 귀여운 세 자매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가피를 내려 주십시오' 하며 늘 발원하며 지냅니다. (계속)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上>



최명수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장

불교와의 인연은 오래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을 모시고 사찰을 다니면서부터 비롯됐다. 그때는 법당에서 제대로 삼배도 못하는 불자였으나 1983년도 어머님이 타계하신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교서적을 탐구하고 등산을 겸하여 전국유명 사찰을 탐방하고 108배 참회정진 등을 하면서 불교세계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1991년도에 직장을 광화문으로 옮기면서 좀더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계사 근처에 있는 불교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기적인 법회를 통한 경전공부와 철야정진 등으로 불교공부를 계속했다. 수행에 나름대로 열성을 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맴도는 허전함은 해결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이며, 나도 깨달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불교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구심만 가중되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우곡선원을 알게 되어 2000년 12월에 우곡 참선교육 제3기생으로 인연을 맺었다.

## 나름대로 수행 했으나 늘 공허함 느껴
## 인터넷 통해 알게 된 '우곡선원'서 정진

처음 우곡선원을 방문하였을 때 일반 아파트와 같은 평범한 환경과 그 흔한 불상도 두지 않고(지난 해 선원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불상을 모셨음) 법당의 정면에 팔정도만 게시되어 있어 상(相)에 익숙한 나로서는 좀 의아하게 여겨졌었다. 또 옆방에서 여러 거사들과 어울려 차담을 나누는 분을 일반 수행자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분이 바로 우곡선원을 이끄시는 우곡 장명화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이기 마련이다. 평범한 모습으로 여러 도반들과 어울려 사는 원장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듯이 오랜 수행경력이나 특별한 모습으로 치장되어있지 않았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잘못 왔나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밑져야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참선교육 3기생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5주간에 걸친 참선교육을 통하여 내 생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우곡선원에서의 참선강좌 내용은 기존의 불교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법과는 너무나 상이하였다. 그것은 고답적이고 맹목적으로 여겨지는 종교관행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정립하고, 수행을 통해 이치를 섭렵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짜여져 있었다.

특히 우곡선원의 오계원(五戒願)은 "불법을 토대로 예(禮)와 덕(德)을 배양한다. 실상관법(實像觀法)을 통하여 업(고정관념)을 정화한다. 수용하는 마음으로 만상과 조화를 이룬다.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憤心) 대신심(大信心)으로 미혹에서 벗어난다. 하심(下心)하여 시절인연(時節因緣)을 수용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호감이 갔다. 불자들이 흔히 알고있는 '살생하지 마라'는 등의 너무나도 당연한 불교계율을 뛰어넘어 자신이 쌓은 수행력으로 직접 피안의 세계로 거듭나는 오묘한 참선강의와 수승한 체험담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곡선원에서는 참선공부의 기본바탕으로 실상관법을 강조한다. 실상관법은 연기하는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觀)하는 것으로,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끊어짐 없이 선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심신수행법이다. 관하는 대상이 태양과 같은 불(火) 기운의 빛(光明)일 경우에는 일상관(日想觀) 또는 화관(火觀)이라 부르며, 맑고 영롱한 물방울 같이 물(水) 기운의 빛일 경우에는 수상관(水想觀) 또는 수관(水觀)이라 부르고, 대지와 같이 땅(土) 기운의 빛일 경우에는 이를 지상관(地想觀)이라 부른다. (계속)


불교방송에서 미얀마 불교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찬란한 불탑의 나라 미얀마!!

불교방송이 미얀마 성지순례에 파격적인 비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부처님과 사리불, 목련존자의 사리를 모신 수도 양곤을 비롯하여 세계 3대 불교유적 중의 하나로, 아름다운 불탑과 사원으로 이루어진 파간과 만달레이를 순례하고, 까바에 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정대불사법회도 봉행합니다.

이번 순례는 5박 6일 일정으로 3월 4일, 3월 8일 2회에 걸쳐 대한항공 전세기로 출발합니다.



BBS 불교방송 문의전화 : (02)705-5301. 3 www.bbsfm.co.kr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일 정 표

| 일 자 | 출발 / 도착 | 교통편 | 시 간 | 주요 행사 일정 | 식 사 |
|---|---|---|---|---|---|
| 제01일 3/4 3/8 | 인 천 양 곤 | KE 전세기 | 19:00 22:35 | 인천국제공항 집결<br>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br>양곤 도착 후 호텔투숙 | 석 기내식 |
| | | | | HOTEL TRADERS HOTEL CLASS | |
| 제02일 3/5 3/9 | 양 곤 파 간 | 국내선 | 06:30 07:50 | 아침공양 후<br>국내선으로 파간이동<br>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br>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br>쉐산도파고다, 이라와디강 석양감상, 저녁공양 후<br>호텔투숙 | 조 호텔식<br>중 한 식<br>석 현지식 |
| | | | | HOTEL THARABAR GATE HOTEL CLASS | |
| 제03일 3/6 3/10 | 파 간 만달레이 샤가잉 만달레이 | 국내선 | 08:45 09:15 | 아침공양 후<br>공파웅왕조의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마하간디용<br>수도원, 만달레이 언덕순례, 샤가잉 이동 후 쉰우퐁야<br>신 우민똥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귀환 후 호텔투숙 | 조 호텔식<br>중 현지식<br>석 현지식 |
| | | | | HOTEL MANDALAY HILLRESORT CLASS | |
| 제04일 3/7 3/11 | 만달레이 양 곤 | 국내선 | 09:30 11:05 | 아침공양 후<br>양곤이동 후 로카찬다 옥불사, 차욱탓지 파고다,<br>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 친견/정대불사 봉행),<br>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 후 호텔투숙 | 조 호텔식<br>중 현지식<br>석 현지식 |
| | | | | HOTEL TRADERS HOTEL CLASS | |
| 제05일 3/8 3/12 | 양 곤 | 전용차량 KE 전세기 | 전 일 23:35 | 아침공양 후<br>쉐다곤파고다, 마하시수도원 순례<br>아웅산기념탑 경유<br>양곤 출발 | 조 호텔식<br>중 현지식<br>석 한 식 |
| | | | | HOTEL TRADERS HOTEL CLASS | |
| 제06일 3/9 3/13 | 인 천 | | 07:35 | 인천 도착 후 해산<br>라 성불하십시오 라 | 조 기내식 |

※ 자세한 문의는 불교방송 전화 705국에 5301번이나 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참 금 : 1,380,000원 (비자비용 25,000원 별도)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3장
- 포함내역 : 여행자보험(1억원),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2월 24일까지
- 출 발 : 3월 4일, 3월 8일 - 2회

안양규 교수의
## 경전이야기 <5>



### 쇠못 천개를 몸에 박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듯이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처음 의지를 세우는 초발심(初發心)이 중요하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먼저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야 깨달음의 나무가 성장할 것이다. 처음 마음먹기가 어렵고 그 마음을 유지하며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퇴전의 보리심을 내어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세우는 것이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굳은 결심이 서야한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면서 강인한 의지가 없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기 쉽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강인한 의지는 목표 성취를 위한 에너지인 것이다. 연료가 떨어지면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자동차는 멈추고 만다. 출발하기 전에 '의지'라는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성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 성불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성불하겠다는 의지를 굳히는 일임을 명심하며 다음의 경전을 살펴보자.

전생에 붓다가 보살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진리에 대한 마음(보리심)을 보여 주었다고 <현우경>에 전하고 있다. 전생에 붓다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을 결심하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이야기가 몇 개 전해지고 있다. 한 때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악신에게 자신의 육신을 바치기도 했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전생에 보살은 비릉갈리왕으로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하도록 다스렸다. 어느 날 왕은 재물로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진리로 백성들을 해탈하게 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누구든지 나에게 진리를 말해준다면 그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주겠노라"고 온 나라에 알렸다. 그때 노도차가 나타나 "만일 대왕의 몸에 천 개의 쇠못을 박으면 말해 주겠다"라고 제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제의를 왕에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왕은 말했다. "나는 탐욕, 분노, 무지로 오랜 세월에 걸쳐 생사를 반복하였다. 그 뼈를 모았다면 수미산보다 높을 것이요, 머리를 베어 흘린 피는 강물보다 많을 것이며, 흘린 눈물은 바닷물보다 많을 것이다. 이런 생사 반복은 헛되이 목숨만 버린 것이니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내 몸에 쇠못을 박더라도 진리를 구할 것이다. 진리를 얻은 연후에 그대들의 번뇌의 병을 끊어줄 것이다."

왕은 노도차에게 먼저 못을 몸에 박으면 목숨이 끊어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지도 모르니 은혜를 베풀어 먼저 진리를 들려달라고 간청한다. 이에 노도차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모두 덧없는 것이다. 태어난 자는 모두 괴롭다. 모든 것은 비어 실체가 없다. 진실로 나의 것은 없다."

게송을 마치자 천 개의 못을 몸에 박았다. 그때 제석천이 나타나 물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을 견디어 내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무슨 결과를 기대하는가? 제석천이나 전륜성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마왕이나 범천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왕은 대답했다. "나는 삼계의 즐거운 과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덕으로 붓다가 되고자 합니다." 제석천이 다시 왕에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왕은 마음속으로 "내가 진실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몸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염원하자 왕의 몸이 본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 성불위해 모든 것 포기할 의지 있어야
### 진리 씨앗 내 마음밭에서 싹트고 성장

씨가 뿌려지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 순수한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 밭에 뿌려지는 것이 불교 공부의 출발이다. 그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마침내 껍질이 터져 말씀 속의 생명의 씨가 발아되어 나올 때, 성장의 과정은 시작된다. 씨가 다 자라서 골격과 윤곽을 갖추었을 때가 성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붓다처럼 성불을 위해 육신마저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확립되어야 말씀의 씨가 내 마음 밭에 심어지게 된다. 가르침의 씨가 뿌려져야 그 다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보살핌이 필요하다. 씨도 제대로 뿌리지 않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이 설해 준 경전 덕분으로 1000개의 못을 몸에 박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보살은 자신의 육신마저도 포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는 붓다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안의 부처 찬탄하는 노래





40여년간 7백여 곡이 넘는 찬불가를 만드는 등 불음포교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운문 스님의 올해 소원은 더 많은 찬불가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다.

■ 운문 스님

192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으며 44년 망월사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3년에는 해인사 전문강원을 수료했으며, 56년 여수 흥국사 주지, 63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71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66년에는 청소년교화연합회를 창립했으며, 87년과 90년에는 각각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2001년에는 삼보불교음악협회를 설립해 찬불가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지상 백고좌

## 운 문 스님

(운문사 주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점점 더 젊어지는 것일까. 참 수행자들을 친견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천진불심(天眞佛心)이다. 동자승 처럼 해맑은 모습에서 수행자의 진정한 풍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3년만에 서울 구기동 운문사에서 만난 운문 스님 역시 편안하고 해맑은 예전 모습 그대로 기자를 맞는다. 굳이 바뀐 모습을 찾으라면 오히려 좋아진 건강 때문에 보다 의욕적으로 변한 것이다.

"요즘도 매일 밤마다 노래 가사를 씁니다. 40여 년간 7백여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만들었지만 요즘 들어 쓰여지는 노랫말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노랫말을 지을 때는 화두 들 때처럼 모든 잡념이 사라지곤 하죠. 사실 건강 때문에 한동안 가사 쓰는 일을 중단했어요. 2년전부터 건강이 점차 회복돼 이제는 예전처럼 곡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팔순을 코 앞에 둔 나이라 스님의 설명이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다. 빼곡히 정리해 놓은 오선지 위에 채워져간 노랫말은 2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묶어도 족히 서너권이 넘었다. 모두 요새 쓴 것이다. 오히려 작곡자들이 스님의 노랫말을 곡으로 만드는데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다. 어디서 그런 왕성한 창작의 샘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 스님은 한마디로 수행의 원력이라고 말했다.

"내가 평범한 일반 가요를 만드는 작사가 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많은 곡들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번뇌로 방황하는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감로수 같은 진리를 쉬운 노랫말로 바꿔 주어야겠다는 원력이 지금까지도 찬불가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되었고 개인적인 수행의 방편도 되었지요."

하지만 스님이 처음 노래를 만들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 조차 노래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커서 기

### 기복신앙 빠져있는
### 신도들 보고 충격
### 교리 쉽게 알리자 결심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훤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기문화재 원광식

● 문의처 : 02-733-6141(代)
032-772-5451(代)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송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송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앰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정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앰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있습니다.
● 소비자가 : 4,5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 노래 매일 부르세요

## "부처님만 생각하면 환희심 넘쳐 노랫말 저절로 나와"

생질이나 할 것이냐' 고 부모들이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할 때 였다. 그래서 스님이 찬불가 운동을 시작한 데에는 남다른 발원이 있을 것 같았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경이었어요. 나주 심양사 주지로 소임이 맡겨져 절엘 찾아 갔는데 신도들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도들이 찾아와 스님은 점(占)을 안봐주냐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지요. 신도들을 호통쳐서 보내고 방안에서 혼자 앉아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모두가 정법대로 공부하지 않아 기복적인 신앙에만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기성세대야 이미 굳어져 버려 할 수 없지만 새싹 불자들이라도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참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포교방법을 찾는게 급선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방 싫증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딱딱한 불교 교리보다는 노랫말을 지어 부처님 뜻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생각에 찬불가 포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스님의 남모르는 노력 탓일까.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불자들이 찬불가 한두 곡씩은 제법 다 부른다. 그만큼 찬불가가 널리 보급됐다는 증거다. 하지만 스님은 찬불가의 대중화에 대해선 아직도 배가 고프시단다.

"물론 과거에 비해 불자들의 입에서 찬불가가 자주 불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회의식이나 특정 무대에서 주를 이루고 있지요. 찬불가의 역사도 이제는 거의 반백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법회할 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생활할 때나 아니면 불자들이 야유회 갈 때도 자연스럽게 불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주 다보사 주지시절 신도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뒷집 사람들이 일하면서 찬송가 부르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지요. 우리 찬불가도 어디서든지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불가를 만드는 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쉼없이 노랫말을 짓고 때로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곡도 썼다. 신기한 것은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은 이들도 작사 · 작곡은 쉽지 않은 일인데 스님은 음악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규 대학을 나와 전문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분명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불교음악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가슴에 깊이 새겨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목적의식 보다는 부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환희심이 넘쳐 가슴 속에서 노랫말들이 저절로 튀어 나오더라구요. 결국 찬불가는 내 안의 부처님을 찾고 찬탄하는 구도의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물이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 조롱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보람을 느낀 적도 많았다. 특히 요즘에는 전국 사찰에 합창단이 활성화돼 스님의 곡들이 불려 지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또 40여년의 고생을 한순간에 허물어 뜨리는 감로수 같은 격려도 큰 힘이 된다. 몇해 전에는 봉선사에서 한글대장경 출판 봉정식에 앞서 연합합창단 총연습이 열렸는데 "스님 옛날에는 노래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스님의 원력이 대단했었네"하고 월운 스님이 칭찬을 했다.

"합창단 뿐만 아니라 산사음악회가 많이 열리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과 10여년 전 같으면 어디 산속에서 감히 노래를 부릅니까. 당장 쫓겨나지요. 괄목상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대중화 되기 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콧노래라도 좋으니 아무데서나 찬불가를 부르는 불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금방 피곤해져 많은 곡을 쓰지 못한다는 스님이지만 방바닥에 널려 있는 악보집이 이상해 여쭈어 보니 아직도 한창 때 못지 않다. 정부기, 최영철, 김동환씨 등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는 음악가들에게 노래를 써줘 곡을 기다리고 있다며 내놓는 가사집이 자그만치 300페이지가 넘는다.

원고 뭉치를 보며 깨달았다. 처음 찬불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나 회향할 시기인 지금이나 자신의 원력을 위해 한걸음씩 여여하게 다가서는 모습이 바로 저런 것임을. '흘륭한 법문은 그 법문이 끝난 뒤의 행동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산을 내려 오는 내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글=김주일기자 · 사진=고영배기자



마지막 회향을 위해 찬불가 대중화에 진력하겠다는 운문 스님.

### 운문 스님이 말하는 '찬불가'

## 가사 음미하며 부르는 찬불가는 참선 정진의 효과

7백여곡이 넘는 찬불가를 만든 운문 스님은 다작(多作)의 비결과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신다.

"우선 노랫말을 짓기 전에 경전과 게송을 갖다놓고 뒤져봅니다. 이러다가 감명을 받은 조사 스님의 게송이 있으면 바로 인용해 노랫말로 바꾸지요. 경전을 오래 읽고 그 의미를 곱씹다 보면 노랫말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스님의 찬불가들은 2002년 삼보불교음악협회가 펴낸 <찬불가집>에 많이 들어 있다. 이 책은 개화기 이후 작곡된, 2천여 찬불가중 장르에 구분없이 수집해 이를 다시 1300곡으로 압축한 다음 전문가들이 330곡을 선별해 편집했다.

운문 스님은 "창작 찬불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찬양합시다'와 '미타의 품에 안겨'와 같이 외국 곡이나 찬송가에 가사를 붙인 곡들이 많았다"며 "60년 후반부터 추월성씨를 시작으로 정민섭, 이찬우, 김희조, 이호섭씨 등이 90년대까지 왕성하게 곡을 만든 것이 창작 찬불가의 변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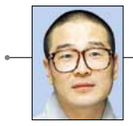
바른 신행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나 참선, 염불을 공부하는 것처럼 찬불가를 한 곡 부르더라도 이와같은 마음가짐으로 불러야 한다는 스님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며 "찬불가를 부를 때 용맹정진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른다면 참선할 때처럼 선정의 효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현재 '님의 모습 낙원이 여기로세' '아기보살 싯달타 왕자' '비로자나 공덕 찬탄가' 등 30여분 가량을 연주하는 장편곡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성전스님의
## 스님이야기

보륜 스님



걸망을 메되 언제나 깔끔하고 옷을 입되 언제나 단정하다. 세수할 때는 언제나 윗도리를 벗고 얼굴을 씻고 방을 치울 때는 구석 구석까지 걸레질을 꼼꼼히 한다. 볼같지만 냉정하고 냉정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 보륜 스님이다. 혼자 휘파람 불기를 좋아해 아무도 없는 산길을 걸을 때면 유유히 부는 휘파람 소리는 참 듣기 좋았다.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보륜 스님은 선방을 다녔다. 해제 때 이따금 보는 그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멋쟁이 수좌의 위의를 갖추고 있었다. 선객의 풍모가 더해진 그의 모습은 그 깔끔함의 이유마저 찾은 듯 깊이가 있어 보였다. 그의 어투도 잡다한 설명을 떠나 있었다.

내가 서울서 주지를 살고 있을 때 그는 몇 번


그림 · 문병성

나를 찾아왔다.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주지 그만 하고 선방에나 가자는 말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이 고마웠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몇 번 듣게 되자 은근히 화가 났다. 사람이란 모두 각자 사는 것이고 각자 삶의 방향에 대해 최선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미처 읽지 못했던 것 같다.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최상인지는 결코 객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의 문제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 주어야만 할 것 같았다.

"스님, 선방에 다니는 것은 정당하고 주지를 사는 것은 그른 것인가? 선객은 최상이고 주지는 최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야?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최상이고 최하인 것은 각자의 삶의 문제이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선방에 다녀도 그 마음이 그리고 그의 삶이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선방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것이고, 설사 도심에 있어 주지를 할지라도 그의 삶이 부처님의 삶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실과 진리를 찾아 떠나는 선객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륜 스님은 내게 더 이상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길을 떠났다.

그가 떠나고 나서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시건방진 소리를 했는가 하고 후회했다. 그가 내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던 가를 그가 말없이 떠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가 보기에 나는 불안했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어쩌면 내가 다시는 공부 길에 오르지 못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주지를 살고 선방을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대로 중심을 잡고 그 내용을 담아 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게 선방에 가자고 권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후회는 늘 늦게 찾아와 사람을 쓸쓸하게 한다.

어느 날 그가 다시 찾아와 내게 다시 선방에 가자고 조를지 기약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도반을 마음 아프게 보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도반의 마음도 읽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어둠이 내리도록 물히지 않았다.

나는 태안사 선방에서 그와 함께 겨울 안거를 보낸 적이 있다. 그 때 그는 내게 참으로 세심하

### 달랑 걸망 하나 메고 다니는 영원한 선객

게 배려해 주었다. 옷에 풀을 할 때면 더딘 나를 대신해 옷에 풀을 해주었고, 선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방선시간이면 함께 포행을 다니고 자유정진 시간이면 동리산을 종주하고는 했다. 그는 아마도 도반 하나가 선객이 되어 선방에 그와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좋았던 것 같다.

나는 그와 한 철을 같이 살았을 뿐이다. 그 후 잘 만나지 못했다. 그는 산으로 산으로 걸망을 메고 다녔고 나는 서울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다. 서울에 살다 산이 그리울 때면 그가 떠오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는데 하고 반성할 때면 그와 함께 공부하던 선방 시절이 그리워지고는 했다. 서울서 주지를 살 때 내가 그에게 했던 말도 어쩌면 영원한 선객의 기풍으로 살아가는 그의 멋진 삶에 대한 시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 철도 선방에서 성성하게 화두를 참구하고 있을 것이다. 화두가 곧 삶이고 삶이 곧 화두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의 모습이 문득 문득 그리워지는 것은 선객의 길이 내게 끝내 그리움으로 남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삭발을 하고 나면 유난히 반짝이던 그의 머리. 해인사 강원 시절 삭발하는 날 반짝반짝 대머리 노래 부르다 분노해 쫓아오던 그를 피해 도망치던 일들이 아름답게 떠오른다.

영원한 선객, 보륜스님. 달랑 걸망 하나를 메고 다니지만 그가 당당해 보이는 것은 그가 걷고 있는 길이 무척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베개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님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님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밖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582-6235~6 011)630-706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 북한 먹거리 맛보세요

## 평불협 대구본부 판매대 마련
## 고사리 둥굴레 등 10여종 선봬



평불협 경북 대구본부 사무실에 마련된 북한상품 판매대. 고사리 등 무공해 농산물 10여종을 만날 수 있다.

북한산 가시오가피, 개성고려인삼 은단, 백두산 들쭉술, 고사리…. 북한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구시 중구 동아빌딩 4층에 자리 잡은 (사)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 경북대구본부(이하 평불협 경북대구본부)사무실 한 켠은 북한 상품 판매대가 마련돼 대구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평불협 경북대구본부에서 취급하는 북한 농산물은 고사리, 둥굴레차, 헛개나무차 등 10여종. 우리농산물이 환경오염으로 신뢰성이 떨어진 반면 북한상품은 아직까지 깨끗한데다 가격도 저렴해 한번 이용한 이들이 다시 찾고 있다. 또한 북한상품 판매 수익금 전액이 북한 황해도 사리원시에 세워진 금강국수공장에 밀가루 구입비로 보시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02년에 발족한 평불협 경북대구본부는 창립1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김기만(74, 운보 김기창 화백 동생)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3대 화가로 꼽히는 선우영, 정영만 특별전과 북한 사찰 사진전도 준비중이다. (053)954-6413 대구=배지선 기자

## 日 불교예술 사진 한눈에

### 서울문화센터 '일본의 아름다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와타나베 요시오, 도몬 켄, 이시모토 야스히로 등 일본 사진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3인의 작품전시회 '일본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Japan)' 전을 개최한다. 전시 장소는 서울 신문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이번에 출품한 작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혼란스러운 시대상황 속 도시와 사람들을 깊은 통찰력으로 포착해냈고, 일본의 불교예술과 건축을 앵글에 담아 냈다.

와타나베 요시오는 1953년과 73년에 촬영한 순수한 건축사진들을 선보인다. 과도한 연출을 배제하고 구성미를 보탠 사진작품들이다. 도몬 켄은 일생에 걸친 작업이라 할 만한 '고찰 순례' 시리즈를 보여준다.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법륭사를 비롯 일본 사찰 사진들을 선보인다. 2월10일까지. (02)2122-2820

김주일 기자

##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5:25 경전공부
07:10 아침저널
11:00 행복스튜디오
14:00 전국은 오늘
16:45 룸비니 동산
18:15 유쾌한 저녁길
21:30 BBS 초대석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4일 09:20 밥상에 도가 있다
5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6일 12:00 향토음식기행
7일 12:50 충성 성불하십시오
8일 14:00 정률 스님의 찬불가
9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10일 12:50 자비의 천수천안

###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행복스튜디오 구효서입니다(2월 6일 11:10~12:00)- 소설가 구효서 씨의 진행으로 다양한 문화가 소식과 청취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 매주 금요일에는 한의사 조성태 박사가 출연, 청취자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해주는 '건강보감' 시간이 마련된다.

■**불교텔레비전**: 충성 성불하십시오/육군 백골부대 편(2월 7일 12:50~13:50)-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수은주를 기록하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백골부대 장병들을 만나본다. 병사들의 병영생활 에피소드와 전방사단의 포교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 클릭! 불교문화상품

### 달마원목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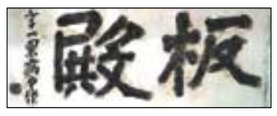


고급 무소음 무브먼트를 사용해 기존 불교문양 시계의 소음과 고장이 잦은 단점을 보완한 제품. 달마도와 연꽃문양이 조화를 이룬 이 시계는 불자들에게 선물용으로 적당하며 10개 이상 주문 시 원하는 문양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크기 400mm. 값 3만 3천원. (02)732-1520

## 전시

### 추사 봉은사 판전 등 탁본전

#### 18일까지 과천 시민회관



추사 김정희의 '판전'

2월 4일부터 18일까지 과천 시민회관에서 '추사체의 진수, 과천 시절-추사 글씨 탁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추사가 31세 때 쓴 최초의 비문인 '이위정기(以威亭記)'에서부터 71세 때의 봉은사 '판전(板殿)'까지 대표적 탁본 70여점(목각 탁본 40점 · 목판 글씨첩 11종 · 금석문 탁본 12점 · 쌍구본이 2종 · 목각 5종)이 출품된다.

특히 '강릉김씨묘비(江陵金氏墓碑)', 대흥사 목각현판 '소영은(小靈隱)', 통도사 '성담상게(聖覃像偈)'와 '노곡소축(老谷小築)'이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다. 또 추사의 제자 소치(小癡) 허련(許鍊)이 묶은 탁본첩 10여종도 함께 선보인다. (02)504-7300 김주일 기자

### 경기도 도자기엑스포 상설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가 개최됐던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에서 2004 상설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설전시회를 통해 광주조선관요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이천세계도자센터는 각각 전통 조선백자를 비롯해 현대 조형도자, 생활도자, 세계 현대도자 등 다양한 도자기 예술품을 선보인다.

특히 광주조선관요박물관의 '조선도자상설전'에는 백자상감모란엽문편병(보물 791호), 백자청화매조문병(보물 659호 · 사진), 백자청화장생문팔각접시(보물 1063호) 등 국보급 도자기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여주에서는 '생활도자의 새로운 감각전', 이천에서는 '국제공모전 수상작품 특별전'이 마련됐다. (031)631-6504 한상희 기자

## 게시판

### 함께 떠나요

**증심사 무등산 풍경소리 산사수련회**

광주 증심사는 오는 2월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무등산 풍경소리 산사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1080배 정진, 새벽 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는 참가비 1만원과 간단한 개인준비물만 지참하면 된다. (062)226-0108

**월출산 달맞이 · 남도 기행**



정월대보름을 전남 영암군 월출산 도갑사에서 맞고 남도 맛집을 돌아보는 '월출산 달맞이와 남도 맛기행'이 마련됐다. 2월 5일 서울서 출발해 1박 2일 동안 내소사, 강진 백련사, 화순 운주사도 함께 둘러보게 된다. 승우여행사 (02)720-8311

**천수만 철새 탐조 · 간월도**

한국 최대 겨울 철새 도래지로 떠오르는 충남 서산의 천수만 일대와 간월도 간월암을 돌아보는 여행상품이 등장했다. 2월 8일 하루 동안 전문가와 함께 김좌진 장군 생가터, 천수만 철새 탐조, 간월암, 해미읍성을 방문하게 된다. 터사랑 (02)725-1284

### 공부합시다

**국립극장 예술의 향기 강좌**

국립극장(극장장 김명곤)은 3월부터 예술강좌 프로그램 '국립극장 예술의 향기'를 시작한다.이번 강좌에는 이윤택(연극읽기), 안숙선(우리 소리의 뿌리를 찾아서), 최상화(21세기 한국 음악), 김현자(한국 창작춤의 과제) 씨 등 4개 전속단체 예술 감독과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신청 마감은 2월 20일까지. 국립극장 공연운영과 (02)2274-1172~3

**법기사 겨울 수련회**

법기사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양주군 육지장사에서 겨울 수련회 '3박 4일간의 출가'를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2월 11일까지 인터넷(www.bubkisa.or.kr)이나 서울법기선원(02-854-1848), 서울대 수행불교회(02-880-8627), 부산법기선원(051-516-9104)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 일반인 8만원, 학생 6만원.

**깔야나미타 명상선원 2월 주말 집중 수행**

깔야나미타 명상선원(http://cafe.daum.net/kalyanamitta)은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죽산 도피안사에서 <쏟아지는 햇빛>의 저자 아눌라 스님의 지도로 주말 집중수행을 갖는다. 수행은 법문과 실제 수행, 개별 인터뷰로 진행된다. 문의 anulametta@yahoo.co.kr

**청년 수행단체 '하심' 화계사서 수계식**

청년 불자들의 참선모임인 '하심(Humble Mind, http://cafe.daum.net/humblemin)'은 2월 5일 저녁 7시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수계식을 봉행한다. 문의 jychang22@hanmail.net

**부산 구룡사 목요 참선**

부산 정각산 구룡사는 매주 목요일 오후 1~3시 사찰 내 선방에서 위빠사나 참선수행 체험법회를 연다. (051)332-8030

### 모집합니다

**보리방송모니터 통신원**

불자시청자 단체 보리방송모니터회에서는 방송모니터 통신원을 모집한다. 평소 방송에 관심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보리방송 인터넷 카페(cafe.daum.net/boribang)에 지원 소감을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와 함께 작성하면 된다. (02)745-5811

**연세대 사경지도자과정 신입생**

연세대 사회교육원은 2월 9일부터 21일까지 사경지도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02)2123-3581

**영남불교대학 봄학기 신입생**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는 2004년 봄학기 신입생 7천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대구 큰법당, 경산법당과 새로 개원하게 될 칠곡법당 등에서 모집하며 이번 학기부터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실시간 화상 강의도 시작한다. 대현 스님(원각경 · 금강경), 최봉수 교수(화엄경), 이춘희 법사(금강경), 대륜 스님(반야심경 · 천수경), 우학 스님 등이 강의 한다. 대구법당 (053)474-8228, 경산법당 (053)811-0337, 칠곡법당 (053)312-8221

## 극장가



**태극기 휘날리며** / 드라마
**개봉예정일**: 2월 6일
**감독**: 강제규
**출연**: 장동건, 원빈, 이은주 등
'쉬리' 이후 5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강제규 감독의 신작.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역사의 비극 속에 있는 두 형제의 운명을 그린 전쟁드라마다. 제작비 130여억 원, 4년여의 사전 제작기간을 거친 블록버스터 물.



**마법경찰 갈갈이와 옥동자** / 가족 / 85분
**개봉예정일**: 2월 6일
**감독**: 이한열
**출연**: 박준형, 정종철, 김시덕 등
지난 2003년 개봉해 어린이 관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갈갈이패밀리와 드라큐라'에 이은 갈갈이 시리즈 두 번째 작품. 악당에 맞서는 갈갈이와 마법경찰단의 활약상을 그렸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감상할만한 영화.



**엘 시드- 전설의 영웅**(El Cid) / 모험, 애니메이션 / 82분
**개봉예정일**: 2월 13일
**감독**: 호셉 포조
**출연**: 마넬 프엔티스, 나탈리아 버베크, 산초 가르시아 등
스페인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중세 에스파니아의 명장 로드리고 디아즈의 일대기를 다룬 스페인 애니메이션이다. 가성세대에게는 소피아 로렌, 찰톤 세스톤 주연의 1961년 동명영화로 낯익을 듯.

## TV

### 백담사 스님들의 겨울나기

#### 아리랑TV 4일밤 11시 '산사의…' 방영


백담사 촬영장면.

아리랑TV는 강원도 백담사 스님들의 겨울나기와 무금선원의 동안거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산사의 겨울 이야기(Winter Story of the Buddhist Temple)'를 2월 4일 밤 11시에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백담사의 동짓날 풍경, 서옹 스님 다비식에 참가하는 선방스님들의 모습, 산사의 눈 오는 날 등 7~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특히 그동안 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하루 20시간씩 참선수행을 하는 스님들의 용맹정진 모습도 담았다. 2월 5일 오후 1시, 6일 오전 10시 재방송.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 공연

### 대보름 맞이 달오름축제

#### 국립국장 '남산 위의 둥근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어디 떴나, 남산위에 떴지'

국립극장은 대보름을 맞아 '남산 위의 둥근 달'을 주제로 달오름축제를 5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문화광장에서 연다. 1부에서는 달이 태동하는 박진감을 노래와 춤, 놀이로 한데 묶은 공연을 달오름극장 무대에서 진행한다. 이어 2부에서는 야외의 문화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객들이 함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즐기는 신명나는 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02)2274-1173

### 국악원, 한동희 스님 나비춤



국립국악원예악당에서는 2월 12~13일 양일간 오후 7시30분부터 '여무(女舞), 허공에 그린 세월' 전통춤 공연을 마련한다. 이번 무대는 장금도, 최희선, 김수악, 권명화 등 여성 무용가들만 초청한 명무전. 이중에는 한동희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50호 범패)도 초청돼 눈길을 끈다. 스님은 이날 공연에서 고깔을 쓰고 나와 '나비춤'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상선영 씨는 '승무', 권명화 씨는 '살풀이춤'을 무대에 올린다. (02)3446-6418

< 20면 「상식 퍼즐」 정답>

| | | | | | | | | |
|---|---|---|---|---|---|---|---|---|
| 목 | 탁 | | 정 | | 시 | | 자 | 부 |
| 동 | 상 | 이 | 몽 | | 무 | 형 | 자 | 산 |
| | 시 | | 주 | 관 | 식 | | 손 | |
| 외 | 계 | 인 | | 리 | | 양 | 손 | 녀 |
| | | 공 | 무 | | 모 | 반 | | |
| 진 | 선 | 미 | | 실 | | 전 | 법 | 륜 |
| | 교 | | 부 | 루 | 나 | | 률 | |
| 양 | 양 | 자 | 득 | | 한 | 단 | 고 | 기 |
| 육 | 종 | | 불 | | 전 | | 문 | 단 |

# ‘나눔 문화 만들기’ 불교계 나서자

안 쓰는 물건, 헌 물건 등을 교환 혹은 판매해 그 이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취지로 이뤄지는 바자(bazaar). 싸고 다양한 물건을 서로 판매, 교환함으로써 나누는 삶과 남에게 베푸는 자선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나눔문화다.

불교계에서도 바자회, 알뜰시장 등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전하고 이를 통해 환경, 종교화합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나눔문화가 1회성이나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바자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인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사회적으로 나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불교계에서는 보시문화를 바탕으로 나눔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나눔의 장으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가게’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 바자문화와 아름다운 가게를 비교해 살펴본다.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단발성 행사에 그쳐

## 성공한 바자 모델삼아 보시 기회 넓혀야



매주 셋째주 일요일 길상사에서 열리는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위).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부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오른쪽). 사진제공=맑고향기롭게



### 불교계의 바자문화

8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길상사의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길상사 경내에서 재활용의류 및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무공해 농산물, 자연화장품 등 각종 환경상품도 판매한다. 매달 모아진 판매 수익금은 수재민 돕기 등 불우이웃을 위해 쓰인다. 500원, 1000원짜리 물건들을 팔아 모인 지난해 총 수익금은 6백만 원 정도였다.

이 알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바자회가 아니라는 것. 맑고향기롭게의 연혜숙 간사는 “아나바다 정신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는데 목적이 있지만 바자회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재활용, 환경상품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환경운동의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수유동 화계사도 4년 전부터 천주교, 개신교 등 인근의 이웃종교와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 공동바자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5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금으로 10여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등 종교화합을 통한 이웃돕기를 실천한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불련)은 지난 2000년 서울 동대문구 용도동에 환경 알뜰가게인 ‘내친구 초록이’를 열어 재활용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1998년부터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등을 통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벌여왔다.

### 나눔문화의 전형, 아름다운가게의 성공비결

현재 한국의 나눔문화를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는 ‘아름다운가게’다.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10월 안국점을 1호점으로 시작해 1년 만에 삼선교, 독립문, 홍대, 서초, 신대방, 동대문, 광주, 경기 안산 등 전국 11 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4명이 기증해 총 기증자 수는 1만 194명(2003년 9월 기준)이나 된다. 50여개 기업, 공공기관 등의 직장인들이 쓰지 않는 물품을 수집, 매주 토요일 직접 판매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의 참여자도 포함해서다. 이들로부터 모아진 물건을 구매한 사람도 30만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폭발적인 호응 속에 2천 톤 이상 모인 기증품으로 지난해 1억5천6백만 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아름다운가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남이 쓰지 않는 물건’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았다는데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를 통해 받은 헌 옷, 물건들을 그냥 내놓지 않고 단계를 거쳐 점검하고 수리해 새것에 못지않은 상태에서 판매한다.

기부, 자선에 의지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지만 기업에 버금가는 프로정신과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아름다운가게가 지난해 11월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개최한 벼룩시장에는 20여만 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루는 등 단순히 ‘좋은 일에 동참하자’를 내세우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매장마다 특색 있는 물건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안국점이 본점인 만큼 3층 매장에 다양한 물품을 갖추는데 주력한다면, 8호 홍대점은 ‘아가홍(아름다운가게 홍대점)’이라는 별칭으로 문화의 거리 홍대 앞답게 젊은 작가들의 아트상품 등 실험적인 생활문화용품 등을 판다. 이를 통해 젊은 작가들의 작품 발표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차원에서의 나눔시장 장려를 이끌어 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매달 1회 이상 중고품 시장이나 바자회를 열도록 지원하고, 서울시도 지하철 역 주변에 상설 중고품 시장을 열어 나눔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 “우린 붓다의 메아리”

##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2>

### 김미화 불자 가족



엄마와 막내딸은 소프라노, 아빠는 테너, 첫째는 알토. 유명 성악가 가족보다 깊은 마음의 소리를 만들어 내는 가족이 있다. 온 가족이 붓다의 메아리인 박노찬(45 · 법진), 김미화(42 · 반야행) 불자 가족은 부부와 두 딸 소연(15 · 원명지), 현지(10 · 정법심)양이 모두 조계사 혼성합창단, 거사합창단,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는 합창단 가족이다.

조계사 합창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두 딸이 먼저였다. 지금 중학생이 된 큰 딸 현지가 초등학교 무렵부터 동생인 현지와 함께 3년이 넘게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해 왔다. 두 딸의 합창단 뒷바라지를 하던 엄마도 자연스레 혼성합창단에 들어가게 됐고, 아빠 박 거사도 지난 해 3월부터 거사합창단의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게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 나부터라도 참여해 거사들의 신행활동 참여도를 높여보자는 뜻으로 시작하게 됐지요. 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진정한 ‘가족 신행’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박 거사)

**모두 조계사 합창단 활동**
**“음성공양하며 욕심 놓고**
**행복도 얻고…**
**찬불가 화두처럼**
**품고 살아요”**

이 가족의 한주는 늘 찬불가와 함께한다. 화 · 토요일에는 엄마의 혼성합창단 연습, 목요일에는 아빠의 거사합창단원 연습, 일요일에는 일요법회 참가와 음성공양 등을 위해 일주일에 4일이나 절에 간다.

“엄마 아빠랑 같이 절에 갈 때가 제일 좋아요. 가족이 함께 찬불가를 부를 때면 행복해요.”(막내 딸 현지)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신행생활을 하면서 이해심이 깊어지는 거 같아요. 가족 간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찬불가를 부르고, 부처님 말씀 생각하며 금세 화해하지요. 음성공양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배웁니다.”(김 보살)

무엇보다도 합창단 활동은 두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두 꼬마 음악가들은 의정부 군부대 위문 공연, 2002년 종교음악제, 2003 한마음 음악제 등 크고 작은 무대에 여러 번 서본 ‘준 프로’들이다.

박 거사 부부는 얼마 전부터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용산, 중구, 마포 등을 비롯한 서울 중부지역의 지역법회도 참석하고 있다. 이곳에서 박 거사는 노인 불자를 대상으로 찬불가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노 보살님들이 찬불가를 부를 때면 제일 신명나하세요. 어깨를 들썩거리실 정도로 좋아하시고 관심도 많으시죠. 저희들이 찬불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시고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십니다.”(박 거사)

“부처님의 향기로운 말씀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찬불가가 많이 보급됐으면 해요. 경전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구절도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어느 순간 ‘아 이 말씀이었구나’ 깨우치게 되거든요.”(김 보살)

찬불가를 통해 수행한다는 김 보살은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라는 노래를 가슴에 화두처럼 품고 있다. 이 곡만 노래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에서 무언가 샘솟는 것을 느낀다고. 박 거사는 ‘내가 없는 이름의 노래’의 ‘내가 없는 허공 길에 봄이 왔건만’이라는 소절을 자주 되뇌게 된단다. 엄마 아빠의 애창곡 자랑을 듣던 막내가 질세라 ‘우리 절 연못’으로 한 곡조 뽑는다.

음성공양을 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가족의 행복도 얻었다는 박 거사는 앞으로 어린이 포교를 지원하려는 서원을 품고 있다.

“얼마 전에 두 딸아이의 학급에서 종교분포를 조사했는데 불교인 사람은 각각 한반에 두 명 꼴이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린이 포교의 심각성을 절감했지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엄마 김 보살도 자그마한 바램을 덧붙였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합창단 활동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나이 들어 생긴 혼성합창단의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합니다.”

한상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3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 초급반 (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 중급반 (3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 작법반 (6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헌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교리 강좌 (18기)
불교를 체계적으로 폭넓게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불교교리 및 불교의식을 혜거스님께서 직접 알기쉽게 강의 하십니다.
기도와 참선, 의전 등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개 강
2004년 2월 25일 (수)
시 간
매주 수요일 – 오전 10:30 ~ 12:00
오후 1:30 ~ 2:30
(점심공양 제공)
기 간
4개월
※ 문의 및 접수 :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전화 : 02-445-8484
fax : 02-445-8043

당신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가 될 수있습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2. 4(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과 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높은 명리학입니다
▶ 개강 일정 : 2004. 2. 6〔09:00~12:00〕※주말반, 개인지도가능
주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완벽한 수준까지 지도해 드립니다.
▶ 개강 : 2004. 2. 6 (주 1회, 주 · 야간반 : 2개월 완성)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禪茶 알리는 스님들

## 하는일 달라도
# 차사랑은 한마음

불가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구도의 방편이다. '차나 한 잔 드시오(喫茶去)'라는 조주 스님의 공안이나 '선다일미(禪茶一味)'로 대표되는 선차(禪茶) 문화는 불가에서 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 스님의 뒤를 이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들을 소개한다.



수산 스님 • 60여년간 전통제다법 지켜

백운 스님 • 다맥 전수 차축제에 열성

지허 스님 • 다담 통해 보급, 홍보 주력

성우 스님 • 강좌, 출판 통한 대중화

용운 스님 • 초의 선사 관련사업 활발

여연 스님 • 12개 다회 운영 茶 생활화

선혜 스님 • 학술, 교육 등 활동 다양

선차의 대가로 존경받는 불갑사 조실 수산 스님. 세수 80이 넘은 스님은 지금도 봄이면 500여 평이 넘는 불갑사의 차밭에서 직접 찻잎을 따고 무쇠솥에 덖어 차를 만든다. 만암 스님에게서 차를 배운 스님은 무쇠솥과 돗자리에서 아홉 번을 덖는 전통제다법을 60여 년이 넘게 지켜오고 있다. "채다(採茶)할 때의 향기와 아홉 번 덖은 후의 맛이 일치해야 진정한 선차(禪茶)"라는 스님은 "찻잎을 덖으며 죄업을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차 만드는 일이 내 수행의 방편"이라고 말한다. 저녁 공양 후 서옹 스님과 차를 마시다 열반에 든 만암 스님의 뒤를 이어 선차문화를 이끌고 있는 수산 스님의 차사랑 덕분에 오늘날까지 불갑사의 차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부산 미륵사 주지 백운 스님은 초의의순 스님과 여암선기, 쌍수일한, 응송영희 스님으로 이어져오는 다맥(茶脈)의 전수자로 알려져 있다. 제6회 명원차문화대상 학술상을 받기도 한 스님은 지난해 '초의다맥 한국선다회'를 발족하고 쌍계사에서 다맥 전수식을 개최했다. '초의 스님의 다맥을 공식적으로 전수하고 그 뜻을 기린다'는 뜻으로 선다회를 결성한 백운 스님은 앞으로 선다회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매년 쌍계사에서 차맥전수식과 차문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직접 차를 재배하며 차회나 단체를 이끌고 있는 스님으로는 파계사 성우 스님과 선암사 지허 스님, 일지암 여연 스님, 석정원차회 선혜 스님, 다성사 용운 스님 등을 들 수 있다.

불교TV 회장이자 대구 파계사 주지인 성우 스님은 96년 불교텔레비전의 '차문화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섰다. 파계사 차회 '불이다회'를 이끌고 있는 스님은 불교TV문화원에서 다도강좌를 열기도 했다. 시인이자 명상태교 전문가로도 널리 알려져있는 스님은 차 생활에서 얻은 화두를 선사상과 접목시킨 책 <다도>와 시집 <차향기>를 펴냈으며 다촌문화상과 초의차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불교계의 이름난 차 전문가인 지허 스님과 여연 스님은 지난해 '전통차 논쟁'으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찰 차밭에서 차를 따는 스님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허 스님은 지난해 1월 펴낸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한국 전통 차의 참모습>이라는 책에서 "일본 녹차는 쪄서 말린 것이어서 우려내면 녹색이 나고 풋비린내가 나지만, 한국 전통 차는 자생 차나무의 잎을 손으로 덖고 비벼서 만든 것으로 우려내면 다갈색이고 구수한 숭늉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연 스님은 '다갈색에 숭늉내가 난다는 말은 차를 너무 심하게 볶거나 태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등 지상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다도'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눈으로는 색을 보고, 코로는 향을 맡고 입으로 그 맛을 음미하면서 그저 각자 성품에 따라 차의 진정한 내용에 몰입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다도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차를 만들어온 지허 스님은 찻잎을 두께 1㎝의 무쇠솥에 아홉 번 덖고, 멍석에 아홉 번 비벼 만드는 방식을 취한다. 스님은 매달 일반인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우리 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산중다담'에 참가했던 임권택 감독과 김선두 교수(중앙대)를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한국전통자생차보존회를 결성하고 전통차 보급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초의선사가 주석했던 일지암 암주를 맡고 있는 여연 스님은 형식에 매인 차문화가 아닌 생활 속의 차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효당 스님에게서 차를 배운 스님은 76년부터 차를 만들기 시작해 77년 국내 최초로 결성된 '다도회'의 간사를 거쳐 78년 한국차인연합회 고문으로 일지암 복원에 참여했다. 91년 일지암 암주 소임을 맡은 후 98년 '일지암 초의차문화연구원'을 열고 2백여 명이 넘는 제자를 길러냈다. 지난해 말 광주 예술의 거리에 연구원을 마련한 초의차문화연구원은 서울과 광주, 순천 등 12개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성사 주지 용운 스님은 97년부터 전남 무암군과 함께 무안군 삼향면 초의선사 생가터에 생가를 복원하고 '초의선사기념관'과 '차문화관'을 설립하는데 앞장서는 등 지역 차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90년 초의문화재단을 설립한 스님은 97년 5월 서울 인사동 초의선원에 실물크기의 초의선사 목각좌상을 봉안하기도 했다.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 교수이자 석정원차회를 이끌고 있는 선혜 스님은 학계와 다도 모임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80년 석정원차회 연구실을 개원, 다도 교육을 시작한 스님은 87년 서울 인사동에 불교전통문화원을 열고 다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원전통차례인 불전헌공다례와 부도다례 등을 발표하기도 한 석정원차회는 대전과 울산, 부산, 춘천, 제주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문화 교육현장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예절다도학과

## 예 정신 널리 알리는 지도자 양성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학 성균관대학교. 건학 600여년의 전통을 간직한 성균관대에는 다도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예절 다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예절다도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예절다도학과는 물질은 풍요롭지만 심성은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예(禮)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매년 40여 명의 생활과학대학원생 중 15~20여 명의 학생이 지망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예절다도학과에는 여느 특수대학원이 그러하듯,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고 있다.



재학중 중·고 대상 다도 실습
졸업생에 재교육 기회 제공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덕분인지 학생들의 학습 열정이 대단하다"는 조희선 주임교수는 "졸업생들의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고 말한다.

"차는 종합과학"이라는 조 교수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다도를 이해하기 위한 동양삼국의 다도철학을 비교 분석하는 다도철학과 차의 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다도와 예술, 유·불·도에서의 다례를 배우는 종교와 다례, 다도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다루는 다도지도론 등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강의 외에도 매년 봄이면 보성과 제주도로 제다실습을 나가고 가을이면 들차회를 연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육실습. 2월이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다도교육을 한다. 또한 수차례의 세미나를 열어 서로의 연구 결과물을 나누고, 방학 때는 졸업생이 직접 세미나를 주최해 재교육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과목 '인성품'의 심화과정인 '인성특품' 과정을 예절다도학과에서 맡게 된다. '인성품'이 예절다도의 이론을 가르치는 과목이라면, '인성특품'은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실습을 졸업생들이 맡아 지도할 예정이다.

때문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성균다법'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통일된 다법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이는 곧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생활예절다도 지도자로서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여수령 기자

---

인터뷰 조희선 주임교수



### 옛 것과 조화 이룬 다법 펼칠 것

"요즘 사람들은 이웃은 물론 가족 사이에서도 예절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절다도학과는 우리 전통의 예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곳입니다."

예절다도학과 주임교수인 조희선 교수는 지난해 두 가지 큰 일을 치러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다도 교양강좌의 심화과정을 신설하는 산파 역할을 했고, 예절다도학 박사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예절과 다도는 어느 것이 더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조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차 생활의 옛 모습을 지키며 현대생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다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한다.


# 마하몰 갑신년 설맞이 특판기획전

구매고객 모두에게 고급원목단주를 증정합니다. 무료배송(단 3만원이하 제품은 배송료 4,000원 별도)
[기간] 2004년 1월 14일 ~ 2월 13일까지 (딱, 한달간)



※ 마하몰에 직접 방문하시면 희담석의 효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희담석 스님용 보료 (15%할인)
판 매 가 : ~~2,800,000원~~
특 판 가 : 2,380,000원
사 이 즈 : 90cm X 180cm X 10cm
※설치비 별도(10만원)




37°氣 제품 한개더 100개한정 판매



● 황토달마 100개한정 판매
판 매 가 : ~~198,000원~~ ⇨ 특 판 가 : 98,000원
규 격 : 가로 25cm x 세로30cm
재 질 : 지리산 황토 100%
특 징 : 황토달마를 집안에 모시고 물을 뿌리면 겨울철에 가습기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담석 방석 (20%할인)
판매가 : ~~198,000원~~ ⇨ 특 판 가 : 158,400원
사 이 즈 : 38.5cm X 35.5cm 색 상 : 회색, 살구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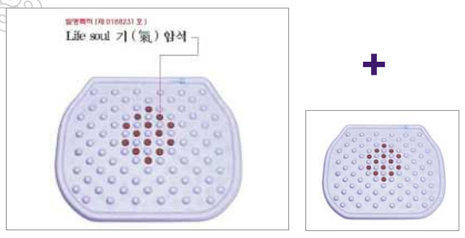


● 희담석 찜질팩 (20%할인)
판매가 : ~~38,000원~~ ⇨ 특 판 가 : 30,400원

희담석 체험사례

▶ 경안스님<전남 덕흥사>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 되어서 좋다.

▶ 김용섭<여/66세,강북구 미아동>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열꽃이 솟고 팔꿈치 윗부분이 숨도 못 쉴정도로 아프던 지병 때문에 지난 10년간 좋다는 원적외선 치료기, 각종 매트등을 사용해 봤으나 일시적으로만 약간 나은 정도였다. 그런데 우연히 <희담 침대>를 알게 되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온 몸이 푸근하고 편안했다. 보름 정도 자고 나니 10년 동안 느껴오던 그러한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제 사용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이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내 통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놀라와 했다.




● 37°氣베개 - 일반 메모리폼 베개가 아닙니다
판 매 가 : ~~69,000원~~ ⇨ 특 판 가 : 60,000원(2개)
색 상 : 아이보리, 하늘색
사 이 즈 : 47cm x 29cm x 8cm

● 37°氣방석
판 매 가 : ~~40,000원~~ ⇨ 특 판 가 : 20,000원(2개)
색 상 : 연보라, 베이지
효 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냉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 불량에 좋습니다.



● 달마원목시계(원형, 팔각형)
판 매 가 : ~~55,000원~~
특 판 가 : 각 33,000원
재 질 : 체리목 크 기 : 400mm
특 징 : 고급 무소음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고장이 없고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1년간 무상 A/S)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하몰 주문 전화 : 02)732-1520
농협 : 053-12-113210 하동규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그냥 갈 수는 없어

### 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

문 선원에서는 매년 정월에 삼 일 동안 촛불재를 봉행합니다. 사시에는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재를 하고 저녁에는 촛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자성이 본래 부처라면 왜 해년마다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답 정초에 삼 일 동안 촛불재를 하는데, 그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래 아는 것이라면 아마 전자에 선조들이 그렇게 방편으로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말씀 안 하고도 될 수 있었다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염불도 있어야 했고 촛불재도 있어야 했고, 그 옛법을 다 갖추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도 예전 법도 들이 아니게 우리는 항상 그걸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알고 해야 합니다. 모르고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밝아져 있지 않다면 촛불 자체를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입니다. 전체 근본 자체가 바로 마음의 근본이니까요. 우리가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마음의 근본이라! 그 근본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무수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 조그마한 마음의 촛불, 티끌만도 못한, 아니, 티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묘합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촛불이지만, 언제나 생활을 하든지 만남이 있든지 사랑을 하든지 회사에 나가든지 모든 것을, 먹는 거나 자는 거나 깨는 거나 또 만나는 거나, 모든 것을 자기한테로 돌릴 때 그 때에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보림을 하는 겁니다. 또 만나고 난 뒤에 보림을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촛불 하나가,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이 우주를, 아니 우주 전 세계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다 닿기만 하면 몽탕 몽탕 태워 버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재를 하면서, 저녁에 예불을 모시고 촛불재를 하면 그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킨다는 거를 아주 실감나게 실천으로 옮기면서 내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나까지도 거기 더불어 같이 태우는 법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 촛불 자체는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바로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력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촛불재를 하더라도 그 촛불 하나가 우주 대천세계를 태울 수도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고정되게 착을 두지 않으면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을 나온 그자리에 내려놓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또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생각을 했어도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려고 걸음을 걸었다면 뒷발자취가 없듯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아직 떼 놓지 않았으니까 발자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밝힌 그 한 마음 촛불 하나에 지금 현실, 이 순간 바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 깨우침에도 시간이 필요한지

문 내 마음의 근본을 발현해 내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요.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서 근본의 참소식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인지요.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루 빨리 근본을 발현해 낼 수 있을는지요. 갑갑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답 오히려 그것을 잘 생각해 봐요. 생각을 잘 돌리면 공부하는 데 아주 진전을 볼 수 있어요. 여지까지 점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일 년이든 이태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일 년이 한 달도 될 수 있고 한 달이 일 년이 될 수 있고, 삼 년이 석 달이 될 수 있고 석 달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사흘이 될 수 있고 사흘이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루가 일 초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동안 공부를 했다는 그런 착(着)을 가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백 년 할 거를, 남들이 삼 년 할 공부를 사흘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우리는 지금 그대로 놔 버리면서 무심으로 무행으로 무설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흐리멍벙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 이외의 딴 데서 척 튀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불한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그 근본 주처에, 즉 불성자리에서만이 모든 걸 들이고 내고 움죽거리게 하고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한다는 거를 믿고 알면 고대로 실천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간절하게 믿어야 된다, 간절하게 믿는 반면에 간절하게 관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은 해결이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믿고 들어가긴 들어가되 그것도 무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어저께 일한 거는 그냥 없어졌고 오늘 일한 것도 또 없어져요. 일을 한 사이가 어디 있어요? 만날 쳇바퀴 돌듯 하는데요. 우리 인생살이가 지금 쳇바퀴 돌듯 하는 거지, 어저께 한 거를 쥐고 있고 그러나요? 어저께 한 거는 그냥 간 곳이 없고 오늘 또 해야 돼요. 오늘 또 채워야 하고 또 오늘 찬 거는 간 곳이 없고 또 내일 또 채워야 돼요. 항상항상 가면서 놔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저께 한 말을 지금도 쥐고 있습니까?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놔 버렸지. 놔 버리는 사이 없이 그냥 놔 버려졌잖아요. 공으로 돌아갔잖아요. 연방 그렇게 하면서도 연방 일 초도 머무르지 않고 자꾸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또 오고 없어지고 또 오고 또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물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는 자체가 물 흐름과 같기에 물 리듬과 같다고 하는 거고 파도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어서 그렇게 비유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놔 버리고 가는데 뭘 놓으라는 소리를 또 군더더기처럼 붙이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도 항상 놓고 가잖아요. 애들은 애들이었던 모습과 생각을 놓고 어른이 되고, 어른은 어른대로 그런 것을 놓고 늙어지고 이렇게 순간순간 놔 버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대로 놔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무심(無心)으로 가는 거고 무행(無行)으로 가는 거고 무설(無說)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애타게 걸리지 말아요. 놔 버린다고 하면서 놔 버리지 못해서 걸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놔 버리는 거니까요. 그 놔 버리는데다가 또 걸려 가지고 야단들이니까 그 놔 버리는 데도 걸리지 말라 이거예요. 안 놔 버리는 것도 없고 놔 버리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항상 놔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무설이요, 아무리 움죽거렸다 하더라도 무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가야 깨닫지' 하는 생각도 말라 이거예요. 시간이 어디 고정되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말이 거기 어구에 붙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그냥 넓혀서, 아주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또 가볍게도 생각하지 말고, 또 멀리도 생각하지 말고 가깝게도 생각하지 말고, 즉 자기, 자기 심봉에 의해서 바뀌는 돌아간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 심봉만을 잡아야 돼요. 그 심봉을 잡지 않으면 바뀌는 허탕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바뀌는 반드시 심봉을 끼고 돌아가야 돼요. 고것만 알면 됩니다. 이 세상 이치가 돌아가는 것이 바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심봉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봉이 꿰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만 알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래 바뀌에 심봉이 꿰어져 있다는 거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알면 스스로서 우리가 놔 버릴 것도 없고 안 놔 버릴 것도 없고 그 말 자체가 거기 붙을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알면 바로 그게 깨우침입니다.

### 자기 주인공을 찾으려면…

문 저는 주인공이 자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자기 주인공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며, 또 그렇게 지금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인가가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생활을 누가 합니까? 그런 생활을 천차만별로 하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걸 한데 모아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음 주인공.

여러분 몸속에도 그렇게 수효가 많습니다. 의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생명체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한마음 주인공!' 할 때 천지가 한데 합쳐지는 그런 이치죠. 그래서 주인공 하면은 하늘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인간으로는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를 믿고 말기면서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믿었을 때 모든 것은 한 구녘에서 나오고 한 구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 듣고 이러면서 바로 마음속으로 들이고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고 생각하고 벌써 마음속에서 내고요. 이 생활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면서도 자기를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을 모르든 알든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습니다. 남이 대신 먹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자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아파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거라도 누가 대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그냥 갈 수는 없다' 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자기가 리드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거기에 맡겨 놔 보고 실험을 해 보세요, 그게 체험이 안되나 되나. 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주인을 잘 섬겨야 그 주인이 바로 자기 몸을, 주인 몸을 잘 이끌어 나가죠. 안 그럴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알고 노력한다면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시는 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차원을 높여서 정말 하나님이 되고 정말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자기가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무시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자기를 끌고 다닌 자기를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주인을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 간절하게 믿는 반면에 간절하게 관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납니다

### 종교간의 갈등에 대해서

문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교간의 문제로 가정과 사회 국가적으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해진 종교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답 왜 갈등을 갖습니까? 나는 이럽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죠. 사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다 둘이 아닌데 왜 둘입니까, 그게. 그리고 또 무의 세계 50%를 완전히 터득했을 때 그것은 모두가 내 형제예요.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이 집으로 가기도 하고 저 집으로 가기도 하는데 무슨 기독교가 꼭 박아 놨습니까, 네? 아, 이 나라에서 살다 저 나라에 가서도 태어나는데 무슨 꼭 박아 놨습니까.

모두 마음들이 무의 세계 50%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럴 때 "야, 여자가 남편 따라서 갈 때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그러는데 몸뚱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곳에 가도 네가 있으니까 네 주처가, 주님이 거기 있지 않느냐." 이럽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일루 가도 그 자리요 절루 가도 그 자린데 왜 걸립니까? 들이 좋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디 기독교가 다르고 가톨릭교가 다릅니까? 생명은 똑같습니다.

아니, 저런 나무하고 인간하고도 주고받고 먹고 살고 있는데, 하다못해 사람들끼리 다르다면 그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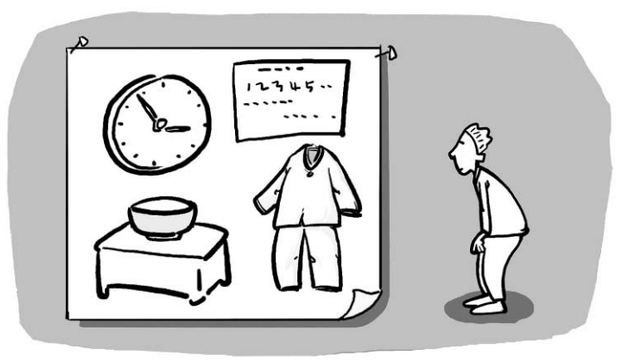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건 자기 주인을 무시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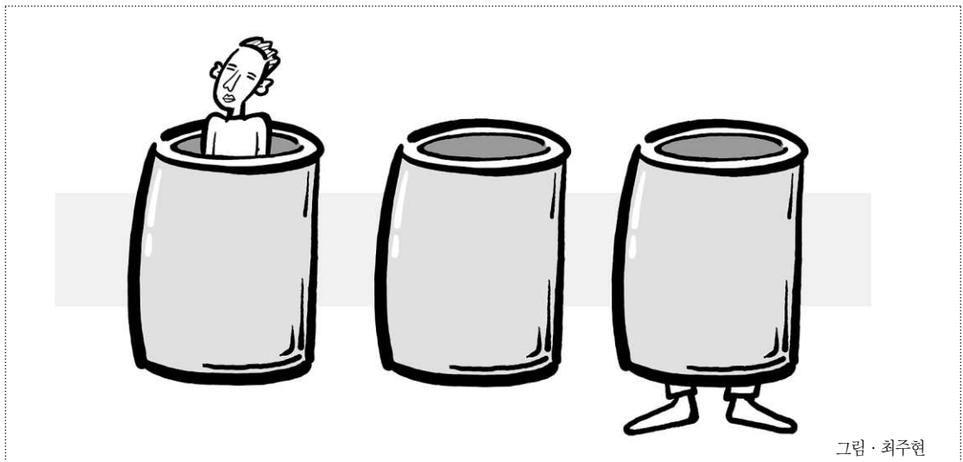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즉 말하자면 회장하고 사장하고 직원하고 모두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따로 있고 불교 따로 있고 그럽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독교인하고 가톨릭교인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장인이 목사거든요. 영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이, 당신네들의 관습 때문에 말 그 자체가, 마음 자체가 창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 창살 너머 저쪽 창살 너머를 만들어 놓은 거지, 사방이 다 터졌다 이거예요. 그래 지구 항아리 속에서 같이 살면서 요거는 마음으로 울타리를 해 놓고 내 울타리 안 네 울타리 바깥, 요렇게 하고 찾는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장인하고 인제 사위하고 다 합의돼서 결혼시켰다구요. 그래 참 재미있는 일도 많았어요.

**마음을 좀 곱게 쓰고**
**마음을 좀 넓게 쓰고**
**마음이 보배라는 걸 알라**

그런데 기독교가 뭐 다르고 가톨릭교가 뭐이 다르고 모두가 뭐이 다릅니까? 죽어가는 것도 똑같고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도 똑같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똑같고 인간의 마음을 천차만별로 굴리는 것도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그건 자기네들 마음 탓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곱게 쓰고 마음을 좀 넓게 쓰고 마음이 보배라는 걸 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마음 좀 잘 넓혀서 진짜 사랑이란 두 글자가 한데 종이짝처럼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실행과 실천을 하는 데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세 살을 먹어도 다섯 살을 먹어도 이론적으로는 빤히 나보다도 더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칠십 살 먹고 팔십 살 먹어도 실천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들 해 보세요.

### 깨달음과 신통력의 관계

**문** 마음을 깨치는 것과 신통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 신통력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여러분이 회사에 앉아서 집에 갔다 와 보세요. 갔다 오실 수 있죠? 어디에 뭐가 놓여져 있는지 볼 수 있죠? 그게 신통력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해서 만약에 정말 물리가 탁 터진다면 우주도 전체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보고 탐험할 수가 있고, 전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전체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데서 다 할 수 있고, 뭐 그것뿐이 아니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다 알 수도 있고 가고 올 수도 있고요. 요 대문 바깥이나 저 몇 광년이 되는 다른 혹성에 가는 그 거리나 문지방 넘어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도리를 안다면 여러분이 신통력이라는 언어도 붙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는데 거기 신통력이라고 이유가 뭐 붙을 게 있습니까. 이유도 언어도 붙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를 궁금해하기 전에 바로 목마르면 그냥 물 마시는 도리이니까요.

### 공하다면 현세에 고생하는 이유는

**문** 스님께서는 업과 고가 불을 자리가 없다고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생 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군요. 아주 주근깨가 그냥 바짝 끼어 가지고 척추에 병이 나고 심장에도 병이 나고 병 안 난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구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어린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이 못 쓰게 됐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너무 내 마음에서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도 내가 모를 때, 내가 고통 받을 때 바로 내 모습이지, 바로 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가 괴롭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 무조건 네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기고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물러서지 말아라." 이렇게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다, 진짜 간절히 말겼던 모양입니다, 아플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관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아, 병이 차차 나아가면서 얼굴에 주근깨가 다 없어지면서 점점 그야말로 세련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그렇게 구두도 좋은 걸 신고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일이 영 안되더니, 취직을 못해서 뭐 6년인가 7년을 놀았대요.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회사를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회사 직원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도 세련된 걸 신고, 얼굴도 좋아지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아,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업고 오니까 시집에서 내쫓기지도 않구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법이고 길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무시하고 삽니다. 자기 주처를 무시한다고요. 그러곤 만날 저길 쳐다보고 고상을 걸어놓고 형상 부처님을 갖다가 놓고 그냥 만날 잘되게 해 달라는 거죠. 뭘 잘되게 해 줍니까? 네? 자기 마음에 달린 건데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으니 나부터 알고 상대를 알아야죠. 안 그럽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약사발을 받았죠? 너부터 알라고 그래 가지고 말입니다. 달마 대사도 양 무제가 "공덕이 얼마가 됩니까?" 하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나서 말입니다, 달마 대사한테 약사발을 안기게 되죠. 그런데 달마 대사에게 약사발을 안겨서 죽어 묻었다고 했지만, 사신을 보냈었는데 사신이 다녀오다가 보니까 달마 대사가 떠억 주장자에다가 짚세기 하나를 걸어 메고는 털렁털렁 오거든요. "아. 어디를 갔다 오나?" "나는 지금 심부름을 하고 옵니다." 하고 달마 대사하고 얘기를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서천국으로 가네."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신이 양 무제한테 와서 "달마 대사 봤습니다." 하니까 아, 달마 대사는 죽여서 벌써 묻었는데 달마 대사를 봤다니 그 희한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깐 양 무제가 깜짝 놀라서 가서 산소를 파 보니까 짚세기 한 짝만 거기 들어 있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약사발을 안겨서 죽였는데도 달마 대사는 양 무제를 위해서 그 도리를 일러줬던 겁니다. 그 뒤에 바로 양 무제는 달마 대사한테 저지른 자기의 행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후회를 하면서 간절히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니 모두가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 합니다. 나보다도 먼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 속에 들어가서 상대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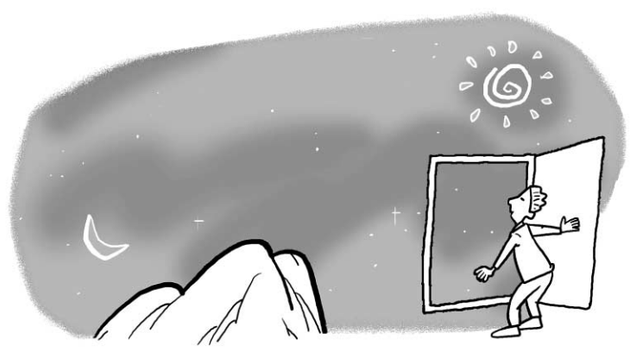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기문 둔갑 강의 안내

(사주, 작명, 택일, 풍수)

- **교육 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문의 : 02-961-0870 ~ 2)**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문의 : 031-201-3377)**
- **개강 일시 :** 2004년 3월 첫주부터 15주 과정
  매주 수요일(서울) : 기초반 (오후 7시 ~ 9시까지) - 원리론
  매주 목요일(서울) : 고급반 (오후 7시 ~ 9시까지) - 해단 및 단식
  매주 화요일(수원) : 기초반 (오전 10시 ~ 12시까지) - 원리론
- **수 강 료 :** 학기당 16만원(15주)
  ※ 60세이상 50%할인혜택으로 8만원(서울)
- **원서접수 :** 2004년 2월 1 일부터 ~ 2월 28일까지 선착순마감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서울)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부(수원)
  ★인터넷접수 - 서울 http://cce.khu.ac.kr
  수원 http://ww1.khu.ac.kr/~ice
- **제출서류 :**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 **수강과목 :** 기문명리학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6기)
(민강 기문역학원장 **02-3476-3433, 3430** www.gimun.net)

※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개인상담원 창업시 관리 지원

**기문둔갑이란?**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둔갑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통의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카운셀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사업운영이나 명리상담원을 하는 분들,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께는 참으로 필요한 학문입니다.

원장 특별개인지도 60회 완성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청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건강 나이 몇 살이세요?

200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80.1세, 남성은 72.8세다. 교통사고, 유아사망 등을 감안하면 실제 평균연령은 거의 90세에 육박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은 인류가 그만큼 건강에 관심을 가졌다는 반증이다.

노화학자들은 인간 수명의 70%는 흡연, 음주, 식습관, 스트레스 등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한다. 실제 나이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수명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다. 2004년 갑신년 100세까지 살기위한 건강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그래픽=최정근

## 건강나이란?

현대 의학에서는 나이를 크게 달력나이, 생체나이, 건강나이로 분류한다. 달력나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해지는 나이다. 이에 반해 생체나이는 우리 몸의 인지기능, 신체기능, 대사기능 등을 측정해 생체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강나이는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하느냐를 측정하는 나이다. 즉, 술과 담배, 불규칙적인 식사, 수면 등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기초해 수치화된 나이를 뜻한다.

### 측정법.

건강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측정법은 미국 시카고 프리츠크의대 마이클 로이젠 교수의 '실제나이' 계산법이다. 로이젠 교수는 2만 5천여건의 임상연구를 토대로 습관, 질병, 환경 등 수명에 영향을 주는 125개의 기준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www.realage.com)에 공개해 놓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

**로이젠 교수 계산법, 인터넷 통해 점검**
**나라별 각종 측정 질문표 고안 '인기'**

일본 나고야시립대학 미토모 다이지 교수는 간기능, 혈압, 콜레스트롤 등 14가지 건강검진 항목을 기초로 각 장기의 상태를 수치화해 종합적인 결과로 건강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또한 캐나다 노화 전문가인 데이비드 위켄하우저 박사도 10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양섭취, 음주량, 숙면 여부 등을 질문표로 만들어 건강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측정법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측정법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인제대 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가 외국 자료와 한국인의 유병류를 참고해 만든 건강나이 측정법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야후나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김철환의 건강나이'로 검색을 해 보면 측정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서울대학병원 평생건강클리닉(02-760-3330), 대한가정의학회 건강위험평가연구회(책임연구원 신호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건강위험평가 프로그램(HRA)'(02-735-2129),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의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02-3010-3114) 등에서도 자신의 건강나이를 측정해 볼 수 있다.

### 줄이는 비법

김영식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태어나면서 갖는 유전적 요인과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의 행동 및 생활습관이 건강의 3대 요소"라며 "이 가운데 인위적 조절 가능한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이라고 말한다. 즉, 흡연, 폭음, 운동부족, 불규칙적인 식사, 수면부족 등 나쁜 생활습관을 버리면 건강나이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조절 가능한 건강 변수에 대해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이 3년,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몸무게

**금연 8년 꾸준히 운동 하면 9년 젊어져**
**참선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장수비결**

유지가 각각 2년, 적절한 식사 및 규칙적인 습관 등이 1.5년, 절제된 행동 등이 1년의 수명연장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나이 계산법을 고안한 마이클 로이젠 교수도 담배를 끊으면 8년이 젊어지고 유산소운동, 근육운동, 지구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9년이 젊어진다고 말한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건강나이를 줄이는 훌륭한 방법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보스턴대학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 169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 장수노인들은 한결같이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한 운동, 취미활동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요가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불교의 수행법인 참선, 염불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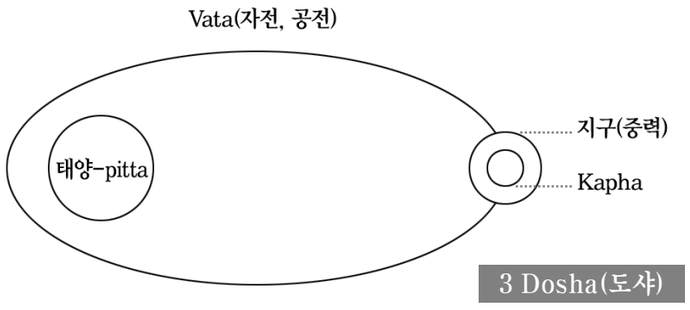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⑤

## 3도샤 몸 속 생리적 기능의 힘

### 우리 몸을 관장하는 3가지 도샤의 속성

아유르베다는 1프라나 3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3원론이란 '3 도샤(dosha)', 즉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를 이르는데, 우주의 현상은 바로 이 3가지의 조화와 균형으로써 유지된다고 했다. 우선 바타는 운동성을 나타낸다. 즉, 우주 현상에서 바타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공전, 자전하는 성질을 가리킨다. 피타는 불, 또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즉, 태양의 빛과 열로 우주를 밝히고 에너지를 충만케 한다. 카파는 접착성 즉, 중력과 원심력, 구심력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Dosha(도샤)

**우주현상 3원론의 조화로 유지**
**'바타' 인체내 물질 이동에 관여**
**지나치면 정신혼미 고혈압등 유발**

이 3가지 도샤의 역할은 우주의 역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역할의 분담과 조화는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리적 기능의 역동성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우리 몸 속의 유전자라든가 세포 등등은 제각기 인식하는 기능이 따로 있다. 이런 것들이 도샤로써 발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3가지 도샤는 우리 몸을 살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 첫번째로 오늘은 '바타(vata)'에 대해 알아보자.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우리 몸은 공간, 공기, 물, 불, 흙의 5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바타는 공간과 공기의 조화와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몸 속의 공기, 혈액, 음식, 신경, 생각과 노폐물의 움직임과 이동에 관여한다. 심신의 균형을 잡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운동하고, 감각을 느끼며, 생각하고 결심하는 역할도 바타가 담당한다. 이러한 바타는 차가움, 가벼움, 건조함, 변동성, 움직임, 엷어짐, 거침이라는 7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바타의 속성이 지나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위에 가스가 차며 불면증, 신경 과민, 고혈압 등을 가져온다. 반대로 부족하게 되면 울혈, 변비와 함께 매사 무신경하게 되고 생각이 없어진다.

체질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바타 체질을 가진 사람은 키가 아주 크거나 반대로 아주 작다. 살집이 전혀 없고 뼈가 툭 튀어나와 있으므로 몸이 매우 가볍다. 피부는 거칠고 건조하며, 눈은 작고 초조함을 담고 있다. 머리카락 또한 가늘고 거칠거칠하다. 이빨은 전체적으로 굽어 있는 데다 엉성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손톱은 거칠고 부서지기 쉽다. 관절들은 툭 튀어나와 있으며 굳어 있고 뚝뚝 소리를 내는 게 특징이다. 혈액 순환이 좋았다 나빴다 일정치가 않다. 입맛이 자주 바뀌고 갈증을 잘 느끼질 않으므로 땀을 거의 안 흘리며 변은 딱딱하고 습기가 없으며 소변의 양도 아주 작다. 추위에 약하고 건조한 체질로 바람에 예민하다. 통증을 심하게 느끼며 정신 신경 계통의 질환에 걸리기 쉽다. 항상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고 참을성이 없다. 숙면을 취하지 못해 늘 얕은 잠을 자며 쉽게 깨고 꿈을 많이 꾼다. 기억력은 좋으나 그만큼 건망증도 심하며, 말이 빠르며 말수 또한 많은 편이다. 성질이 급하고 자주 변한다. 장점은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점이고, 단점은 공포감을 잘 느낀다는 것이다. 믿음이 쉽게 변하고 엉뚱할 때가 많다.

■포천중문의대 교수


# 佛經漢文科

**통신반 · 출강반 慕集**

1. 慕集期間 ▷ 전기 : 1월 15일 ~ 2월 15일(기간엄수)
2. 教育科目 ▷ 무량의경(漢文本)
▷ 묘법연화경(漢文本)
▷ 관 · 보현보살 행법경(漢文本)
▷ 교양과목(생활한자 5,000자)
3. 教育期間 ▷ 3년(6학기) / 통신반 출석반 동일
4.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통신반)
▷ 월1회 출석특강(통신반)

※ 본 연구소에서는 불경공부와 수행이 알음알이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5.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
6. TEL. 053)952-8711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社)國際語文研究所**

所長 · 哲學博士 崔光永
대구시 동구 동대구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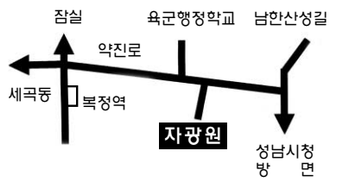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 봉인사 2월 수련 안내

**하나. 위빠사나 수련**

◆ 안 내 : 김열권
◆ 일 시 : 2월 4일(수) 오후 3시 부터 2월 8일(일) 까지 (4박 5일)
◆ 준 비 물 : 간편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 수련비용 : 15만원(중,고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

◆ 지, 수, 화, 풍, 공 의 오대 관법을 통한 위빠사나와 티벳 밀교계통의 자비관법수행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일 시 : 2월 14일(토) 오후 3시부터 19일(목)까지 (5박 6일)
◆ 준 비 물 : 간편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 수련비용 : 18만원(교재비 포함)(중, 고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 다도(茶道) 수련**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일 시 : 2월 15일(일) 오후 1시 반부터 19일까지 매일 출퇴근 가능
◆ 동 참 금 : 4만원(교재비 별도/ 교재는 **"찻 잔속에 달이 뜨네"** (봉인사에 비취되어있슴)

* 문 의 : 031) 574-5585
Homepage: www.bonginsa.net
E-mail : bonginsa@hanmail.net

**봉인사 한길정진원**

# 옛것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공덕의 터

인도그림기행 35

그림·글 이호신

## 염원속에 사르는 전단향

(기원정사와 천축사에서)



◀ 염원-기원정사에서(38.5×58cm).

거대한 보리수를 마치 지기(知己)로 마주하고 있는 듯한 수닷타 집터와 앙굴리마라 스투파. 그 언덕 위로 우물터와 연못이 발견된 곳을 둘러보는데 주변은 온통 분주하게 발굴이 진행 중이다.

복원의 역사(役事)가 새로운 역사(歷史)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옛 뜻을 되살려 기필코 오늘에 쓰여야 할일. 가두는 못이 아니라 옛 강이로되 썩지 않고 출렁이며 흘러가는 생명수가 되어야 하리.

자이나교, 힌두 사원을 지나 시야가 툭 트인 외길을 따라 벗어나니 드디어 기원정사에 이른다.

내심 화첩을 낀 나는 예불시간 동안 틈을 내 기원정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밑그림을 그려 화실로 돌아가 지형에 따른 복원도를 구상 중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입구에 들자마자 도면을 파는 아이들이 덤벼들자 생각은 더 간절하다.

승원터는 붓다께서 24하안거를 지냈다는 코삼바쿠티(Kosambakuti)와 당시 7층 건물 규모에 전단향목으로 만든 불상을 모셨다는 간다쿠티(Gandhakuti). 그 향전(香殿)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사의 뜰은 매우 계획적이다. 그 규모가 남북 457m, 동서 152m에 이르는 넓은 뜰엔 특히 거대한 아난다의 보리수와 두개의 탑이 눈길을 끈다. 사연인즉 붓다께서 우기(雨期) 때만 머무시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제자 아난다는 붓다께 성도하신 보드가야의 보리수 묘목을 가져다 심기를 청한바, 이를 허락하자 제자 목갈라야나(목련존자)의 신통으로 마침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24하안거 지내신 승원터**
**순례객들의 간절한 예불송으로 가득**
**한국절 천축사 풍경소리 색다른 감회**

"정사(精舍)안의 지류(池流)는 청정하고 수풀은 무성하여 갖가지 꽃들은 울연히 피어 가관이니, 여기가 이른바 기원정사이다"라고 한 법현 스님(A.D407년)은 "동문 좌우에 높이 70여척(21m)에 이르는 2개의 아쇼카 석주가 세워졌는데 우측에 소, 좌측에는 법륜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한다. 그 이후 현장 스님의 순례(A.D 637년)때 까지 여러 차례의 화재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건재했다는 전단향목으로 만든 불상마저도 오늘은 폐허 속에 찾을 길 없으니 세월은 다만 무상할 뿐인저.

쌓인 사연의 키만큼이나 깊은 우물을 들여다 보고 홀로 돌아서 가는데 일행 중 유일한 비구니인 혜윤(慧允) 스님(문경 고선사)과 마주쳤다. 그런데 반겨 주시는 스님은 오늘 따라 더 해맑은 표정이다.

"스님,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란 하늘을 덮는 공덕을 쌓아야 이루어지는 법이라는데 그리되셨으니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예, 제가 이 기원정사에 와서 아주 실감합니다. 부처님 법 인연에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을 떠나올 땐 자그마한 키에 지긋한 연세의 혜윤 스님은 날이 갈 수록 젊어지더니 오늘은 마치 어린아이 처럼 맑고 천진해 보이는게 아닌가. 하여 속내를 밝혔더니 스님은 그새 얼굴을 붉히면서도 환희에 찬 모습이시다.

한편 승방 주변을 노랑, 주황색 승복을 입고 서성이는 인도 스님들. 기후차에 민감한지 모두 털모자를 썼는데 동자승도 함께 보인다. 그런데 현지 스님 중에는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일종의 가짜 승려가 있어 문제라는 점. 승복만 걸치고 이곳 순례객들에게 생활비를 벌어 우기철에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이비승이 많다는 것이다.

확인할 길은 없는 풍문 속에 마침내 승원터에 오른 송암 스님(도피안사)의 집전아래 도반들 모두가 참배에 임하니 가는 구름도 머물고 지저귀던 새들도 숨을 죽인 듯, 예불송의 뜨거운 기운은 온 누리를 향해 번져 나아간다. 지금껏 이토록 절절한 기도의 전율에 휩싸여 본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비장하기까지 한 저 간구의 노래를 어찌 잊으랴.

결국 기원정사 밑그림을 포기한 나는 합장한 도반들의 뒷모습을 화첩에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달이 떠오를 때 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염원의 광경을 화폭에 담고 싶어졌다.

"수닷타 장자여, 위대한 자비 보살이여, 여기 모인 우리는 그대 뜻을 따르리라. 새 인연으로 다시 전단향을 사르리라."

모두들 상기된 마음으로 정문을 나와서는 기원정사 주변에 세운 한국절, 천축사(天竺寺)를 찾아간다.

길 주변엔 스리랑카, 태국, 일본 절들이 살펴지고 천축사와 벽을 마주한 곳에는 티베트 절이 한창 신축을 서두르고 있다.

반갑게 맞아주는 대인(大忍) 스님, 오랜만에 듣는 처마 아래의 풍경소리. 그 청량하고도 맑은 소리는 단아하면서도 수행자의 기품이 배인 스님 모습에 닿아있다. 집은 사는 이의 향기가 배이는 까닭일까. 법당은 물론 숙식을 위한 방도 깨끗하다.

스님은 무엇보다 현지 인도 스님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한국 스님 보다는 인도 스님을 통해 불교 발상지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 인도의 삶과 문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란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실천을 위해 의지하는 것' 이라고 볼 때 스님의 방편은 참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남은 생을 마칠 때 까지 이곳 불사에 전념하리라는 스님의 맹서는 인도 전역을 세 차례나 배낭여행한 끝에 얻은 결론으로 필생의 서원이요, 굳은 의지이다.

이에 문득 스님을 통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의 푸른 달밤, 팔각구층석탑 앞에 조아린 '일체중생 희견보살상(一切衆生喜見菩薩像)'을 떠올렸다.

석탑 앞에 지그시 눈을 감고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보살은 무려 1200년 동안이나 몸과 팔을 태우는 소신(燒身) 공양으로 마침내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는 약왕보살(藥王菩薩)이 되었다 한다. 비가 오나 눈보라를 맞으나 일체 중생을 위해 형상이 마모될 때까지 온 몸을 사르는 자비의 보살은 아직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아쉬운 이별은 해후의 그 날을 그리워하기로 하고 부디 스님의 뜻과 건강이 청안(淸安)하기를 빌었다. 그런데 스님은 순례의 기념으로 방명을 부탁하니 나그네 또한 붓을 들었다.

'佛流花開'
불(법)은 흐르고 꽃은 피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한솔 銀 세라믹매트

純銀 99.9%

100% A/S보장

- 한솔 銀 세라믹 매트 · 강력한 銀의 항균력 -

- 은과 접촉하여 6분이상 살수 있는 세균은 없다고 합니다.
- 銀은 현재까지의 실험결과 지상의 거의 모든 단세포 병균을 살균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물, 커피, 쥬스 등 액체를 매트에 흘렸을 경우 마른수건으로 닦아 주는것으로 매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앞선 기술력의 (주)한솔의료기의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무이자 6개월 할부

■ 한솔 銀 세라믹매트 / 왜? 비싼 「銀」을 사용했을까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

여름에는 시원하게 !

서양에서는 은제(銀製)컵을 사용하여 병의 감염을 막아 왔으며, 은전(銀錢)을 항아리에 넣어 우유의 변질을 막고 은상자속에 음식을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용 접시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동, 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은을 자연항생제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시 은은 귀금속으로서 그 값이 비싸서 일반 대중은 사용할 수가 거의 없었고 왕궁에서는 은이 인체에 미치는 특이한 점을 이용하여 모든 식기 및 장신구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세기 때 유럽지역에 '페스트'가 창궐했어도 왕궁에는 단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한솔의료기에서 은을 소재로한 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수면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한솔 銀 세라믹 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세라믹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銀세라믹 매트(더블)
· SIZE : 200cm×140cm · 소비자가 : 199,000원
▷ 銀세라믹 매트(싱글)
· SIZE : 195cm×100cm · 소비자가 : 109,000원
▷ 銀세라믹 세트(더블+싱글)
· 소비자가 : 298,000원

(주)한솔의료기 Hansol Medical Co.,Ltd

건영시스템 www.kysystem.co.kr

★ 주문전화 080-903-8000

음전위: 온열 난방 : :